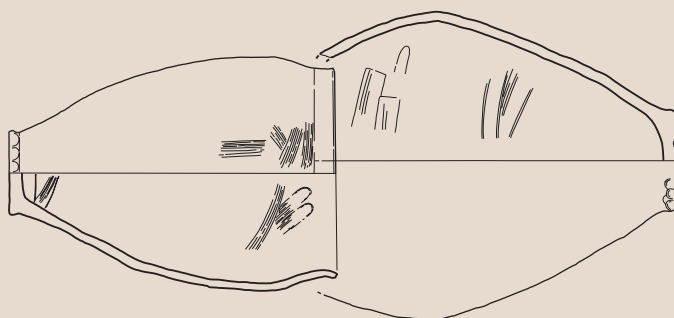




V. 고 찰



V. 고 찰

1. 탐라성립기

가. 유 구

도련동(614-1번지)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주거지 4동, 굴립주건물지 1동, 수혈유구 22기, 구상유구 5기, 집석유구 1기, 소토유구 2기, 옹관묘 1기, 토광묘 4기 등이 확인되었다.

1) 주거지

수혈주거지는 모두 평면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 해당한다. 4동중에서 1동(2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괴되거나 교란된 상태이다. 조사결과 잔존상태의 주거지 현황은 다음의 표6)과 같다.

표6) 주거지 현황⁶¹⁾

호수	장축방향	규모			타원형 구덩이(cm)				양단주혈(직경×깊이)			면적(m ²)	비고
		장축	단축	깊이	장축	단축	깊이	형태	동(남)	서(북)	양단거리		
1호	N85°W	454	261	7	117	56	36	A	27×32	26×36	97	16.2	1/2 결실
2호	N83°W	444	414	29	104	37	4	C	26×18	30×18	44	15.6	후축
3호		300	130	12								7.1	선축
4호	N84°W	376	370	42	146	54	11	A	26×14	24×39	51	10.8	1/2 결실

금번 발굴조사된 수혈주거지는 2호를 제외하고 상당부분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먼저 주거지의 평면형태를 보면 대체로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에 해당한다. 타원형구덩이의 형식을 살펴보면 A식과 C식이 확인된다. 반면 장축규모는 3.7~4.5m 정도로 삼양동일대의 송국리형취락에서 조사된 주거지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⁶²⁾. 또한 장축방향 역시 동서장축에 가까운 형태로 해안선과 평행하게 축조하였다. 주거지의 면적을 보면 1호와 2호는 비교적 대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2호주거지는 내부에 크고작은 자연석과 천석 등이 적석되어 있는데 폐기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4호주거지는 적석폐기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남벽에 치우쳐 여러매의 자연석이 평적되어 있는데 타원형구덩이의 장축방향과 직교하고 있으며 평적된 점을 고려할 때 출입구시설로 판단된다. 즉 원형계 송국리형주거지의 출입구는 타원형구덩이의 단축방향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 송국리형주거지 중앙부에 설치된 타원형구덩이의 형태는 필자의 분류내용을 참고하였다(金慶柱, 2010,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韓國靑銅器學報』第六號).

6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제주 삼양동유적 VI지구-1665-1번지』.

2) 굴립주건물지

굴립주건물지는 장축 330cm, 단축 190cm인 3×2칸 규모로 축조되었다. 건물지가 위치한 곳은 주로 토광묘와 수혈유구 등이 배치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취락 전체의 중심적인 건물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주혈배치가 정형성이 없고 정열에서 일부 이탈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축조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각각의 주혈은 20~30cm 내외로 송국리형취락의 중심부에서 확인된 굴립주건물지와 비교한다면 규모와 축조상태가 빈약한 편이다. 현재까지 삼양동 일대 송국리형취락에서 확인되는 굴립주건물지는 대체로 2×2칸구조가 다수이며 일부 1×1칸, 2×1칸, 3×1칸 구조의 건물지도 확인된 바 있다.

3) 수혈유구

표7) 수혈유구 현황(괄호안은 잔존규모)

위치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출토유물
			장축	단축	깊이	
1	부정형	N84°E	(120)	56	9	삼양동식토기, 파수부토기
2	부정형	N-S	194	44	4	
3	부정형	N79°W	764	302	4	
4	부정형	N10°	276	(169)	4	삼양동식토기, 유구석부
5	타원형	N84°E	240	100	6	
6	부정형	N26°W	240	(150)	3	삼양동식토기
7	장타원형	N84°E	96	40	10	
8	장타원형	N47°W	158	68	23	
9	장타원형	N88°W	138	57	25	
10	타원형	N12°W	113	(86)	22	
11	부정형	N62°E	130	60	40	
12	원형	N55°E	84	82	36	원판형토제품
13	방형	N69°W	78	68	21	
14	원형	N74°W	74	66	13	
15	원형	N21°E	88	80	18	
16	원형	N42°E	(72)	43	16	
17	원형	N10°E	79	(76)	23	
18	부정형	N18°E	(120)	77	12	
19	원형	N-S	118	94	10	
20	원형	N62°W	134	130	9	
21	타원형	N76°W	150	111	14	
22	부정형	N38°E	(149)	(68)	2~12	

수혈유구는 대체로 소규모의 부정형 혹은 원형계에 해당한다. 현재 배치된 상태를 보면 정형성이 없고 무질서하게 축조되어 있다. 다만 원형주거지가 축조된 주변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일정 간격 떨어진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주거시설과 분리되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4) 토광묘

표8) 토광묘 현황

호수	평면형태	형식	장축방향	규 모(cm)			목관유무	특징
				장축	단축	깊이		
1호	장타원형	1	N18°E	149	53	56	?	
2호	말각장방형	1	N72°E	200	69	17	유	충진토
3호	말각장방형	2	N77°E	237	81	73	유	이단굴광, 충진토
4호	말각장방형	2	N-S	146	84	37	유	이단굴광, 충진토, 요갱내 소형토기 부장

금번 발굴조사 결과 토광묘는 4기가 확인되었다. 먼저 토광묘의 평면형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말각장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장축방향은 1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서장축에 해당한다. 장축규모는 200~237cm와 146~149cm로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2호와 3호는 성인묘에 해당하고 1호와 4호는 소아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단축은 53~84cm내외로 축조되어 있다. 묘광은 3호와 4호가 이단굴광을 통해 목관을 안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³⁾.

묘광 내부는 1호를 제외하고 대체로 여러층이 반복적으로 퇴적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부에 봉토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⁶⁴⁾. 묘광내 충진토 역시 1호외에는 모두 확인되며 특히 4호 토광묘에서는 하단부 좌측에 치우쳐 요갱을 설치하였다. 요갱 내부에서는 심발형의 소형토기가 1점 매납되었다. 삼화 가 I 지역에서 확인된 토광묘에서도 대체로 소형토기가 매납되는 점을 보면 동일한 양상으로 이해된다⁶⁵⁾.

토광묘는 금번 조사구역에서 4기의 토광묘가 모두 II구역 10지점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맞은편인 I 구역 8지점에서도 합구식 옹관 1기가 축조된 점을 감안한다면 삼양동취락의 송국리단계 묘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5) 옹관묘

표9) 옹관묘 현황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묘광 규모(cm)			옹관 규모(cm)		특징
			장축	단축	깊이	길이	폭	
1호	타원형	N70°E	115	76	26	98	44	위석식 적석보강

옹관묘는 타원형상의 수혈을 굴착한 후 그 내부에 외반구연호 2개를 횡치한 합구식 옹관에 해당한다. 장축방향은 동서장축으로 축조되어 있는데 2·3호 토광묘의 장축과 비슷하게 조영되어 있다. 규모를 살펴보면 장축 115cm, 단축 76cm로 토광묘의 묘광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편이다. 합구식 옹관으로 사용된 토기는 대형의 삼양동식토기에 해당하며 합구된 옹관의 길이는 98cm 정도이다.

63) 일단과 이단굴광의 묘광을 축조한 경우를 각각 1형식과 2형식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단굴광 처리하여 목관을 안치했던 2형식 토광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하귀리유적에서 확인된 토광묘는 양 장단벽에 구가 설치된 점으로 미루어 목관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하고 있어 참고된다(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濟州 下貴1里 遺蹟-II 區域』, 322쪽).

64) 하귀리유적 보고자는 묘광내 적석을 상부의 봉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주목된다(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앞의 책, 322쪽).

65) 국립제주박물관, 2010, 『제주 삼화지구 가 I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합구식 옹관의 잔존상태를 통해 볼 때 서쪽옹관을 동쪽옹관의 내부로 합구시켜 놓은 상태이다. 특히 동쪽의 옹관은 외반된 구연부가 결실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서쪽 옹관을 합구시킬 수 있도록 외반부분을 탈락시켜 축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시기 옹관은 실생활에서 사용했던 대형토기를 재활용하여 대용 옹관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가 있다.

반면 옹관의 축조방법을 살펴보면 수혈을 굴착한 후 그 내부에 옹관을 합구시킨 후 크고 작은 자연석을 위석식으로 보강하여 옹관을 정치하기 위한 적석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옹관 정치방법은 삼화지구에서 조사된 10여기의 옹관묘 축조 방법과 동일한 수법으로 동시기 삼양동 일대 송국리형 취락의 주 매장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6) 기타유구

전술한 유구외에 금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를 살펴보면 집석유구, 소토유구, 구상유구 등이 확인된다. 먼저 집석유구는 1구역 5지점 2호주거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잇대어 소토유구 2기가 배치되어 있다. 유구 내부에 크고 작은 자연석과 함께 각종 토기편, 석기 등이 매몰되어 있고 수혈의 깊이가 얇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폐기를 목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수혈유구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남쪽에 소토유구 2기가 잇대어 축조된 점을 감안하면 야외노지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소토유구는 장축이 4.3m인 비교적 규모가 큰 것과 함께 0.7m 정도인 작은 유구가 연결하여 축조되어 있다. 소토유구 내부에는 적석과 함께 소결된 소토층이 퇴적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기 야외 노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출토유물

표10) 출토유물 현황

순번	유구	출토유물		
		토기	석기	기타
1	1호주거지			소옥
2	2호주거지	원형점토대토기, 삼양동식토기, 환상파수	삼각형편평석촉, 지석, 고석, 연석	토제방추차, 원판형토제품, 유리옥
3	4호주거지	직립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마연토기, 삼양동식토기, 환상파수	타제석기, 고석	토제방추차
4	1호수혈유구	삼양동식토기, 환상파수		
5	4호수혈유구		유구석부	
6	5호수혈유구	삼양동식토기		
7	11호수혈유구			원판형토제품
8	집석유구	직립구연토기, 삼양동식토기	삼각형편평석촉, 고석, 연석	
9	2호소토유구			토제방추차
10	3호구상유구		요석	
11	옹관묘	삼양동식토기		
12	3호토광묘	삼양동식토기		토제방추차
13	4호토광묘	삼양동식토기		
14	지표수습		삼각형능형석촉, 유구석부, 연석, 요석	

66) 湖南文化財研究院, 2008a, 『濟州 三和 나地域 遺蹟-I · II 區域』.

국립제주박물관, 2010, 앞의 책.

湖南文化財研究院, 2008b, 『濟州 道連洞甕棺墓』.

금번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크게 토기류와 석기류, 기타유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토기류는 원형점토대토기와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하지만 삼양동식토기가 주체를 이루며 환상파수가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도련동유적은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송국리게취락의 외곽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립구연토기와 함께 원형점토대토기편이 동반되며 특히 삼양동식토기의 경우 외반정도가 다소 약하고 최대경이 동부에 형성되어 있으며 저부 축약흔이 비교적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대상지는 삼양동유적 송국리게 취락의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삼각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 외도동식토기의 특징이 전혀 간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송국리게 취락의 2단계 전반 이후로 크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⁷⁾.

한편 석기류는 석촉과 지석, 고석, 연석, 요석 등이 출토되었다. 석촉류는 기저부가 결실된 상태여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삼각형편평촉에 해당하는 점은 역시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 3호 수혈유구에서 삼각형 능형촉이 1점 출토되었는데 선행하는 단계의 유구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식량처리구인 고석과 연석 등을 제외하면 별채구나 가공구 등은 매우 빈약한 편이다.

2. 조선시대

조선시대 유구는 수혈유구 4기, 구상유구 3기가 확인되었다. 먼저 수혈유구의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1)과 같다.

표11) 수혈유구 현황

위치	평면 형태	장축 방향	규모(cm)			출토유물
			장축	단축	깊이	
1	장방형	N17°E	135	71	17	
2	장타원형	N34°E	157	49	40	
3	부정형	N83°E	140	130	22	백자 대접, 접시, 회청색도기, 삼각형 능형촉
4	부정형	N27°W	139	72	3	

수혈유구는 평면형태가 대체로 장타원형에 가까운 장방형과 부정형에 해당한다. 규모는 135~157cm 내외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3호 수혈유구에서 조선시대 백자 대접과 접시편 등이 출토되었다.

한편 수혈유구외에도 구상유구 3기가 조사되었다. 유구는 3기 모두 조사범위 밖으로 연장되고 있어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없다. 다만 1호 구상유구에서 조선시대 백자 접시편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시기 유구로 추정된다.

67)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앞의 책, 105~110쪽.

3. 삼양동취락의 변천

1) 역삼동단계 취락의 검토

역삼동계→송국리계 취락으로의 전환과정은 삼양동유적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송국리형주거지를 기본으로 형성된 삼양동취락이 조성되기 이전에 역삼동 단계에 해당하는 (장)방형계의 취락이 최근 확인되었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에서 방형 혹은 장방형계→원형계로의 전환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역삼동계와 송국리계 취락이 서로 영역을 달리하여 확인되는 점은 곧 양 취락이 시기적인 선후관계와 함께 계승적인 관계에 있지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후행하는 송국리단계의 분묘(지석묘, 옹관묘, 토광묘)가 역삼동계 취락 내부에 축조되어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삼양동 1249-7번지와 삼양동유적 I 지구 등에서 확인된 장방형계 수혈유구에서는 역삼동단계의 토기는 출토되지 않는다. 즉 송국리단계 초기에 해당하는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와 삼양동식토기 등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송국리형 취락단계의 유구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주거지의 형태와 가구배치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장방형계의 역삼동계주거지는 단순문양이 무문양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이미 소멸하였음을 시사한다.

첨언하면 1249-7번지의 경우 장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주거지와 상호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출토유물의 경우 대부분 송국리단계의 유물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시기 유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기 전혀 다른 형식의 주거지가 상호 중복되면서 축조되는 경우는 삼양동취락에서 확인된 예가 없기 때문에 주거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을 갖춘 유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삼화지구에서 확인된 장방형계의 주거지는 벽체와 중앙부를 따라 다수의 주혈이 배치된 점을 고려할 때 1249-7번지에서 확인되는 장방형계주거지와는 전혀 다른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장방형계 주거지는 원형계의 송국리형주거지와 달리 중앙부와 벽체를 따라 주혈이 배치되어야만 상부의 가구배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즉 1249-7번지에서 확인된 장방형계의 수혈유구는 주거기능 보다는 취락내 공동시설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1249-7번지에서 확인된 원형주거지와 장방형계 수혈의 AM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B.C. 700~200년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원형과 장방형계의 중복관계가 확인되는 3호 원형주거지와 1호 장방형계수혈의 AMS 결과를 보면 $2420 \pm 50\text{BP}$ 와 $2450 \pm 50\text{BP}$ 가 도출된다. 즉 양 유구가 전부 소위 2400BP 연대문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형주거지와 장방형계 유구는 동일한 연대치가 구해진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⁶⁸⁾. 원형주거지와 장방형계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모두 삼양동식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방형계 수혈에서는 축약이 심한 굽상저부가 출토된다. 반면 원형주거지에서는 오히려 늦은 시기에 해당하는 저부편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3호 원형주거지는 타원형구덩이의 형태가 필자 분류 A형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송국리형취락의 이른 시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역삼동계주거지의 분포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의 표12)와 같다.

68) C14연대는 2545~2400BP에 해당하는 경우 보정연대에서는 동일한 연대치가 구해진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安在喆, 2010a, 『韓半島 青銅器時代の 時期區分』, 『考古學誌』第16輯, 9~10쪽). 또한 동일 유구에서 다수의 측정치가 얻어질 경우에는 가장 늦은 연대치를 선택하는 것이 논리 타당한 방식이라고 한다(安在喆, 2011, 『屬性配列法에 따른 東南海岸圈 無文土器 文様の 編年』, 『韓國上古史學報』第73號, 95쪽).

표12)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현황⁶⁹⁾ (괄호안은 잔존규모)

순번	호수	평면형태	규모(㎝)		장단비율	면적(㎡)	장축방향	출토유물(토기)
			장축	단축				
1	A-1호	장방형	300	222	1.35:1	6.6	N47°W	각목(직립)
2	A-2호	장방형	310	224	1.38:1	6.8	N40°E	무문(외반)
3	A-3호	말각방형	(232)	230		5.3	N46°E	
4	A-4호	방형	212	204	1.04:1	4.2	N30°W	
5	A-5호	방형	(332)	260	1.28:1	8.6	N64°W	각목(직립)
6	A-6호	장방형	330	250	1.32:1	8.3	N03°W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직립)
7	A-7호	장방형	410	236	1.74:1	9.8	N40°E	각목(직립), 무문(직립)
8	A-8호	장방형	284	174	1.63:1	4.8	N24°W	공렬(직립), 무문(직립)
9	A-9호	방형	240	240	1.0:1	5.8	N74°W	공렬(직립), 무문(직립)
10	A-10호	방형	314	260	1.21:1	8.1	N63°E	공렬+각목(직립),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직립, 외반)
11	A-11호	장방형	370	214	1.73:1	7.8	N48°W	공렬+각목(직립), 각목(직립, 외반), 무문(직립)
12	A-12호	장방형	234	180	1.30:1	4.1	N50°E	공렬(직립), 각목(직립)
13	A-13호	방형	270	227	1.19:1	5.9	N06°E	
14	A-14호	장방형	310	216	1.44:1	6.8	N85°W	무문(외반)
15	A-15호	장방형	512	225	2.28:1	11.7	N80°W	
16	A-16호	방형	230	195	1.18:1	3.7	N-S	공렬(직립), 각목(직립)
17	A-17호	방형	270	234	1.15:1	6.2	N26°W	공렬+각목(직립),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외반), 삼각만입촉
18	A-18호	방형	250	226	1.11:1	5.8	N23°W	무문(외반)
19	A-19호	방형	250	226	1.11:1	5.8	N21°W	공렬+각목(직립),
20	A-20호	방형	319	262	1.22:1	8.3	N31°W	각목(직립),
21	A-21호	장방형	302	189	1.60:1	5.7	N18°E	
22	A-22호	세장방형	574	216	2.66:1	12.5	N88°W	각목(직립), 무문(직립)
23	A-23호	원형	370	320		11.8	N40°W	
24	A-24호	방형(추정)	(187)	227		4.4	N25°E	
25	A-25호	장방형	384	210	1.83:1	8.0	N76°W	
26	A-26호	장방형	300	195	1.54:1	6.0	N76°E	
27	A-27호	장방형	430	194	2.22:1	8.2	N12°W	공렬(직립), 각목(직립)
28	A-28호	장방형	310	175	1.77:1	5.0	N02°W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직립)
29	A-29호	방형	295	290	1.02:1	8.7	N80°E	무문(직립)
30	A-30호	장방형	460	270	1.70:1	12.4	N40°W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직립, 외반)
31	A-31호	장방형	441	294	1.50:1	12.8	N58°W	각목(직립), 무문(외반)
32	A-32호	방형	250	240	1.04:1	6.0	E-W	공렬(직립), 각목(외반)
33	A-33호	장방형	290	204	1.42:1	5.8	N04°W	각목(직립, 외반), 무문(직립, 외반), 적색마연호
34	A-34호	장방형	344	214	1.61:1	7.1	N84°E	공렬+각목(직립), 각목(직립, 외반), 무문(외반)
35	A-35호	방형	280	250	1.12:1	7.0	N40°W	공렬(직립), 각목(직립, 외반), 무문(외반)
36	A-36호	원형	211	205	1.03:1	4.4		공렬+각목(직립)
37	A-37호	장방형	310	160	1.94:1	5.0	N72°W	
38	A-38호	장방형	325	210	1.55:1	6.9	N28°W	
39	A-39호	장방형	395	250	1.58:1	10.0	N62°E	
40	A-40호	장방형	240	174	1.38:1	4.1	N40°E	
41	A-41호	장방형	364	210	1.73:1	7.6	N-S	
42	A-42호	방형	210	185	1.14:1	4.0	E-W	공렬+각목(직립),
43	A-43호	장방형	278	196	1.42:1	5.6	N60°E	무문(직립, 외반)
44	A-44호	방형(추정)	(240)	(120)		2.9	N-S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외반)

69) 보고서에 기록된 유구내용과 고찰 부분의 수치가 일부 다르게 기술된 경우 유구에 서술된 수치를 활용하였다.

순번	호수	평면형태	규모(㎝)		장단비율	면적(㎡)	장축방향	출토유물(토기)
			장축	단축				
45	A-45호	방형	283	230	1.23:1	6.4	N20°E	무문(직립)
46	A-46호	장방형	296	187	1.58:1	5.7	N26°E	
47	A-47호	방형	277	276	1.0:1	7.8	N70°E	각목(외반)
48	A-48호	방형(추정)	(245)	240		6.0	N44°E	공렬+각목(직립), 각목(직립), 단사선
49	A-49호	장방형	285	220	1.30:1	6.4	N68°W	공렬(직립), 무문(직립)
50	A-50호	장방형	215	150	1.43:1	3.3	N-S	
51	A-51호	방형	230	215	1.07:1	5.1	N04°W	
52	B-1호	장방형	266	205	1.30:1	5.2	N68°W	각목(직립), 무문(직립)
53	B-2호	장방형	322	230	1.40:1	7.4	N39°E	
54	B-3호	말각방형	272	272	1.0:1	7.3	N30°E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직립)
55	B-4호	말각방형	298	286	1.04:1	8.1	N47°E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직립)
56	B-5호	방형	240	204	1.18:1	4.8	N55°W	각목(직립), 무문(외반)
57	C-1호	방형	360	290	1.24:1	10.4	N12°W	각목(직립), 무문(외반)
58	C-2호	방형	242	219	1.11:1	5.0	N30°W	공렬+각목(직립), 공렬(직립), 각목(직립, 외반)
59	C-3호	장방형	192	142	1.35:1	2.7	N46°E	
60	C-4호	장방형	300	170	1.76:1	5.1	N58°E	
61	C-5호	장방형	330	222	1.49:1	7.3	N47°E	무문(직립)
62	C-6호	장방형	478	224	2.13:1	10.3	N29°E	
63	C-7호	방형	364	332	1.10:1	11.9	N56°W	공렬(직립), 각목(직립)
64	C-8호	장방형	336	200	1.68:1	6.6	N25°W	
65	C-9호	방형	280	260	1.08:1	7.3	N41°W	각목(직립, 외반)
66	C-10호	방형	277	270	1.03:1	7.3	N30°E	공렬+각목(직립), 적색마연호
67	C-11호	세장방형	428	182	2.35:1	7.6	N61°W	
68	C-12호	장방형	(146)	182		2.5	N72°E	
69	C-13호	장방형	400	256	1.56:1	10.0	N18°W	적색마연호
70	C-14호	방형	252	206	1.22:1	5.0	N32°W	
71	C-15호	방형	208	188	1.11:1	3.6	N70°W	각목(직립)
72	C-16호	방형	284	273	1.04:1	7.6	N2°W	공렬(직립), 각목(직립), 무문(직립)
73	C-17호	방형	276	(152)		4.1	N13°E	각목(직립)
74	C-18호	세장방형	618	267	2.31:1	15.9	N-S	각목(직립), 무문(직립, 외반)
75	C-19호	장방형	226	168	1.35:1	3.5	N60°E	공렬(외반), 각목(직립)
76	C-20호	장방형	280	210	1.33:1	5.9	N63°E	각목(직립)
77	D-2호	장방형	298	222	1.34:1	6.4	E-W	공렬+각목(직립, 외반), 공렬(직립), 각목(직립, 외반), 무문(직립, 외반)
78	D-4호	장방형	332	160	2.08:1	5.3	N34°E	
79	D-5호	방형	302	(166)		5.1	N14°W	공렬+각목(직립), 각목(직립)

- 범례 -

A: 가(Ⅰ)지역(국립제주박물관), B: 나(Ⅲ-1)지역(호남문화재연구원), C: 나(Ⅲ-3)지역(호남문화재연구원),
D: 나(Ⅲ-4)지역(호남문화재연구원)

삼양동유적의 역삼동단계 주거지는 대체로 일정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축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예를들면 삼화지구 나지역(Ⅲ-3)의 경우 일정한 공지를 두고 양단에 주거구역이 조성되어 있다. 주거구역에는 장방형계 주거지 3~9동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반면 후행하는 단계의 송국리형주거지는 1~2동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역삼동계 취락과 송국리형취락이 분포범위가 전혀 다르게 조

성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장방형계 주거지는 대략 2~3동 정도가 군집을 형성하면서 배치된 점으로 볼 때 혈연적 관계를 갖는 주거배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반면 가 I 지역의 유구배치도를 보면 수혈유구는 주거지가 밀집된 구역에서 다소 벗어난 남서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형 수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수혈유구는 역삼동취락 단계에 이미 공간구획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156호 수혈의 경우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폐기장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다량의 적색마연호가 출토된 점을 감안한다면 단순한 폐기공간이 아닌 의례적 행위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⁷⁰⁾.

한편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조성된 곳에는 무수한 주혈이 뺏뺏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주거 및 생업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일부 주거군 주변으로는 주혈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넓은 공지가 확인되는데 아마도 단위 주거군내의 약정된 공동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지역(III-1)의 경우 주거지와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복합문양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단순문양이나 무문양토기가 주로 확인된다. 특히 단순문양인 경우에도 각목시문은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렬문 역시 형식적인 토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토기형태가 단순문양의 말기적 양상이 아닌가 한다. 또한 주거지의 경우에도 대체로 5~8m²내외에 해당하는 소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역삼동계 취락의 말기적 양상은 소형 주거지와 형식적인 문양이 시문된 단순문양토기로 귀결된다.

상기한 표12)에 의하면 현재까지 삼양동유적에서 역삼동단계 주거지는 모두 79동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장단축의 비율을 통해 평면형태를 분류하고 있다. 대체로 1.2~1.3:1을 기준으로 방형과 장방형으로 나누고 2.3~3.0:1 이상을 세장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⁷¹⁾. 삼양동유적의 역삼동계 주거지에 대한 평면형태를 구분하면 다음의 표13)과 같다.

표13)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평면형태

구분 형태	동(棟)	%
방형(1.3:1 미만)	28	40.0
장방형(1.3~2.3:1 미만)	39	55.7
세장방형(2.3:1 이상)	3	4.3
계	70	100

장단비율 환산이 가능한 70동을 분석하여 나타낸 표13)과 삽도 14)~15)에 의하면 방형 28동(40.0%), 장방형 39동(55.7%), 세장방형 3동(4.3%)에 해당한다. 즉 장방형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형도 40%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삼양동 역삼동계주거지는 대체로 장방형과 방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

은 현상은 한반도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역삼동단계 말기의 주거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난다⁷²⁾. 즉 역삼동유형 주거지의 규모는 가락동유형과 달리 대형주거지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 소형 주거지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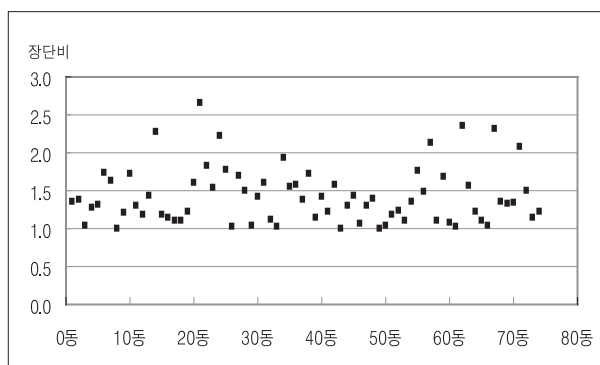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 역삼동계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한반도의 동시기 주거형태와 매우 유사한 면

70) 국립제주박물관, 2010, 앞의 책, 3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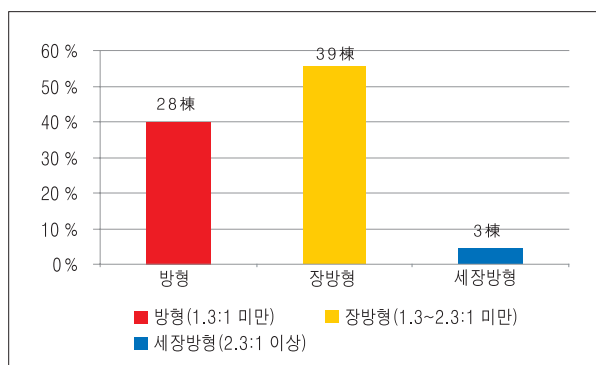
71) 고민정은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에 대한 분류에서 방형은 1.25:1 미만, 장방형은 1.25:1~2.5:1 미만, 세장방형은 2.5:1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승옥 역시 방형은 1.3:1 미만, 장방형은 1.3~2.3:1 미만, 세장방형은 2.3:1 이상으로 비슷한 기준을 삼고 있다(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또한 면적을 기준으로 소형은 20m²미만, 중형은 20~30m²미만, 대형은 30m²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황은순에 따르면 방형은 1.5:1 미만, 장방형은 1.5:1~3.0:1 미만, 세장방형은 3.0:1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분류기준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黃銀順(2001, 「韓半島 中部地域 無文土器文化 編年 研究-驛三洞・欣岩里類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본고에서는 김승옥의 분류안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겠다.

72) 김승옥, 2006, 앞의 논문, 10쪽.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의 역삼동 단계 주거문화 역시 남한지역과 궤를 같이하며 상호 비교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삽도 14. 삼양동유적 역삼동계주거지 장단축비 분포도



삽도 15.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평면형태 분포도

한편 가 I 지역의 주거지 상부구조와 관련된 기둥배치를 살펴보면 크게 무주식, 중심주식(34·37호), 3주식(11·20·30·39호), 4주식(1·8호), 6주식(2·4·6·19호), 다주식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중심주식⁷³⁾과 3주식은 동일한 패턴의 주거방식으로 이해⁷⁴⁾되는데 중심주식은 면적이 5.0~7.1㎡에 해당하고 반면 3주식은 7.8~12.4㎡에 위치한다. 따라서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 중심기둥을 배치하고 장축선상의 양단에 각각 기둥을 설치하는 것은 주거지의 면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주거지 내부 중앙과 측면에 각각 주혈이 배치된 형태도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의 주거구조는 경기도 화성의 반송리유적 5호 주거지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방형이나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도 삼양동과 비슷하다⁷⁵⁾.

반면 무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는 역시 대개 구심구조를 이루는 주거형태로 추정되지만 내부에는 뚜렷한 기둥배치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벽체의 기둥배치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세분된다. 이러한 주거지는 면적이 대체로 4.2~8.3㎡의 소형주거지에 해당한다.

전술한 주거형태를 제외한 다수의 주거지는 벽체에 무질서하게 기둥이 배치된 형태로 축조되었다. 또한 삼화지구에서 확인된 주거지에서는 노지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시기 남부지역 주거지의 경우도 노지가 설치되지 않는 주거지가 급증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주거지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⁷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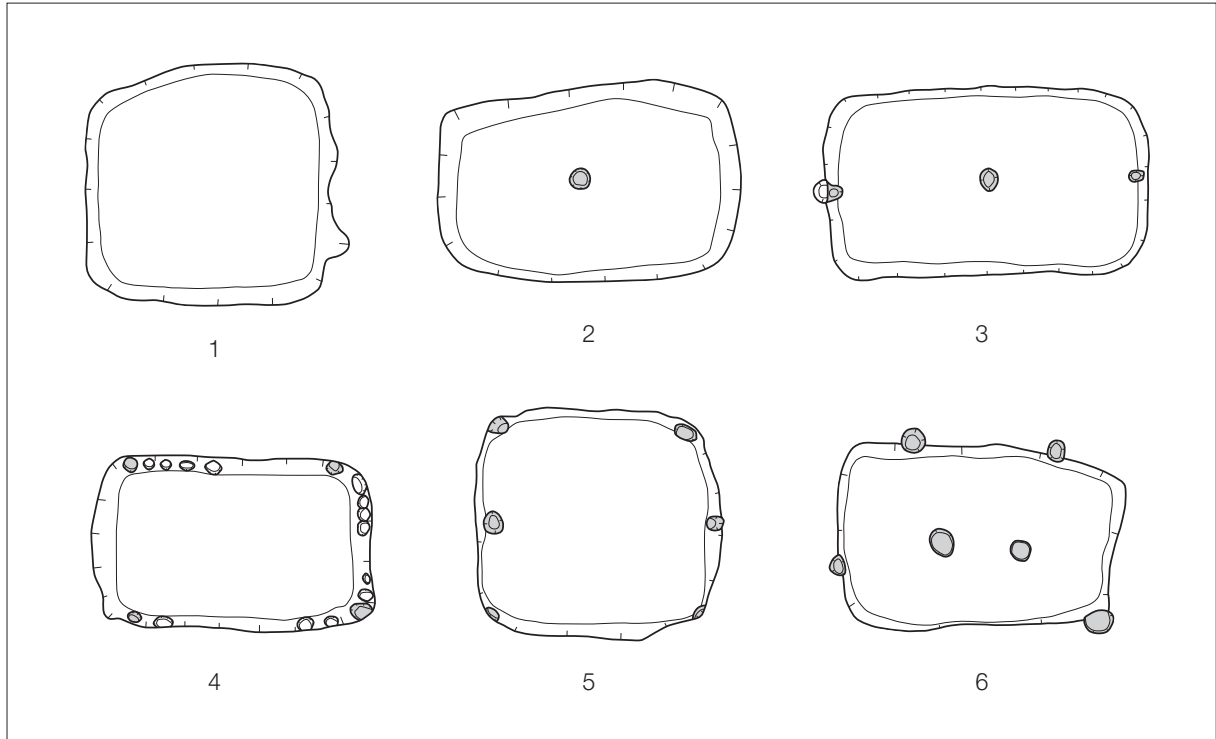
73) 중심주식은 주거지 내부 정중앙부에 1기의 중심 주혈을 배치한 형태에 해당한다. 반면 내부와 벽체에는 다른 주혈이 배치되지 않는 특이한 주거구조이다. 따라서 중앙부에 기둥을 올리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외곽의 구지표면상에 서까래를 얹었던 구조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가 I 지역 1호주거지의 예를 보면 내부 중앙부에 1기의 주혈이 배치되고 네 벽체에 각각 주혈을 조성한 후 다시 주변으로 다양한 주혈이 배치되는 형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주거지와 유사한 형태의 가구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74) 가 I 지역 1호주거지는 중심주식과 유사한 형태의 가구배치가 이루어졌다.

75) 이형원은 반송리유적을 송국리유적에 선행하는 형식으로 추정하고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반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유구석부, 역제형석도,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을 편년지표로 삼고 있다. 토기류는 공렬문과 구선각목이 일부 잔존하며 무문양토기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삼양동유적 역시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색마연토기의 출토비율이 높은 점도 동일하다. 다만 무문(80%), 공렬(14%), 각목(6%)토기 중에서 무문의 비율이 압도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삼양동유적 보다 다소 후행하는 단계로 여겨지며 양 지역간 상호 문화적 교류기간을 고려한다면 동일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權五榮외, 2007, 『華城 盤松里 青銅器時代 聚落』, 171~181쪽.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142~145쪽, 서경문화사.



삽도 16.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평면형태(1:무주식, 2: 중심주식, 3: 3주식, 4:4주식, 5:6주식, 6:다주식)

고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1인당 주거면적을 3~5㎡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한다면 4인 가족을 단위로 하면 대략 12~20㎡로 환산된다. 따라서 12㎡ 미만의 수혈 혹은 주거지인 경우 세대단위를 구성하지 못한 거주시설에 해당한다⁷⁷⁾. 즉 삼양동취락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경우 12㎡ 이상을 하나의 세대단위로 추정한다면 그 이하인 주거지는 개별적 주거단위(1~2인 세대) 혹은 별도의 부속시설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분류한다면 삼양동유적에 조성된 역삼동계 취락 중 세대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거지는 결국 4동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12㎡ 미만에 해당하며 특히 8㎡ 이하인 주거지의 점유율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역삼동계 취락 단계에는 소규모 취락이 조성되었거나 세대단위의 주거환경이 일반적이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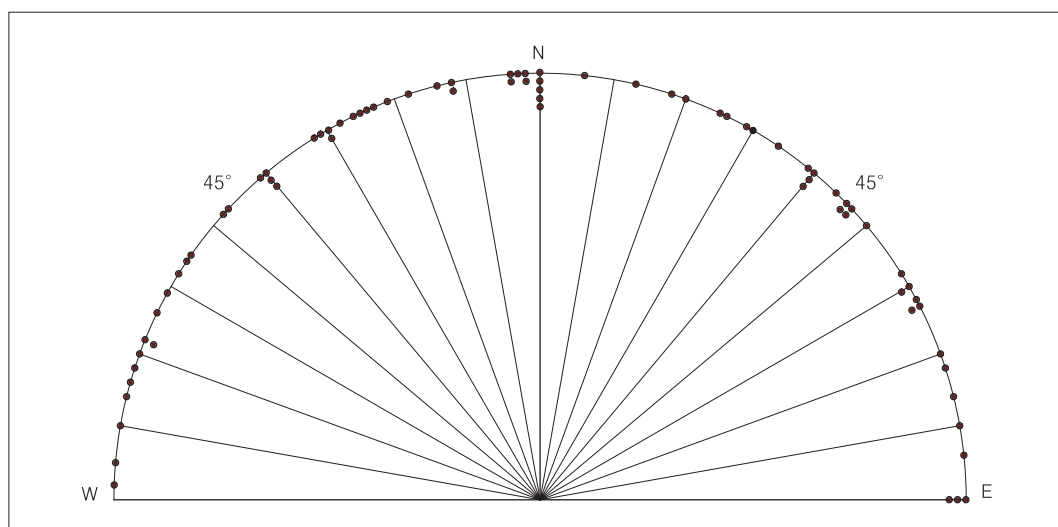
역삼동계 취락에서 확인된 주거지는 대체로 방형과 장방형계가 주류이다. 즉 방형의 구조를 살펴보면 무주식이 다수이며 3주식과 4주식, 6주식이 일부 확인된다. 특히 방형계주거지의 기둥구조는 벽체에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장방형계주거지는 4주식이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6주식과 다주식도 확인된다. 하지만 방형과 달리 장방형은 주거지 내부에도 기둥시설을 설치하여 벽체-내부 중앙-벽체로 연결되는 장축선상의 중앙에 중심 기둥을 배치하는 형식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

삼화지구 가 I 지역 11호주거지는 장축 중앙을 따라 양쪽 벽체와 내부 중앙부에 기둥을 축조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내부 중앙부의 중심기둥을 기본으로 양단에 기둥을 배치한 후 좌우로는 구지표면 상부에 다수의 기둥을 엮는 형태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부 중앙부의 기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표면에 배치되는 형태이며 후행하는 송국리형주거지의 가구배치와 유사하다.

76) 김승욱, 2006, 앞의 논문, 21쪽.

77) 세대단위의 주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형태의 수혈유구를 세대구성원이 조성되지 않는 단위의 주거형태이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의 유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주거지 내부 중앙부에 구심구조의 중심기둥 배치를 한 주거지는 삼양동유적에서 모두 12동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화 가 I 지역 11·20·30·39호주거지는 주거지 장축선상에 기둥이 설치된 형식으로 내부 중앙부와 양단 벽체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또한 34·37호는 내부 중앙부에만 기둥이 배치된 구심구조의 주거지에 해당한다⁷⁸⁾. 이외에도 장방형주거지의 장축선상을 따라 내부와 벽체에 다수의 기둥이 조성된 예가 많다. 따라서 삼양동 일대에 조성된 동시기 주거지는 대체로 주거지 내부의 중앙부에 중심기둥을 배치하고 상부 가구배치를 하는 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장방형주거지는 단벽 양단에 기둥이 각각 배치된 4주식과 6주식 등이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6주식과 4주식의 경우 모두 주거지의 단벽에 정연하게 배치되었고 반대로 장벽의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지의 중심기둥은 결국 단벽을 중심으로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삽도 17. 삼양동유적 역삼동계주거지 장축방향 분포도(분석대상: 77동)

역삼동 단계의 주거지는 삽도 17)과 같이 남북장축에 가까운 형태가 다소 우세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없이 다양한 장축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제한행위가 없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주거구역으로 정해진 일정 공간내에서 단위주거간 활용되었던 공지를 제외하고 주거지를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⁷⁹⁾. 즉 주거공간이 정해져 있고 다양한 수혈유구 역시 일정한 공간을 구분해서 집중적으로 배치된 점을 보면 취락 전체 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취락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혈유구가 일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점은 취락 전체의 계획된 공간구성을 갖고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반면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가 I 지역 156호 수혈유구의 경우 주거구역에서 다소 떨어진 남서쪽 외곽에 축조된 점을 보면 동시기 의례행위는 취락내 주거구역과 분리된 지역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락구조는 화순리유적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취락내 전체 구성원의 의례행위와 관련된 유구는 주거지가 밀집된 주거구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배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⁸⁰⁾.

78) 이형원, 2010, 앞의 책, 142~145쪽.

79) 역삼동단계에 후행하는 삼양동과 화순리유적 등 송국리단계의 취락에서는 주거지의 장축방향이 일정한 패턴에 따라 축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해안선과 평행하는 동서장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역삼동 단계의 주거지는 남북장축을 다소 선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역삼동취락과 송국리형취락간의 주거지 축조패턴의 변화는 취락내 계층구조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제주문화예술훈단, 2009, 『濟州 和順里遺蹟』, 976~980쪽).

80) 제주문화예술훈단, 2009, 앞의 책, 1024~1025쪽.

주거지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대체로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구체적인 노지 역시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가 I 지역 1호주거지의 예와 같이 주거지 상면 혹은 그 상부에 소토층이 퇴적된 경우가 있다. 즉 이러한 소토 및 소결흔적이 아마도 주거지 내부의 임시 노지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또한 13호와 39호주거지 처럼 상면에 불다짐처리하여 단단하게 소성화된 부분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처럼 주거지 상면에 불다짐소성된 것은 주거지의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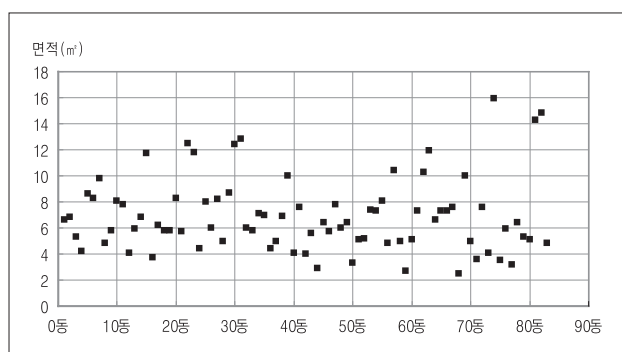
한편 김승옥에 따르면 미사리유형→가락동·역삼동유형→휴암리유형으로 갈수록 주거지의 규모는 대형→대형과 중형→소형으로 전환되고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장방형과 세장방형→방형으로 변화된다. 특히 역삼동유형에서는 방형과 장방형에 면적이 소형인 주거지가 58.7%에 해당한다. 삼화지구에서 확인된 79동의 주거지는 면적이 모두 소형에 속하고 장방형과 방형이 95.7%의 점유율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동시기 주체적인 주거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평면형태 방형과 면적이 소형인 주거지는 역삼동단계에 출현하여 휴암리단계에도 성행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시기에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¹⁾. 따라서 삼양동유적에서도 역삼동계 말기의 주거 양상이 간취되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변화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거형태와 출토 토기의 동반관계를 살펴보면 역삼동계의 방형+소형단계 주거지로 바뀌면서 복합문이 소멸하고 공렬토기의 빈도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무문양토기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⁸²⁾. 따라서 삼화지구 역삼동계주거지에서 공렬토기(13.9%)의 비중이 낮고 각목토기(42.8%)와 무문양토기(43.2%)가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는 점은 우연이 아닌 한반도 중서부지역과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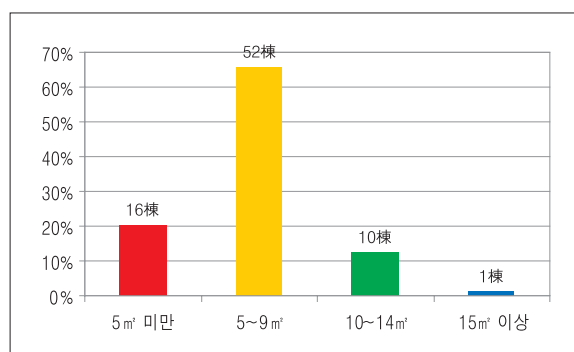
환언하여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역삼동단계 주거지의 면적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4와 같다. 면적환산이 가능한 79동의 주거지에 대한 분석 결과 10㎡ 이상인 주거지는 11동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15㎡ 이상인 경우는 1동만 확인되는 점을 보면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표14)를 참고하면 제주지역에서 역삼동 단계 주거지의 면적은 5~9㎡가 6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역삼동 단계에 해당하는 삼양동취락의 주거규모는 후행하는 단계의 송국리

표14) 삼양동유적 역삼동 단계의 주거지 면적

면적 \ 구분	동(棟)	%
5㎡ 미만	16	20.3
5~9㎡	52	65.8
10~14㎡	10	12.6
15㎡ 이상	1	1.3
계	79	100



삽도 18. 삼양동유적 역삼동계주거지 면적 분포도



삽도 19.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주거지 면적별 분포

81) 김승옥, 2006, 앞의 논문, 12~13쪽.

82) 김승옥, 2006, 앞의 논문, 15~19쪽.

형 취락에 비해 오히려 주거지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⁸³⁾. 따라서 주거지의 면적 차이가 시기 차이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생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지는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역삼동계취락과 송국리계취락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역삼동계와 송국리계 취락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입지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즉 동시기 공존 가능성이나 계승관계를 상정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고고학에서 논의되는 송국리문화의 출현은 자체기원설과 외래기원설로 양분된다. 먼저 자체기원설은 검단리식 또는 휴암리형주거지로 대표되는 선송국리 단계의 설정⁸⁴⁾과 함께 역삼동계 말기 주거형태에서 소위 ‘반송리식주거지’로 변환된 후 다시 휴암리형주거지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논의가 진행중이다⁸⁵⁾. 또 하나는 외부의 유입으로 인해 송국리문화가 확산되고 기존의 역삼동계문화와 접촉하면서 관창리식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⁸⁶⁾.

반면 삼양동유적에서 역삼동계문화와 송국리계문화와의 관계를 추적해 본다면 현재까지 삼양동취락에서는 역삼동계와 송국리계문화가 공존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주지역에서 역삼동계취락이 잔존하는 시점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되었을 개연성은 높다⁸⁷⁾. 하지만 고산리유적의 예와 같이 최말기 구순각목토기와 함께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시점은 각목토기의 소멸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삼양동유적 역삼동계취락의 역연대를 참고한다면 기원전 7~5세기대의 어느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양동유적에서 역삼동계 주거지는 송국리계 주거지와 중복축조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송국리계 무덤군이 역삼동계 취락내에 집중적으로 축조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이는 양 취락간의 계승관계가 없음을 반증한다.

한편 혼암리계토기 유입기의 문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모리유적의 경우에도 초기 혼암리식토기가 재지계의 상모리식 토기문화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상모리유적에서 혼암리계, 역삼동계, 관창리계, 상모리계 등 다양한 토기문화가 확인되고 있다. 즉 혼암리계토기가 유입된 후 제작기술을 차용하여 재지에서 제작되기 시작한다. 특히 상모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외래계 태토의 토기를 살펴보면 혼암리계(15점), 역삼동계(3점), 관창리계(5점)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토기의 형식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토기의 다양성은 곧 동시기 제주지역이 한반도와 항구적인 교류가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반면 용담동 월성로유적의 예를 통해 역삼동계 말기단계와 송국리계 초기 단계의 전환기에는 결국 직립구연계 토기문화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모리유적에서도 이와같은 토기문화가 확인되고 있는데 즉 문양(공렬, 각목)이 있는 토기와 무문양의 토기문화로 양분되는 점은 결국 문양→무문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⁸⁸⁾. 하지만 최후에는 각목시문토기가 잔존하다 무문양으로 변화되고 있다. 즉 공렬문부터 소멸하기 시작하며 각목문이 마지막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3) 金慶柱, 2010, 앞의 논문, 78쪽.

84) 安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5) 羅建柱, 2006, 「前・中期 無文土器 文化의 變遷過程에 대한 考察-牙山灣・錦江流域의 資料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형원, 2009,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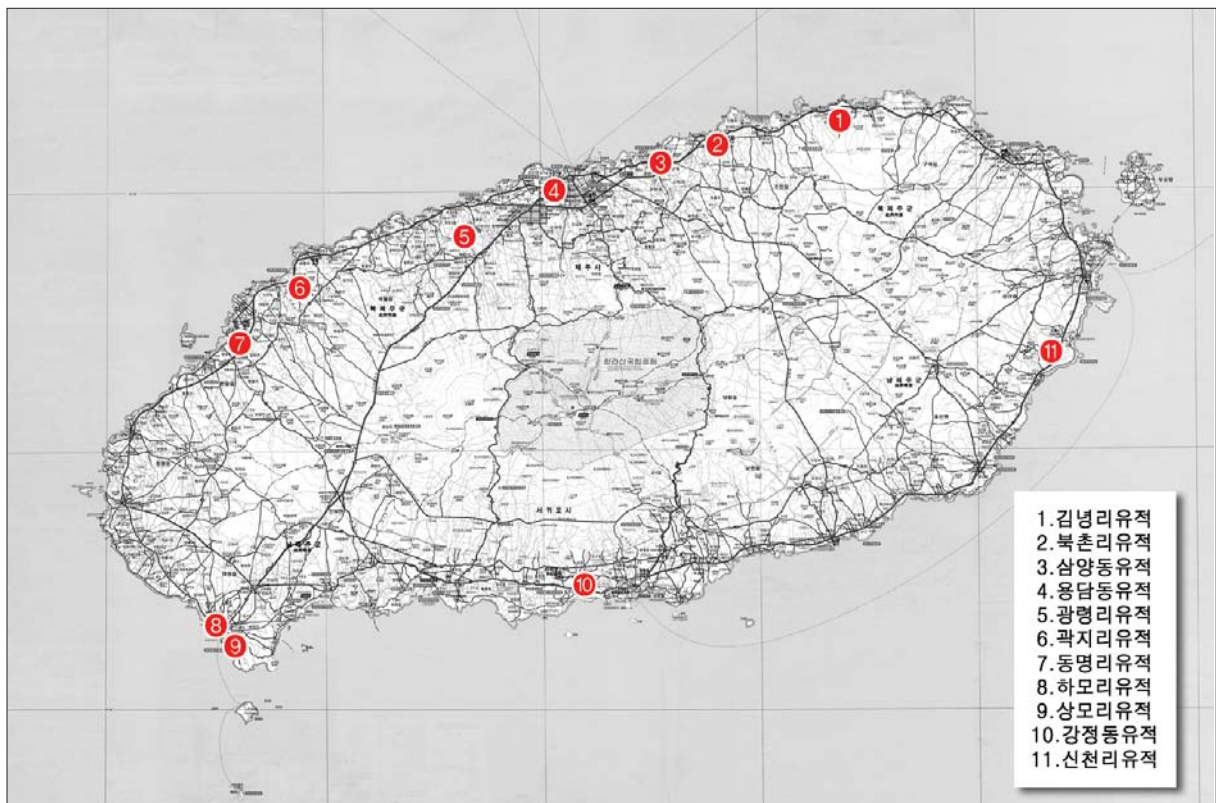
송만영, 2010, 「중부지방 청동기시대 중기 편년의 재검토-취락편년을 중심으로-」, 『中央考古研究』第7號.

86) 李弘鍾, 2005, 「松菊里文化의 文化接觸과 文化變動」, 『韓國上古史學報』第48號.

87)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신창~대정간 도로건설공사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혼암리계토기 중 일부가 외래계태토로 제작된 토기가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는 적어도 한반도내에서 유행하는 단계에 확산되며 유입된 토기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 중서부지역 및 남강유역의 연대를 참고하면 그 유입시기는 결국 기원전 10세기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지화된 상모리식토기 단계 역시 한반도에서 이러한 문화가 소멸되기 이전에 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⁸⁹⁾.

반면 문양이 단순화 또는 무문화되는 단계인 삼화지구는 기원전 7~5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이 단계에는 송국리문화의 전통이 일부 제주지역으로 유입되는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삼양동유적에서 역삼동계와 송국리계의 중북 점유현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도 아마 이러한 시공간적 괴리에 의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삽도 20.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 유적 분포현황

한편 하모리유적의 경우 토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없이 1~2건의 무문토기 편년자료를 맹신한 결과 역삼동계문화의 하한이 매우 늦은 시기까지 내려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⁹⁰⁾. 이미 필자가 전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송국리문화의 상한연대가 대략 기원전 7~6세기대까지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삼화지구에 대한

88) 중부지방의 경우도 토기문양의 변천양상을 살펴보면 단사선문의 소멸→공열의 감소→무문양의 직립구연 심발로 변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장석, 2006, 「충청지역의 선송국리 물질문화와 송국리유형」, 『韓國上古史學報』第51號, 69쪽.

송만영, 2010, 앞의 논문, 50쪽.

89) 高旻廷, 2003, 앞의 논문.

董眞淑, 2003,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文化의 變遷」,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형원, 2009, 앞의 책.

李弘鍾·許義行, 2010, 「湖西地域 無文土器의 變化와 編年」, 『湖西考古學』23.

홍밖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湖南考古學報』36.

90)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제주 하모리유적』.

한 발굴조사에서 역삼동계 문화가 송국리계 취락에 선행하는 단계임이 자명하게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화지구 가 I 지역 보고자 역시 역삼동계문화의 하한을 기원전 4세기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⁹¹⁾.

하지만 삼양동취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삼동계취락과 송국리계취락은 분명하게 공간을 달리하여 조성되고 있다. 더불어 송국리계취락 단계의 분묘군은 오히려 역삼동계 취락의 공간에 조성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즉 이러한 공간배치는 결국 송국리계취락 구성원이 역삼동계취락의 구성원과 계승관계에 있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삼동계와 송국리계 취락은 초기에 일정부분 공존할 가능성이 있으나 삼양동취락의 예에서 보듯이 상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에서 송국리문화가 매우 성행하기 시작하는 기원전 4세기대까지 역삼동계 문화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상모리유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모리유적에서는 역삼동계 토기가 다수 확인되고 일부 송국리계의 영향으로 여겨지는 토기는 확인되지만 전형적인 송국리형토기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석기조합에서도 송국리단계의 석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반면 하모리유적에서도 역삼동계토기와 송국리계토기는 공반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역삼동계토기가 소멸한 후 무문양의 직립구연계토기와 함께 송국리계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외반구연토기가 동반 출토되는 점은 결국 역삼동계와 송국리계의 공존이 비교적 짧은 단기간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용담동 월성로유적에서 무문양의 직립구연계토기 단순기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단순문양토기→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송국리계토기→직립구연토기·원형점토대토기로의 변천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역삼동계의 뒤를 이어 송국리계문화가 유입된 것은 확실하지만 양 문화가 장기간 공존하지는 못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결국 삼양동취락에서 확인되는 선후취락의 공간구성과 궤를 같이 한다.

한편 강창화는 상모리식토기 말기형(역삼동계)의 하한이 기원전 2세기대까지 내려오며 삼양동식토기 집단 및 광지리식토기 집단과의 갈등관계를 상정하고 있다⁹²⁾. 전술한 바와 같이 역삼동계토기가 소멸한 이후에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와 함께 외반구연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또한 삼양동식토기는 송국리계의 영향인 하모리단계의 외반구연토기 보다 후행하는 토기로 점토대토기와 동반 출토된다. 즉 역삼동계토기·관창리계토기→무문양 직립구연토기·외반구연호→직립구연토기·원형점토대토기·삼양동식토기→외도동식토기→광지리식토기라는 토기조합의 변화양상이 순차적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역삼동계토기와 삼양동식토기 및 광지리식토기가 동시기에 공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고의 논의와는 다르지만 최근까지 외도동유적에 대한 조사결과 외도동식토기와 함께 편구원저단경호, 이중구연호 등이 동반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기는 전남지방의 편년을 고려한다면 기원 3~4세기대 유행하

91) 이러한 편년체계는 하모리유적 보고자의 편년관을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토기의 형식학적 분석에서도 한반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후술할 AMS 분석결과와 평균치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제주문화예술훈단, 2006, 『제주 하모리유적』.

國立濟州博物館, 2007, 『濟州稅務署 職員舍宅 敷地 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국립제주박물관, 2010, 앞의 책.

92) 강창화는 말기의 공렬토기 집단과 삼양동식토기 집단, 광지리식토기 집단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광지리식토기 집단이 흡수 통합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상모리식토기의 말기형과 광지리식토기는 필자의 편년에 따르면 실연대상 적어도 800년 가량 차이가 난다. 대체 800년전 집단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康昌和, 2003, 「耽羅 以前의 社會와 耽羅國의 形成」, 『강좌 한국고대사』 제10권, 31쪽.

金慶柱, 2005, 「耽羅成立期 聚落의 形成과 變遷」, 『湖南考古學報』 22號.

강창화, 2009, 「고대 탐라의 형성과 전개」,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고리-지난 10년간의 발굴기록』, 국립제주박물관.

는 전형적인 토기양식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⁹³⁾. 따라서 외도동유적은 결국 전술한 시기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외도동유적 II-2구역 11호 수혈유구 출토 장동형의 외반구연호는 팍지리식토기의 조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팍지리식토기는 외도동식토기 보다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팍지리식토기는 결국 기원 3~4세기대 이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팍지리식토기와 동반 출토된 토기에 대한 교차편년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 기원 4~5세기대의 중심연대를 갖는 토기라고 할 수 있다⁹⁴⁾.

환언하여 송국리문화의 유입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관창리유적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는 구순각목문토기(외반, 내만), 삼각형석도, 평근식과 첨근식의 일단경축 등이 출토된다. 안재호는 이 단계를 후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⁹⁵⁾. 따라서 고산리유적에서 출토되는 각목문토기, 무문양의 직립 또는 내만구연토기와 함께 평근식의 능형 일단경식석축이 출토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관창리유적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산리유적은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며 관창리유적을 참고한다면 기원전 7~6세기경에 위치지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⁹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서도 역삼동계 말기의 취락과 송국리계 초기 단계의 취락이 공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 문화의 취락은 계승관계에 있지 않고 이질적 집단으로 이해되며 이는 곧 입지 선택의 조건으로 적용되고 있다.

4.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의 변천양상

1) 혼암리 · 역삼동계 토기의 변천

삼양동취락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문양별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공렬문은 단독이든 복합적으로 시문된 경우든 구연부의 외반현상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각목문이 단독으로 시문된 예를 보면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문인 경우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모리유적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15)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태토 분류표

분류 형식	외래계 토기		재지계 토기		계	
	수	%	수	%	수	%
혼암리 · 역삼동식토기	18	11.0	131	79.8	149	90.8
관창리식토기	5	3.1	10	6.1	15	9.2
계	23	14.1	141	85.9	164	100

상기한 표15)는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중 태토분류가 가능한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따르면 외래계태토는 15% 미만에 해당하며 반대로 재지계태토는 85% 이상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⁹⁷⁾.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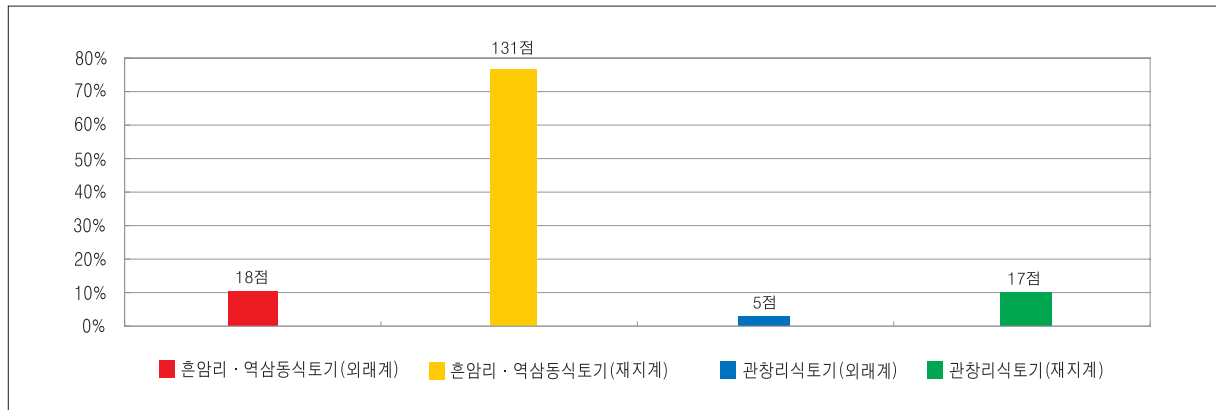
93) 徐賢珠, 2006, 『榮山江流域 古墳 土器 研究』, 學研文化社.

94) 김경주, 2009, 앞의 책.

95) 安在皓, 2006, 앞의 논문, 26~27쪽.

96) 청동기시대는 중서부 해안지역과 제주간의 연관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남강유역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참고된다(安在皓, 2006, 앞의 논문).

97)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전체를 분석하지는 못했지만 개략적인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삽도 21.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태토 분류도

서 상모리유적의 경우 전기 무문토기문화가 유입된 이후 재지화가 상당히 진행된 유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순각목토기의 경우 구연부의 형태가 외반구연인 경우는 대략 9% 내외에 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반구연각목시문토기는 혼암리·역삼동계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렬문이 시문된 경우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⁹⁸⁾. 또한 보고서에 수록된 토기중에서 문양분류가 가능한 토기는 모두 242점에 해당하는데 혼암리·역삼동식토기가 218점(82.0%)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관창리식토기와 무문양토기는 각각 24점(9.0%)으로 10% 이하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개체수를 통해 동시기 문화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튼 전체 토기의 비율을 보면 혼암리·역삼동식토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렬과 각목문이 복합시문된 토기 역시 23.7%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 상모리유적의 중심토기임을 알 수 있다.

호서지역의 경우 역삼동·혼암리유형은 4단계인 기원전 10~9세기대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⁹⁾. 반면 남강유역의 경우 혼암리식토기가 출현하는 단계는 2기에 해당하는데 중심연대는 대략 기원전 9~8세기경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⁰⁾. 따라서 삼양동유적의 경우에도 호서지역과 남강유역간의 교차편년을 고려한다면 비슷한 시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호남지역은 역삼동계토기가 매우 적고 가락동계의 이중구연토기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또한 2~3기에 가락동유형과 역삼동유형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3기에는 혼암리계토기가 등장한다¹⁰¹⁾.

삼양동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중에서 무문양의 토기는 외반구연 형태가 16% 정도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상모리와 하모리유적은 4~8%에 해당하고 있어 상호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상모리단계→삼양동단계로 연결되는 시간축의 변화과정에서 점차 문양이 소멸하고 무문양의 직립구연 혹은 외반

98) 영남 중서부지역의 경우에도 외반구연의 호형토기는 단독문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구순각목문이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고된다(김병섭, 2010, 「영남 중서부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양상」, 『전기 무문토기의 지역양식 설정』, 72~73쪽, 한국 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워크숍자료집).

99) 李弘鍾·許義行, 2010, 「湖西地域 無文土器의 變化와 編年」, 『湖西考古學』23, 138~140쪽.
이형원, 2009, 앞의 책.

100) 高旻廷, 2003, 앞의 논문, 102쪽.
董眞淑, 2003, 앞의 논문, 80쪽.

101) 홍맑음의 분석에 따르면 3기에 혼암리계토기가 출현하는데 대략 기원전 10세기대로 추정하고 있어 참고된다. 또한 4기(기원전 9~8세기)에는 세장방형주거지가 소멸하고 원형과 방형이 주류이며 송국리문화의 접촉으로 인한 무문화가 진행되는 단계이다(홍맑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湖南考古學』36), 반면 김문국은 호남지역의 절대연대 분석을 통해 가락동유형과 역삼동·혼암리유형이 기원전 13~11세기에 걸쳐 공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문국,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고찰」,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연토기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¹⁰²⁾.

특히 삼양동취락에서는 가락동계토기에 주로 시문되는 문양으로 알려진 단사선문토기¹⁰³⁾와 혼암리계 토기는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반면 단순문양인 구순각목문토기와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는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삼양동취락이 상모리유적에 후행하는 단계의 취락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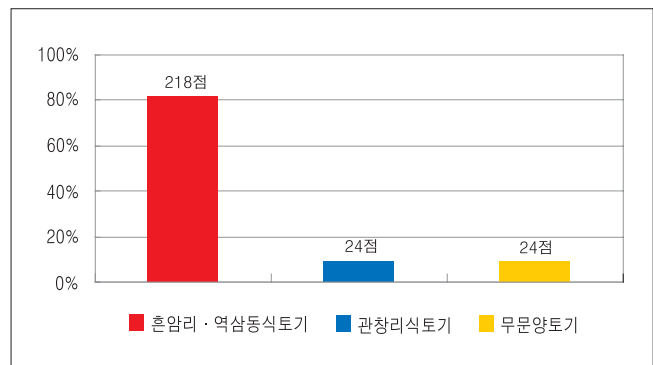
반면 상모리유적에서 소위 관창리식토기¹⁰⁴⁾ 또는 고남리식토기¹⁰⁵⁾로 명명되는 외반구연에 구순각목시 문된 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관창리식토기는 모두 24점이 확인되었는데 외래계태토로 제작된 토기가 5점 정도 출토되었다. 따라서 상모리단계에 이미 관창리와 고남리유적이 위치한 중서부 해안지역과의 직접적인 교류 가능성이 높다¹⁰⁶⁾.

한편 경주권역 무문토기 문양의 변천양상을 보면 역시 공열문이 일찍 소멸하고 구순각목문이 늦은시기에 사라지고 있다¹⁰⁷⁾. 따라서 이러한 점은 공열문과 각목문이 서로 시기적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공열문과 각목문단계의 시기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공열문과 각목문이 동시에 출현하여 확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분포영역은 상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공열문양은 가락동계와 결합되고 송국리계와 문화적 접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멸된 반면 각목문은 가락동계는 물론이고 송국리계와도 동화되는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양동취락은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에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역삼동계취락→송국리계취락으로 전환되는 단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유적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의 경우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¹⁰⁸⁾. 따라서 삼화지구에서 조사된 삼양동취락은 결국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의 역삼동단계→송국리단계로 전환되는 시기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6)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분류	계	
	수	%
형식		
혼암리·역삼동식토기	218	82.0
관창리식토기	24	9.0
무문양토기	24	9.0
계	266	100



삽도 22. 상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102) 이러한 주체토기의 변화양상은 하모리유적에서 유구의 선후관계와 층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 바 있다.

金慶柱, 2007, 「三陽洞式土器의 始原에 對한 考察-外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石心鄭永和教授 停年退任紀念天馬考古學論叢』.

103) 이형원, 2009, 앞의 책.

孔敏奎, 2011, 「금강 중류역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검토」, 『韓國青銅器學報』第八號.

104) 李弘鍾, 2005, 앞의 논문.

105) 이하에서는 관창리식토기로 통일하여 부른다(俞炳隣, 2001, 「中西部海岸地域 無文土器時代에 對한 研究-安眠島 古南里 貝塚 出土 遺物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6) 俞炳隣, 2001, 앞의 논문.

107) 손호성·전상욱, 2009, 「청동기시대 주거지 연구-경주권역 주거지의 분류와 시기설정」, 『聖林考古論叢』, 創刊號, 25~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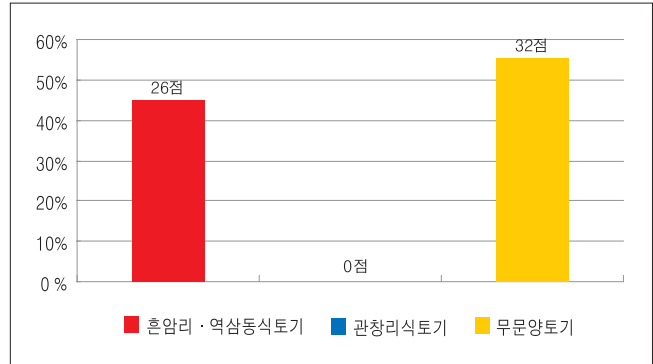
108) 金賢, 2006, 「慶南地域 青銅器時代 무덤의 展開樣相에 對한 考察」, 嶺南考古學 39號.

李花英, 2008, 「青銅器時代 赤色磨研壺의 變遷」, 67~68쪽,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安在喆, 2010b, 「韓半島 青銅器時代文化의 起源과 傳播」, 『청동기시대의 울산 태화강문화』.

표17) 하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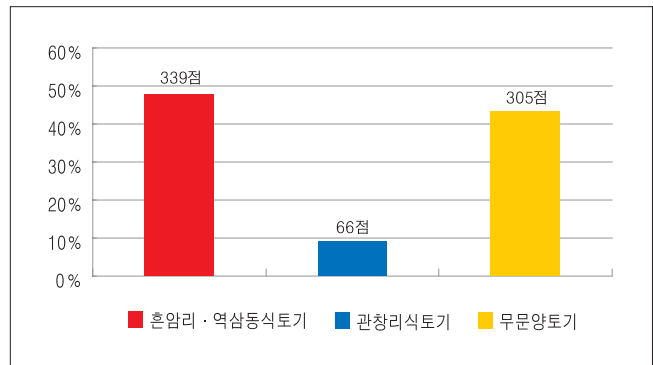
형식	분류	계	
		수	%
혼암리·역삼동식토기		26	44.8
관창리식토기		0	0
무문양토기		32	55.2
계		58	100



삽도 23. 하모리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표18) 삼양동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형식	분류	계	
		수	%
혼암리·역삼동식토기		339	47.7
관창리식토기		66	9.3
무문양토기		305	43.0
계		710	100



삽도 24. 삼양동유적 무문토기 분포현황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출토유물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단순문양의 무문토기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각목시문된 토기의 점유율이 높다. 또한 공렬문이 시문된 토기에서는 구경부가 강하게 외반되는 토기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각목 시문된 토기 중에서는 강하게 외반된 토기가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와 외반구연토기의 점유율 역시 각목시문토기와 비중이 비슷하게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문양(각목)토기와 무문양의 토기가 병행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복합문양(공렬+각목)토기에 비해 단순문양과 무문양에서 외반구연 형태의 토기의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단순문양 토기의 성행단계에 외반구연토기가 출현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양 형식의 토기간 접변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즉 단순문양토기(구순각목문토기)의 잔존시기에 외반구연토기가 출현하여 전술한 토기와 접촉하면서 구경부가 강하게 외반하는 각목시문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되는 토기의 조합을 살펴보면 복합문양의 혼암리계토기는 거의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복합문양토기의 점유율도 단순문양 토기의 점유율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외반구연화 현상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모리단계 보다 후행하는 역삼동계 말기의 토기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삼양동유적의 역삼동계 말기 취락 단계에 역삼동계 말기의 주거형태 및 토기+송국리계 초기 토기 문화가 접촉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취락임을 알 수 있다.

삼양동유적 나(Ⅲ)지역에서는 공렬+각목+단사선문양의 혼암리계토기가 2점(도면 97, 98번) 출토되었으며 또한 단사선이 시문된 동체부편도 2점이 출토되었다. 따라서 혼암리계토기의 말기적 양상(상모리식 토기 말기형)이 일부 잔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삼양동유적은 상모리유적의 말기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송국리계취락의 출현 이전에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모리유적과 마찬가지로 삼양동유적

에서도 가락동계토기의 특징인 이중구연과 단사선문이 가장 먼저 소멸하고 다음으로는 공렬문이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구순각목문은 늦은시기까지 남아있지만 형식적으로 잔존한다¹⁰⁹⁾.

표19) 상모리유적 출토 토기 분포현황

공렬+각목+단사선				공렬+단사선				각목+단사선				단사선				소계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59	22.2	0	0	3	1.1	0	0	36	13.5	2	0.7	12	4.5	2	0.7	114	42.9

공렬+각목				공렬				각목				무문				합계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63	23.7	1	0.4	9	3.4	0	0	31	11.7	24	9.0	14	5.3	10	3.8	266	100

표20) 하모리유적 출토 토기 분포현황

공렬+각목				공렬				각목				무문				계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7	12.1	0	0	1	1.7	0	0	18	31.0	0	0	27	46.6	5	8.6	5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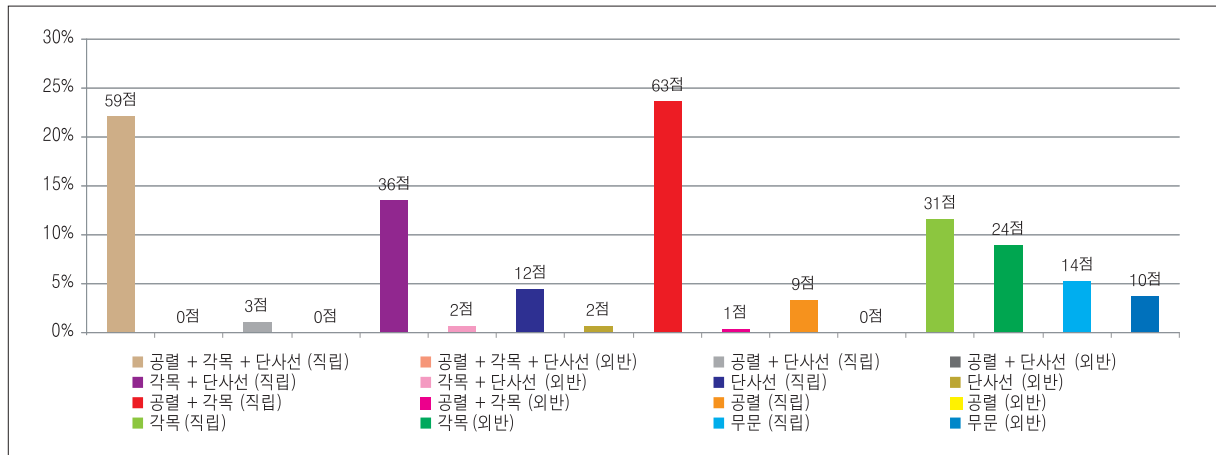
표21) 삼양동유적 출토 토기 분포현황

공렬+각목+단사선				공렬+단사선				각목+단사선				단사선				소계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2	0.3	0	0	0	0	0	0	1	0.1	0	0	2	0.3	0	0	5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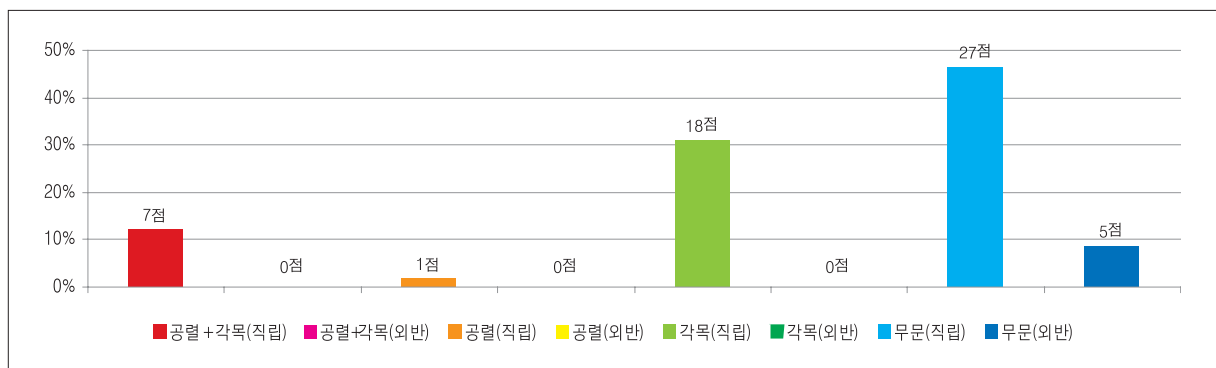
공렬+각목				공렬				각목				무문				계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직립		외반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수	%
39	5.5	1	0.1	54	7.6	3	0.4	237	33.4	66	9.3	190	26.8	115	16.2	710	100

109) 구순각목문의 경우 삼양동유적의 역삼동계취락 말기에 접어들면 매우 형식적인 시문이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각목형태가 매우 두터워지거나 혹은 각목시문 간격이 불규칙적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간취된다. 즉 역삼동계취락의 말기에 형식적인 각목시문이 이루어지다가 결국 무문양으로 전환된다. 하모리유적과 삼양동유적을 참고하면 각목시문토기→무문양토기로의 전환은 짧은기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순각목외반구연토기가 상모리유적에서 다수 확인되는 점은 결국 상모리유적 말기와 하모리유적 및 삼양동 역삼동계취락의 동시기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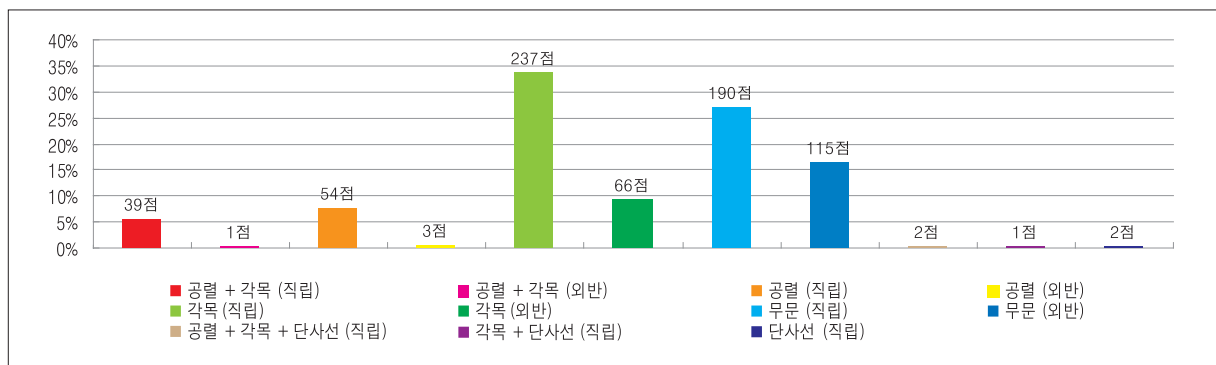
濟州大學校博物館, 1990, 『上幕里遺蹟』.
 제주문화예술재단, 2006, 앞의 책.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0, 『제주 삼화지구유적』.



삽도 25. 상모리유적 출토 토기의 분포현황



삽도 26. 하모리유적 출토 토기의 분포현황



삽도 27. 삼양동유적 출토 토기의 분포현황

상모리유적의 경우 가락동식토기의 특징인 단사선이 시문된 혼암리계¹¹⁰⁾는 114점으로 42.9%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공렬문과 각목문이 결합되거나 단독적으로 시문된 역삼동계는 104점으로 39.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문양은 24점으로 9%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모리유적은 혼암리계와 역삼동계가 성행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110) 이형원의 분류에 따르면 가락동식토기는 이중구연문과 단사선문이 단독 혹은 복합적으로 시문되거나 이외에도 구순각목문 및 거치문 등이 혼합된 토기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이형원, 2001, 「한국 청동기시대 전기 중부지역 무문토기 편년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반면 안재호는 거치문 · X자문 · 사선문 · 단사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침선문이라 칭하고 가락동식토기를 이중구연+침선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식토기라는 용어를 ~계토기로 수정하여 부르고 있다(安在皓, 2006, 앞의 논문, 16~17쪽).

반면 상술한 표21)를 참고하면 삼양동취락의 역삼동단계에서는 단순문양(각목)의 직립구연토기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¹¹¹⁾. 다음으로는 무문의 직립구연과 외반구연토기가 16%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직립구연토기가 26.8%로 높게 확인된다. 반면에 공렬문이 시문된 단일문양이나 각목문과 결합된 토기는 각각 8%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즉 각목시문의 단일문양이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외반구연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삼동 말기의 형태와 송국리 초기 형태의 절충형태가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상모리와 하모리유적을 참고하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된다. 즉 표19)와 20)을 참고하면 단순공렬문의 직립구연계토기는 4%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복합문→단일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렬문이 먼저 소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삼양동취락이 상모리와 하모리유적에 비해 늦은 시기까지 후행하는 유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상모리유적의 경우 혼암리계토기가 22.2%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단사선문을 제외하고 공렬문이 결합된 토기 역시 2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하모리유적 역시 공렬문과 각목문이 결합된 토기는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제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토기의 현황을 보면 먼저 상모리유적의 경우 가락동계의 전통인 단사선문이 잔존하는 토기가 42.9%¹¹²⁾이고 역삼동식토기는 39.1%, 무문양토기는 9.0%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합문양의 혼암리·역삼동식토기의 점유율이 82.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¹¹³⁾. 반면 하모리유적은 혼암리·역삼동계토기가 44.8%, 무문양토기는 55.2%에 해당된다. 또한 삼양동유적의 경우 혼암리·역삼동식토기는 47.2%이고 무문양토기는 43.0%를 점유하고 있다. 즉 하모리유적과 삼양동유적의 경우 무문양토기와 혼암리·역삼동식토기가 비슷한 비율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하모리와 삼양동유적의 중심시기는 병행하는 단계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삼양동취락의 경우 공렬문과 각목문이 결합된 토기는 6% 미만의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반해 단순 각목문의 경우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¹¹⁴⁾. 따라서 상모리→하모리→삼양동유적으로 상대서열이 가능하며 시간축의 변화속에서 복합문 단계→단일문(공렬문 소멸, 각목문 잔존) 단계→무문양(각목문 소멸) 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삼양동취락은 단일문이 유행하면서 송국리계의 외반구연토기와 결합된 각목시문의 외반구연토기가 증가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각목시문의 외반구연토기는 주로 중서부지역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송국리유형과의 접촉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¹¹⁵⁾. 즉 복합문→단일문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강원영동지역과 남강유역은 공렬문이 잔존하며 중서부해안지역과 금강유역은 구순각목문이 잔존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¹¹⁶⁾. 따라서 제주지역

111) 삼화지구에 대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역삼동계 취락 내부에 송국리단계의 옹관묘와 토광묘 등이 축조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송국리단계의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12) 단사선문이 남아 있지만 상모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 중에 전형적인 가락동식토기와 같이 이중구연이 뚜렷하게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혼암리식토기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 단순문양의 구순각목문토기 중에서 외반구연의 경우 송국리문화의 영향으로 인정하여 혼암리·역삼동계토기에서 제외하였다.

114) 송만영에 따르면 퇴화된 혼암리식토기와 함께 구순각목공렬토기, 공렬토기 등이 출토되는 단계를 전기 후반으로 설정하고 기원전 11~10세기로 파악하고 있다(송만영, 2010, 앞의 논문, 54쪽).

115) 각목시문된 외반구연토기는 중서부지역의 보령 관창리, 안면도 고남리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중서부지역과의 연관성을 논의할 수 있지만 시공간적인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계가 있다. 하지만 상모리패총에서 이미 외래계토기의 각목시문된 외반구연토기가 출현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상정해 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俞炳隣, 2001, 앞의 논문.

李弘鍾, 2005, 앞의 논문.

116) 朴榮九, 2000, 「嶺東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高旻廷, 2003, 앞의 논문.

김병섭, 2010, 앞의 논문.

의 경우 복합문→단일문으로의 전환과정에서는 남강유역 보다는 중서부해안지역과의 연관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삼양동취락은 역삼동계 말기의 취락과 송국리계 초기형태의 토기문화가 접촉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즉 외반구연에 각목시문된 토기의 증가 양상은 결국 역삼동계→송국리계로의 전환과정에 해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적색마연호 검토

청동기시대 적색마연토기 단경호의 기원은 대체로 대부호에서 찾고 있다. 즉 미사리(서) 9호주거지에서 출토된 단경호가 대부호의 대각이 소멸하고 평저의 단경호로 발전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대부호의 소멸시점을 혼암리유형 단계로 설정하고 있다¹¹⁷⁾.

천선행에 따르면 적색마연호의 분류는 단경호(구경고 2cm 미만), 중경호(3~5cm 미만), 장경호(5cm 이상)로 구분하고 있다¹¹⁸⁾. 이를 참고하면 삼화지구 가 I 지역 33호 주거지와 156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는 대부분 구경고 3cm 미만인 단경호에 해당한다¹¹⁹⁾. 남강유역의 경우 전기에는 중경호가 유행하고 중기에는 단경호가 중심기종으로 변화한다¹²⁰⁾.

삼양동 2132-1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흑색마연토기(도면 5-1)는 경부에서 막바로 외반되는 단경호이며 동체는 편구형태를 이루고 있다¹²¹⁾. 따라서 하모리유적 출토 흑색마연호(도면 11-47)와 기형상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마연토기는 김해 어방동 13호주거지, 사천 이금동 47호 석곽묘, 진주 어은 2지구 8호 석관, 진주 대평 옥방 8지구 9호 석관묘, 김해 장유리 석곽묘¹²²⁾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적색마연호가 출토된 예가 있다¹²³⁾. 송영진은 이러한 형태의 적색마연호가 유행하는 단계로 송국리형단계에 해당하는 기원전 6~4세기대로 추정하고 있다¹²⁴⁾. 반면 이화영은 이 토기를 A2식으로 분류하고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분묘에서 주류를 이룬다고 추정하고 있다¹²⁵⁾. 또한 영남지역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

117) 安在晧, 2002,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 農耕文化의 形成』, 153~155쪽.

김미영, 2010, 「적색마연토기의 변천과 분포에 대한 연구-원저호를 중심으로」, 『경남연구』 제2집, 9~10쪽.

118) 千羨幸, 2008, 「韓半島南部の赤色磨研土器-中頸壺と台付壺(鉢)を中心に-」, 『吾々の考古學』, 566쪽.

119) 하인수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대형은 器高가 20cm 이상이고 口頸高가 4cm 이상을 장경호로 분류하였다. 반면 소형은 기고가 20cm 이하이고 구경고가 4cm 이하(대부분 2~3cm)가 되는 장경 내지 단경호로 구분하였다. 즉 하인수의 분류에 따르면 삼화 가 I 지역 출토 적색마연호는 대형과 소형이 모두 확인된다. 다만 소형 단경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型式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24쪽). 반면 이화영은 명목적속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경부 길이비의 도수분포도를 작성한 후 0.14 이하를 단경, 0.14~0.2 사이를 중경, 0.2~0.27 사이를 중장경, 0.27 이상을 장경으로 분류하고 있다(李花英, 2008, 앞의 논문, 38~39쪽). 이러한 단경호는 대체로 남부지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참고된다(김미영, 2010, 앞의 논문, 14~15쪽).

120) 千羨幸, 2008, 앞의 논문, 578~579쪽.

하인수 역시 송국리단계에 접어들면서 단경호가 유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III~IV단계로 가면서 단경호의 구연부는 직립하지 않고 막바로 외반되며 동최대경이 동하부에 위치하는 형식이 증가하고 있다(河仁秀, 1989, 앞의 논문).

121) 국립제주박물관,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22) 김해 장유리유적 보고자는 율하리유적과의 교차편년을 통해 이와 같은 적색마연호를 후기 전반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김해 장유리유적』,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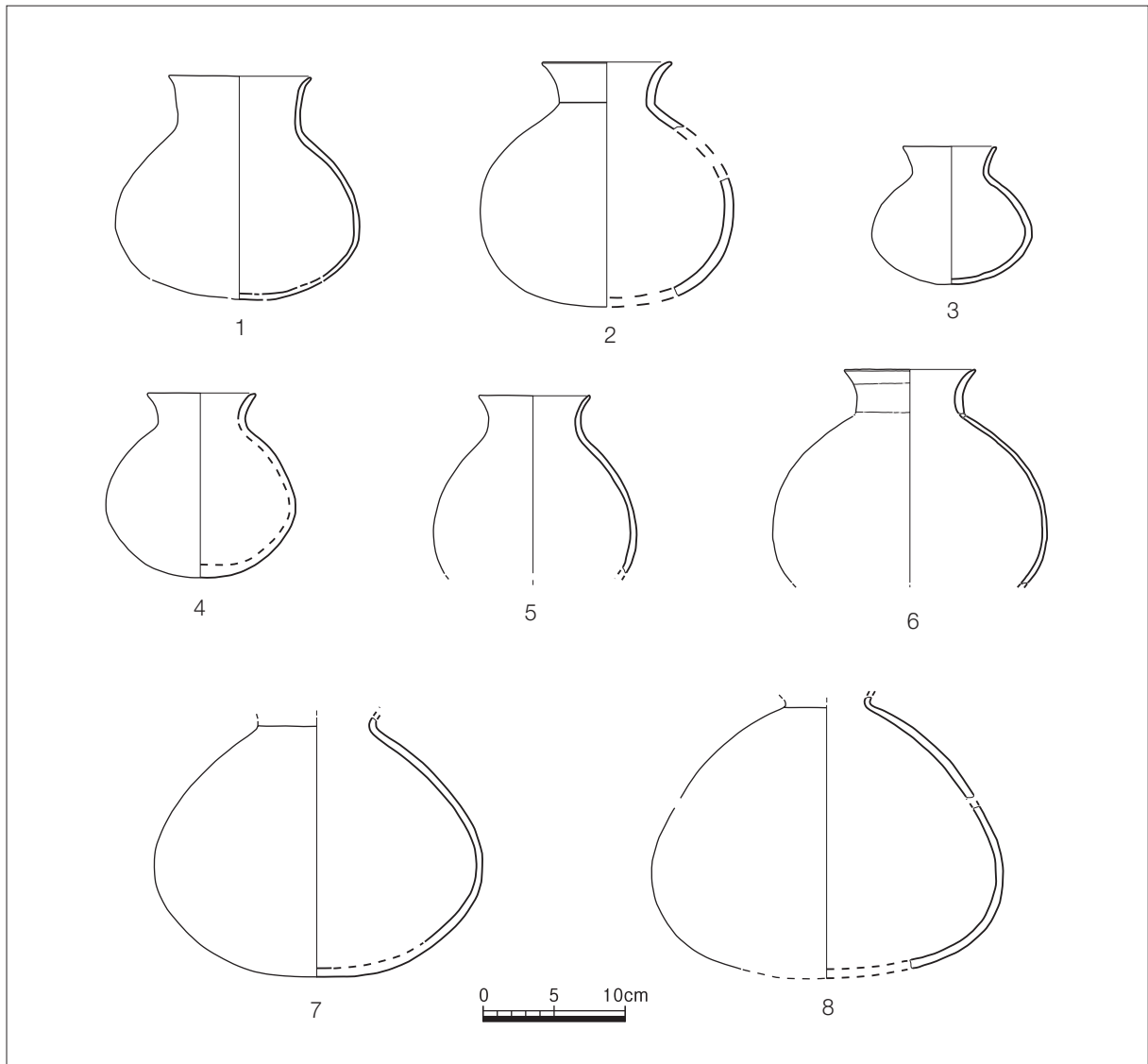
123) 이러한 형태의 적색마연호는 경남 서부지역인 남강유역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채문호(II형)와 적색마연 중경호(Ib·IIa형)에서 유사한 형태의 적색마연호가 확인되고 있는데 대체로 서부 경남지역과 전남 동부지역에서 출토 빈도가 높다.

金賢, 2006, 앞의 논문, 8~10쪽.

124) 宋永鎮, 2003, 「赤色磨研土器에 대한 一考察」, 47쪽,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5) 李花英, 2008, 앞의 논문, 67~68쪽.

하모리와 삼양동유적 출토 흑색마연호와 유사한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었던 상기한 유적의 편년은 대부분 청동기시대 전기로 편년하고 있어 참고된다.



삽도 28. 제주지역 출토 적색마연호 (1:상모리, 2:하모리, 3~8:삼양동)

한 전개양상을 검토한 김현도 전술한 형태와 유사한 적색마연호를 전기 후반으로 편년하고 있어 송영진
의 편년과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¹²⁶⁾.

한편 상모리유적 출토 적색마연호 역시 김현과 이화영의 분류에 따르면 각각 적색마연 중경호 1b식과
적색마연호 A2식에 해당하며 진주 대평리 옥방 8지구 7호 출토 적색마연호와 형태상 매우 유사하다. 즉
이러한 형태의 적색마연호는 대체로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으로 편년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²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흑색마연호가 출토된 하모리유적 1-2호 수혈유구에서는 공렬+각목문토기와 함께
각목시문된 직립구연토기가 동반 출토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와 같은 형태의 흑색마연호는 역삼동
계 말기에 확인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남 서부지역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의 편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청동기시대 편년관 역시 경남 서부지역과 병행하여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단순문양의 역삼동계토기 말기형태와 전술한 형태의 적색마연호가 동반

126) 金 賢, 2006, 앞의 논문, 32쪽.

127) 金 賢, 2006, 앞의 논문, 10쪽.

출토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모리유적 1-2호 수혈유구와 삼양동 2132-1번지 1호 수혈유구는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경으로 편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시기 토기의 조합을 살펴보면 단순문양의 직립구연토기와 함께 단경의 편구 형태인 흑색마연호가 병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하모리유적 1-2호 수혈유구와 삼양동 2132-1번지 유적 1호 수혈유구가 동시기에 해당한다. 또한 하모리유적의 경우 1-2호 수혈유구에 후행하는 1-3호와 1-4호 수혈유구에서는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편이 주류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문양→무문양으로 전환되는 단계로 비정할 수 있다. 특히 2호 수혈유구에서는 내부퇴적토가 2개층으로 구분되는데 하층에서는 주로 공렬+각목문과 함께 각목시문된 단순문양의 직립구연토기가 동반 출토되는 반면 그 상층에서는 무문양의 직립 혹은 외반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점을 보면 이를 반증한다. 또한 3호 수혈유구에서는 단순문양(각목문)의 직립구연토기와 함께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다. 따라서 하모리유적 단계에 단순문양토기→무문양토기로 전환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삼화지구 가 I 지역 156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는(도면 602번) 단경에 편구의 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동최대경이 중위 또는 하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화영의 분류에 따르면 각각 A2식과 E2식에 해당한다. 또한 김현의 분류 채문토기 II 식과 적색마연 단경호 B식에 해당한다. 이화영은 영남지역의 경우 A2식은 전기에 주류를 이루고 E2식은 후기 전반에 공반되며 후기 후반이 되면 남강유역을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⁸⁾.

반면 김현은 채문토기 II 식은 전기에 유행하고 적색마연 단경호 B식은 후기 전반에 성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동유구에서 동반 출토된 마제석검의 경우 김현 분류 이단병식석검인 B식에 해당하는 점을 보면 후기 전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¹²⁹⁾. 따라서 156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와 함께 출토된 이단병식석검 등을 참고하면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후기 전반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56호 수혈유구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와 공반된 유물을 살펴보면 복합문양토기(공렬+구순각목)와 단순문양토기(공렬, 각목토기), 무문양토기, 편평편인석부 등이 동반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상모리단계 말기~하모리단계에 위치지을 수 있다.

한편 삼화지구 가 I 지역 33호주거지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도면 219번)는 단경의 구연에 편구의 동체를 이루며 동최대경이 중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는 사천 이금동 47호 석곽, 진주 상촌리 1지구 구상유구, 진주 어은 2지구 19호주거지, 함안 가미실 1호 지석묘 등에서 출토된 토기와 기형상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이화영의 분류를 따르면 A2식에 해당하며 전술한 156호 수혈유구 출토 적색마연호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¹³⁰⁾. 김현의 분류 채문토 II 식과 역시 기형상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유구에서 출토된 토기류를 살펴보면 단순문양(구순각목-직립, 외반)과 무문양(직립, 외반)토기가 동반 출토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하모리단계에 위치지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5.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 변천양상

다음은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 변천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다음의 표22)를 참고하여 제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조성을 살펴보면 식량처리구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128) 李花英, 2008, 앞의 논문.

129) 金 賢, 2006, 앞의 논문, 8~10쪽.

130) 李花英, 2008, 앞의 논문.

표22)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조성비¹³¹⁾

분류	유적 구성비 기종	상모리		하모리		삼양동		합계	
		數	%	數	%	數	%	數	%
굴지구	타제석부	0	0	0	0	1	0.6	1	0.6
	소계	0	0	0	0	1	0.6	1	0.6
벌채구	양인류	4	2.5	0	0	5	3.1	9	5.6
	소계	4	2.5	0	0	5	3.1	9	5.6
가공구	편인류	2	1.3	1	0.6	17	10.6	20	12.5
	소계	2	1.3	1	0.6	17	10.6	20	12.5
석기 가공구	지석	3	1.9	4	2.5	26	16.3	33	20.6
	소계	3	1.9	4	2.5	26	16.3	33	20.6
수렵구	석촉	3	1.9	0	0	2	1.3	5	3.1
	소계	3	1.9	0	0	2	1.3	5	3.1
어로구	어망추	2	1.3	0	0	1	0.6	3	1.9
	소계	2	1.3	0	0	1	0.6	3	1.9
식량 처리구	요석	1	0.6	1	0.6	5	3.1	7	4.4
	고석	32	20.0	3	1.9	12	7.5	47	29.4
	마석	2	1.3	0	0	2	1.3	4	2.5
	연석	2	1.3	2	1.3	21	13.1	25	15.6
	소계	37	23.1	6	3.8	40	25.0	83	51.9
상징 의례구	석검	1	0.6	0	0	3	1.9	4	4.5
	석환	1	0.6	0	0	0	0	1	0.6
	소계	2	1.3	0	0	3	1.9	5	3.1
방직구	방추차	0	0	0	0	1	0.6	1	0.6
	소계	0	0	0	0	1	0.6	1	0.6
합계		53	33.1	11	6.9	96	60.0	1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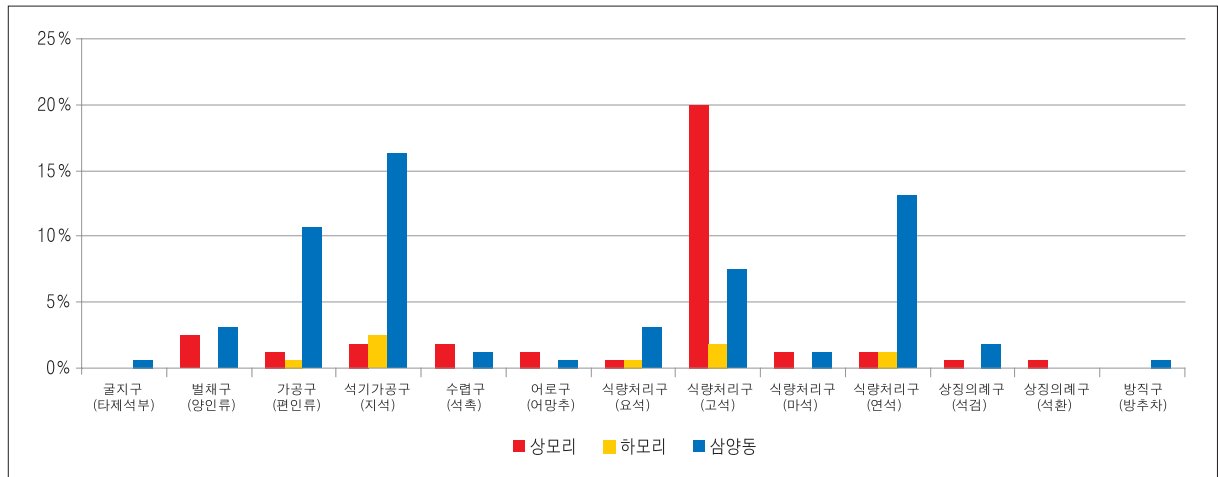
수렵구와 어로구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농경과 관련된 수확구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전기의 생업활동은 채집경제에 의존하는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상모리유적에서 다량의 패각이 퇴적된 패층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로활동과 관련된 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어로와 수렵채집에 의존하는 생업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편 석기가공구(20.6%)와 가공구(12.5%)의 비중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공구는 특히 삼양동단계에 피크를 이루고 있는데 상모리→삼양동단계로 전환되면서 석기제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식량처리구 중에서 고석의 비율을 살펴보면 상모리유적의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채집열매 가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산물 가공과 관련된 도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삼양동단계의 경우 전체 석기중에서 고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12.5%에 불과하지만 상모리 단계에는 60.4%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석부는 상모리유적에서는 양인류의 석부 비중이 높은 반면 삼양동단계에는 편인류의 점유율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¹³²⁾. 따라서 상모리유적(전기 전반)→삼양동유적(전기 후반) 단계로 전환되면서 편인류가 성행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이다.

131) 석기는 손준호의 분류안을 참고하였다(孫俊鎬, 2008, 「石器 組成比를 통해 본 靑銅器時代 生計와 社會經濟」, 『韓國靑銅器學報』第三號).

132)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석부를 분석한 결과 전기에는 함인석부가 편인석부에 비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權敬淑, 2011,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조성과 생업경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쪽).



삽도 29. 제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석기 조성비 분포도

반면 석촉류의 경우에도 상모리단계에는 삼각만입촉(1점)¹³³⁾과 함께 단면 능형의 일단경석촉(2점)이 출토되었고¹³⁴⁾ 삼양동단계에도 삼각만입촉과 능형촉¹³⁵⁾이 출토되고 있다. 즉 석촉류는 삼각만입촉과 능형의 유경촉이 청동기시대 전기의 늦은시기까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제석검의 경우 삼양동유적에서 이단병식석검¹³⁶⁾이 2점 확인된 바 있다. 손준호에 따르면 이단병식석검은 주로 청동기시대 전기의 유적에서만 출토되고 반면 일단병식석검은 후기에만 출토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또한 이단병식석검 중에서 유단식(삼화 가 I 지역 156호 수혈 출토, 도면 642번)은 편평무경촉과 공반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기에 해당한다. 반면 동유구와 동반 출토된 유구식석검(도면 641번)은 전기~후기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¹³⁷⁾.

6. 삼양동취락의 편년적 위치 검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양동유적은 역삼동단계의 취락(삼화지구)과 송국리단계의 취락이 양존하는 제주지역 최대의 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조사된 것을 보면 국도 12호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역삼동단계의 취락과 송국리단계의 분묘군이 위치하고 있고 반대로 북쪽으로는 송국리단계의 취락이 확인되었다. 양 취락은 한국고고학의 편년을 따르면 역삼동계 취락이 선행하고 송국리게 취락이 후행하는 것으로

133) 삼각만입촉의 경우 전기에 주로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후기에는 평기식이 유행한다(孫峻鎬, 2006, 「韓半島 靑銅器時代 磨製石器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2쪽).

134) 손준호에 따르면 능형일단경촉은 전기에도 확인되지만 대체로 후기에 유행하는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孫峻鎬, 2006, 앞의 논문, 75쪽). 따라서 후기의 이른형식으로 추정된다.

135) 도련동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경부가 결실된 능형촉이 수습되었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에서도 이단경식 혹은 일단경식의 능형촉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6) 이단병식석검은 전남지역(영산·섬진강유역)에는 분포하지 않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 출토되는 이단병식석검은 혼암리문화와 함께 중서부지역 혹은 영남지역에서 유입되었음을 반증하는 자료에 해당한다. 반면 유경식석검은 전남지방에서 분포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제주지역 송국리문화와의 연관성을 가늠케 한다.

朴宣映, 2004,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孫峻鎬, 2006, 앞의 논문.

朴美賢, 2008, 「有柄式 磨製石劍의 展開와 地域性 研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7) 156호 수혈유구에서는 석검 3점이 동반 출토되었는데 유단식과 유구식이 각각 1점씩이고 1점은 병부의 형태를 알 수 없다. 하지만 신부에 혈구가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단식석검으로 추정된다(孫峻鎬, 2006, 앞의 논문, 72~76쪽). 따라서 3점 모두 청동기시대 전기의 대표적인 석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표23) 삼양동유적 역삼동계 취락의 ^{14}C 연대 측정치

시료명	측정기간	시료종류	$\delta^{13}\text{C}(\text{‰})$	^{14}C 연대 (^{14}C BP)	교정연대(cal BC) OxCal v3.10	
					2σ	1σ
B-01호(주)	2008	목탄		2470 ± 60	770~410	760~510
B-04호(주)	"	"		3550 ± 50	2030~1740	1960~1770
B-07호(주)	"	"		2720 ± 60	1010~790	920~810
B-08호(주)	"	"		2460 ± 50	770~400	760~410
B-09호(주)	"	"		2630 ± 50	910~590	840~765
B-17호(주)	"	"		2640 ± 60	930~550	900~770
B-58호(수)	"	"		2420 ± 60	760~390	740~400
B-156호(수)	"	"		2460 ± 60	770~400	760~410
B-03호(소)	"	"		2410 ± 50	760~390	730~400
C(I 구역)-01호(수)	"	"	-28.09	2570 ± 50	830~530	810~590
C(I 구역)-04호(수)	"	"	-27.86	2520 ± 50	800~410	790~540
C(I 구역)-08호(수)	"	"	-26.30	2560 ± 40	810~540	810~590
C(I 구역)-12호(수-1)	"	"	-29.50	2560 ± 50	820~520	810~560
C(I 구역)-12호(수-2)	"	"	-28.58	2590 ± 50	850~530	820~590
C(I 구역)-12호(수-3)	"	"	-27.17	2530 ± 50	810~410	790~550
C(I 구역)-13호(수)	"	"	-22.10	2640 ± 40	900~770	835~790
C(I 구역)-14호(수)	"	"	-32.37	2500 ± 50	790~410	770~540
C(I 구역)-19호(수)	"	"	-24.76	2530 ± 50	810~410	790~550
C(III-3구역)-05호(주)	"	탄화곡물	-33.32	2520 ± 50	800~410	790~540
C(III-3구역)-01호(수)	"	목탄	-43.08	2540 ± 60	810~410	800~540
C(III-3구역)-09호(수)	"	"	-31.63	2700 ± 50	980~790	895~810
C(III-3구역)-01호(성)	"	"	-24.63	2520 ± 40	800~510	780~550
C(III-4구역)-05호(주)	"	"	-23.61	2860 ± 50	1210~900	1120~940
C(III-4구역)-04호(수)	"	"	-29.46	2770 ± 50	1040~810	980~840
C(III-4구역)-09호(수)	"	"	-29.26	2650 ± 50	920~760	900~780
F-01호(주)	2009	"	-22.34	2100 ± 50	360~AD20	180~50

정립되어 있다. 즉 상술한 AMS연대를 참고하더라도 그 중심시기와 상하한 연대가 대략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취락간 선후관계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며 다만 양 취락의 공간구성과 입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전술하였다시피 양 취락간 상호 중복점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후행하는 송국리계취락의 경우 분묘군(지석묘, 옹관묘, 토광묘)을 선행취락의 내부에 축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양 취락집단의 구성원간 계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송국리단계의 초기 유입양상이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고산리유적에서 찾을 수 있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삼동단계 취락과 송국리단계 취락의 조성시기는 연속적이지 못하고 역삼동계취락이 소멸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 송국리형취락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¹³⁸⁾. 즉 종달리패총의 예를 보면 원형과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나 기존 송국

138) AMS 분석결과를 참고하면 기원전 400년을 기준으로 역삼동계와 송국리계의 연대치가 분산되고 있다. 하지만 양 유적의 상하한 연대가 비슷한 정점에서 맞물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질적문화의 흡수·동화되는 시기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위 BP2400문제에 해당하는 측정치는 대체로 $2\sigma(95.4\%)$ 의 교정연대가 300~400년 정도의 넓은 폭으로 산출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李昌熙, 2008, 「放射性炭素年代測定法の原理と活用- 적용상의 문제점 », 『한국고고학보』68.

이창희, 2010, 「점토대토기의 실연대-세형동검문화의 성립과 철기의 출현연대」, 『문화재』제43권 제3호.

표24) 삼양동유적 송국리계 취락의 ^{14}C 연대 측정치

시료명	측정기간	시료종류	$\delta^{13}\text{C}(‰)$	^{14}C 연대 (^{14}C BP)	교정연대(cal BC) OxCal v3.10	
					2 σ	1 σ
A(I 구역)-01호(주)	2004	목탄	-27.52	2100 \pm 50	360~AD30	200~40
A(I 구역)-11호(주)	"	"	-29.8	2290 \pm 40	410~200	400~230
A(II-1구역)-02호(성)	"	"	-26.32	1960 \pm 50	100~AD220	40~AD120
A(III구역)-01호(주)	"	"	-21.52	2010 \pm 90	350~AD250	160~AD90
A(V 구역)-12호(주)	"	"	-30.61	2060 \pm 30	170~AD20	120~AD
A(V 구역)-20호(주)	"	"	-28.08	2020 \pm 60	180~AD130	100~AD60
A(V 구역)-07호(주)	"	"	-24.03	1950 \pm 50	60~AD220	AD~130
A(V 구역)-16호(주)	"	"	-28.5	2050 \pm 80	360~AD130	170~AD50
A(V 구역)-17호(주)	"	"	-20.29	2160 \pm 40	360~60	360~110
C(I 구역)-01호(주-1)	2008	"	-42.29	2520 \pm 60	800~410	790~540
C(I 구역)-01호(주-2)	"	"	-24.65	2670 \pm 50	930~770	895~795
C(III-4)-03호(주)	"	"	-26.22	2660 \pm 50	920~760	895~790
C(I 구역)-03호(웅)	"	"	-11.57	2250 \pm 50	400~200	390~210
C(I 구역)-04호(웅)	"	"	-8.33	2360 \pm 50	750~200	520~380
C(I 구역)-05호(웅)	"	"	-32.44	2220 \pm 50	400~170	380~200
C(I 구역)-07호(웅)	"	"	-34.13	2100 \pm 60	360~AD30	200~40
C(I 구역)-01호(토-1)	"	"	-7.80	2240 \pm 40	400~200	390~210
C(I 구역)-01호(토-2)	"	"	-14.66	3660 \pm 50	2200~1890	2140~1960
C(I 구역)-02호(토)	"	"	-11.00	2210 \pm 50	400~160	370~200
D-02호(주)	2008	"	-27.41	2140 \pm 50	360~40	350~90
D-03호(주)	"	"	-28.17	2420 \pm 50	760~390	730~400
D-04호(주)	"	"	-25.88	2290 \pm 50	490~190	410~230
D-06호(주-1)	"	"	-22.15	2370 \pm 50	750~360	520~380
D-06호(주-2)	"	"	-26.74	2380 \pm 50	760~370	540~390
D-06호(주-3)	"	"	-35.01	2400 \pm 50	760~390	720~390
D-06호(주-4)	"	"	-25.74	2380 \pm 50	760~370	540~390
D-07호(주)	"	"	-59.60	2180 \pm 80	400~40	370~160
D-01호(장)	"	"	-19.67	2450 \pm 50	770~400	750~410
D-02호(장)	"	"	-25.68	2250 \pm 50	400~200	390~210
D-04호(장)	"	"	-22.39	2300 \pm 40	420~200	410~230
D-01호(수)	"	"	-26.53	2290 \pm 50	490~190	410~230
D-02호(수)	"	"	-25.93	2290 \pm 50	490~190	410~230
D-소	"	"	-23.71	2380 \pm 40	740~380	520~390
E-01호(주-1)	"	"	-19.75	2110 \pm 50	360~AD10	200~50
E-01호(주-2)	"	"	-26.36	2060 \pm 50	200~AD60	170~AD
E-03호(주-1)	"	"	-20.66	2210 \pm 50	400~160	370~200
E-03호(주-2)	"	"	-28.63	2200 \pm 50	390~110	360~200
E-05호(주)	"	"	-23.88	2160 \pm 50	370~50	360~110
E-06호(주)	"	"	-40.99	2040 \pm 50	180~AD70	150~AD30
F-06호(주)	2009	"	-24.37	1950 \pm 50	60~AD220	20~AD130
F-07호(주)	"	"	-28.13	1940 \pm 50	50~AD220	AD~AD130
G-01호(주)	2011	"		2150 \pm 40	360~50	350~110
G-02호(주)	"	"		1920 \pm 40	AD~220	AD25~130
G-03호(주)	"	"		2110 \pm 40	350~30	190~50
G-06호(주)	"	"		2410 \pm 40	750~390	700~400

표25) 삼양동유적 역삼동단계 취락의 ^{14}C 연대측정치 현황(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소위 BP2400년 문제에 해당하는 연대치임)

유구	^{14}C 측정연대	보정연대(2 σ)	BC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B-01호(주)	2470 \pm 60	770~410							
B-07호(주)	2720 \pm 60	1010~790							
B-08호(주)	2460 \pm 50	770~400							
B-09호(주)	2630 \pm 50	910~590							
B-17호(주)	2640 \pm 60	930~550							
B-58호(수)	2420 \pm 60	760~390							
B-156호(수)	2460 \pm 60	770~400							
B-03호(소)	2410 \pm 50	760~390							
C(Ⅰ 구역)-01호(수)	2570 \pm 50	830~530							
C(Ⅰ 구역)-04호(수)	2520 \pm 50	800~410							
C(Ⅰ 구역)-08호(수)	2560 \pm 40	810~540							
C(Ⅰ 구역)-12호(수-1)	2560 \pm 50	820~520							
C(Ⅰ 구역)-12호(수-2)	2590 \pm 50	850~530							
C(Ⅰ 구역)-12호(수-3)	2530 \pm 50	810~410							
C(Ⅰ 구역)-13호(수)	2640 \pm 40	900~770							
C(Ⅰ 구역)-14호(수)	2500 \pm 50	790~410							
C(Ⅰ 구역)-19호(수)	2530 \pm 50	810~410							
C(Ⅲ-3구역)-05호(주)	2520 \pm 50	800~410							
C(Ⅲ-3구역)-01호(수)	2540 \pm 60	810~410							
C(Ⅲ-3구역)-09호(수)	2700 \pm 50	980~790							
C(Ⅲ-3구역)-01호(성)	2520 \pm 40	800~510							
C(Ⅲ-4구역)-05호(주)	2860 \pm 50	1210~900							
C(Ⅲ-4구역)-04호(수)	2770 \pm 50	1040~810							
C(Ⅲ-4구역)-09호(수)	2650 \pm 50	920~760							

표26) 삼양동유적 송국리단계 취락의 ^{14}C 연대측정치 현황(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소위 BP2400년 문제에 해당하는 연대치임)

유구	^{14}C 측정연대	보정연대(2 σ)	BC 700	600	500	400	300	200	100	AD 100	200
A(I 구역)-01호(주)	2100 \pm 50	360~AD30									
A(I 구역)-11호(주)	2290 \pm 40	410~200									
A(II-1)-02호(성)	1960 \pm 50	100~AD220									
A(III구역)-01호(주)	2010 \pm 90	350~AD250									
A(V 구역)-12호(주)	2060 \pm 30	170~AD20									
A(V 구역)-07호(주)	1950 \pm 50	60~AD220									
A(V 구역)-16호(주)	2050 \pm 80	360~AD130									
A(V 구역)-17호(주)	2160 \pm 40	360~60									
A(V 구역)-20호(주)	2020 \pm 60	180~AD130									
C(I 구역)-01호(주-1)	2520 \pm 60	800~410									
C(I 구역)-01호(주-2)	2670 \pm 50	930~770									
C(III-4구역)-03호(주)	2660 \pm 50	920~760									
C(I 구역)-03호(웅)	2250 \pm 50	400~200									
C(I 구역)-04호(웅)	2360 \pm 50	750~200									
C(I 구역)-05호(웅)	2220 \pm 50	400~170									
C(I 구역)-07호(웅)	2100 \pm 60	360~AD30									
C(I 구역)-01호(토)	2240 \pm 40	400~200									
C(I 구역)-02호(토)	2210 \pm 50	400~160									
D-02호(주)	2140 \pm 50	360~40									
D-03호(주)	2420 \pm 50	760~390									
D-04호(주)	2290 \pm 50	490~190									
D-06호(주-1)	2370 \pm 50	750~360									
D-06호(주-2)	2380 \pm 50	760~370									
D-06호(주-3)	2400 \pm 50	760~390									
D-06호(주-4)	2380 \pm 50	760~370									
D-07호(주)	2180 \pm 80	400~40									
D-01호(대)	2450 \pm 50	770~400									
D-02호(대)	2250 \pm 50	400~200									

유구	¹⁴ C측정연대	보정연대(2σ)	BC	700	600	500	400	300	200	100	AD	100	200
D- 4호(대)	2300±40	420~200											
D- 1호(수)	2290±50	490~190											
D- 2호(수)	2290±50	490~190											
D- 소	2380±40	740~380											
E- 1호(주-1)	2110±50	360~AD10											
E- 1호(주-2)	2060±50	200~AD60											
E- 3호(주-1)	2210±50	400~160											
E- 3호(주-2)	2200±50	390~110											
E- 5호(주)	2160±50	370~50											
E- 6호(주)	2040±50	180~AD70											
F- 6호(주)	1950±50	60~AD220											
F- 7호(주)	1940±50	50~AD220											
G- 1호(주)	2150±40	360~50											
G- 2호(주)	1920±40	AD~220											
G- 3호(주)	2110±40	350~30											
G- 6호(주)	2410±40	750~390											

- 범례 -

A: 삼양동유적 I~V지구(제주대학교박물관)
 B: 삼화지구 가 I 지역(국립제주박물관)
 C: 삼화지구 나지역(호남문화재연구원)
 D: 삼양동 1249-7번지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E: 삼양동유적 1665-1번지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F: 삼양동 2136-9번지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G: 삼양동 1662-17번지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주: 주거지
 대: 대형 수혈유구
 수: 수혈유구
 소: 소토유구
 성: 소성유구
 웅: 웅관묘
 토: 토광묘

리형 취락이 조성된 곳에서는 빈약하게 확인되고 있다.

환언하자면 송국리단계 말기와 원형점토대문화 초기의 양상과 같이 역삼동단계 말기~송국리단계 초기의 고고학적 양상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혀 이질적인 문화의 유입은 한반도의 문화전파 혹은 인구이동에 의한 파급과 연동되어 나타나겠지만 흡수·동화되어 전환되는 과정에는 상당한 진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재지적문화와 이질적문화의 상호 충돌을 피하고 양존하기 위해 도래한 이질적문화 집단이 결국 기왕의 취락집단과 공간적 범위를 달리하여 존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삼양동유적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보된 AMS연대를 분석한 결과 앞서 살펴본 내용과 부합되는

자료가 도출된다¹³⁹⁾. 먼저 역삼동단계의 취락에서 산출된 연대치를 보면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유구에서는 대체로 기원전 800년대 이후의 연대가 주로 산출된다. 반면 혼암리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되는 유구에서는 기원전 800년을 상회하는 연대치가 도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 토기의 형식간 선후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역삼동식토기의 상한연대가 기원전 9세기대 이전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모리유적의 혼암리식토기는 당연히 그 상한연대를 기원전 9세기대 이전으로 편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¹⁴⁰⁾. 즉 제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양상은 결국 한반도 토기문화의 변화양상 및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지리적 입지로 인해 그 중심지역과는 성행시기의 편년차이가 다소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양 지역에서 동일한 토기가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선행지역의 소멸시기 이전을 재지의 상한연대로 채택하는 것이 양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역삼동계 취락에서 산출된 14C 자료인 표25)를 참고하면 하한연대 역시 기원전 400년대 이후로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 따라서 역삼동식토기의 하한 역시 기원전 5세기 이하로 내려보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삼양동유적 역삼동단계의 경우 단순각목문토기(42.8%, 304점)와 무문양토기(43.2%, 307점)의 점유율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복합문과 단순 공렬문의 하한연대는 기원전 5세기 이전으로 편년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각목문토기와 무문양의 직립구연토기가 가장 늦은시기까지 잔존하며 복합문과 공렬문토기는 이 보다 이른시기에 소멸하였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의 역삼동단계 취락은 적어도 기원전 8~6세기경을 그 중심연대로 비정할 수 있다.

반면 송국리계 취락에서 산출된 14C 자료인 표26)을 참고하면 대체로 기원전 400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치 역시 필자가 전고에서 논의한 편년관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이다¹⁴¹⁾. 재론하면 삼양동유적의 송국리단계 취락은 기원전 5세기 이후에 조성되기 시작하여 기원전 4~2세기대 매우 성행하고 기원전 1세기대 이후 급격하게 소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동시기 지석묘 축조현황을 살펴보면 삼양동유적의 경우 대부분 1~3식에 해당하는 이른 단계의 형태가 확인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삼양동유적은 상모리유적이 소멸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역삼동식토기 말기 단계의 취락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취락이 사라진 후에 짧은 시기의 공백기가 있었고 다시 송국리문화의 영향으로 대규모 취락이 조성된다. 따라서 양 취락간의 계승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삼양동유적은 역삼동계→송국리계취락으로의 전환과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양 취락이 공간을 달리하여 조성되었음을 살펴보았다¹⁴²⁾. 특히 분묘구역을 선행취락의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전대의 취락과는 단절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송국리형취락이 조성된 후 주거공간과 사후공간을 분리하고 이에 따라 선행하는 취락공간에 분묘구역을 조영하는 것을 통해 취락간 구분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9) 14C 측정결과 B-4호(주), C(1 구역)-1호(토-2), F-1호(주)는 유적의 성격과 전혀 다른 연대치가 산출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40) 상술한 편년관은 남강유역의 편년과 대부분 일치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한반도 남부지역과의 연관성을 논의할 수 있다.
高旻廷, 2003, 앞의 논문.
董眞淑, 2003, 앞의 논문.

141) 삼양동유적의 송국리단계 취락의 편년관은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金慶柱, 2010, 앞의 논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1, 앞의 책.

142) 양 취락이 공간을 달리하여 조성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선행취락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생업환경의 차이 등을 논의할 수 있다.

7. 제주지역 송국리형 취락 단계의 묘제양상¹⁴³⁾

1) 지석묘¹⁴⁴⁾

제주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송국리형취락의 범위내에 위치한 지석묘의 형식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27)과 같다.

표27)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 주변 지석묘 분포현황

유적명 \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계
삼양동유적	1	1	1	0	0	0	3
용담동유적	0	3	0	1	0	5	9
외도동유적	8	3	2	0	1	5	19
하귀리유적	0	3	0	1	0	0	4
곽지리유적	0	1	0	0	0	0	1
고산리유적	0	1	0	0	0	0	1
예래동유적	1	5	0	0	0	0	6
화순리유적	0	0	0	0	0	1	1
계	10	17	3	2	1	11	44

상기의 표27)을 참고하면 1, 2, 6형식이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늦은시기에 최고조로 발전된 형태에 해당하는 5~6형식은 용담동, 화순리, 외도동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반면 1형식은 삼양동, 예래동, 외도동 등에서 확인된다. 특히 삼양동과 예래동유적에서는 1~3형식만 확인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이른 단계의 취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⁴⁵⁾.

표28) 제주지역 송국리형취락과 지석묘 형식별 비교

유적명 \ 형식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삼양동유적	●	●	●			
용담동유적		●		●		●
외도동유적	●	●	●		●	●
하귀리유적		●		●		
곽지리유적		●				
고산리유적		●				
예래동유적	●	●				
화순리유적						●

143) 삼양동 2136-9번지유적에서 석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소속시기와 성격을 알 수 없어 본고에서는 송국리 단계의 묘제에서 일단 제외하였다.

144) 현재 제주지역에 분포하는 지석묘의 숫자는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송국리형주거지가 확인된 유적 주변에 축조된 지석묘는 44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잔존하는 지석묘를 통해 취락의 성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시기적 선후관계는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145) 제주도 지석묘는 아직까지 조사례가 많지 않아 형식학적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청규에 따르면 매장주체부가 지하에 위치한 개석식이 이른시기에 해당하고 반대로 지상에 위치하는 위석식이 늦은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李清圭, 1995, 『濟州島 考古學研究』, 268~270쪽, 學研文化社). 따라서 1~3형식은 대체로 지하식이고 4~6형식은 지상식에 해당한다. 하지만 5~6형식은 지석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판석조의 석재가 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전 형식에 비해 시기적 차이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용담동 6호 지석묘는 판석조의 지상위석식에 해당하는데 6형식 중 가장 발달된 형식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⁴⁶⁾. 따라서 송국리계 취락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제주지역에 송국리문화가 유입된 이후 발전과정을 거친 후 지역화되면서 차츰 외도동식주거와 토기문화로 전화되어지는데 아마도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지석묘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외도동과 하귀리유적은 물론이고 용담동유적에서도 외도동식주거지와 함께 외도동식토기가 사용되는 단계의 석조우물이 확인된 바 있다¹⁴⁷⁾.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용담동과 외도동 일대에 동시기 취락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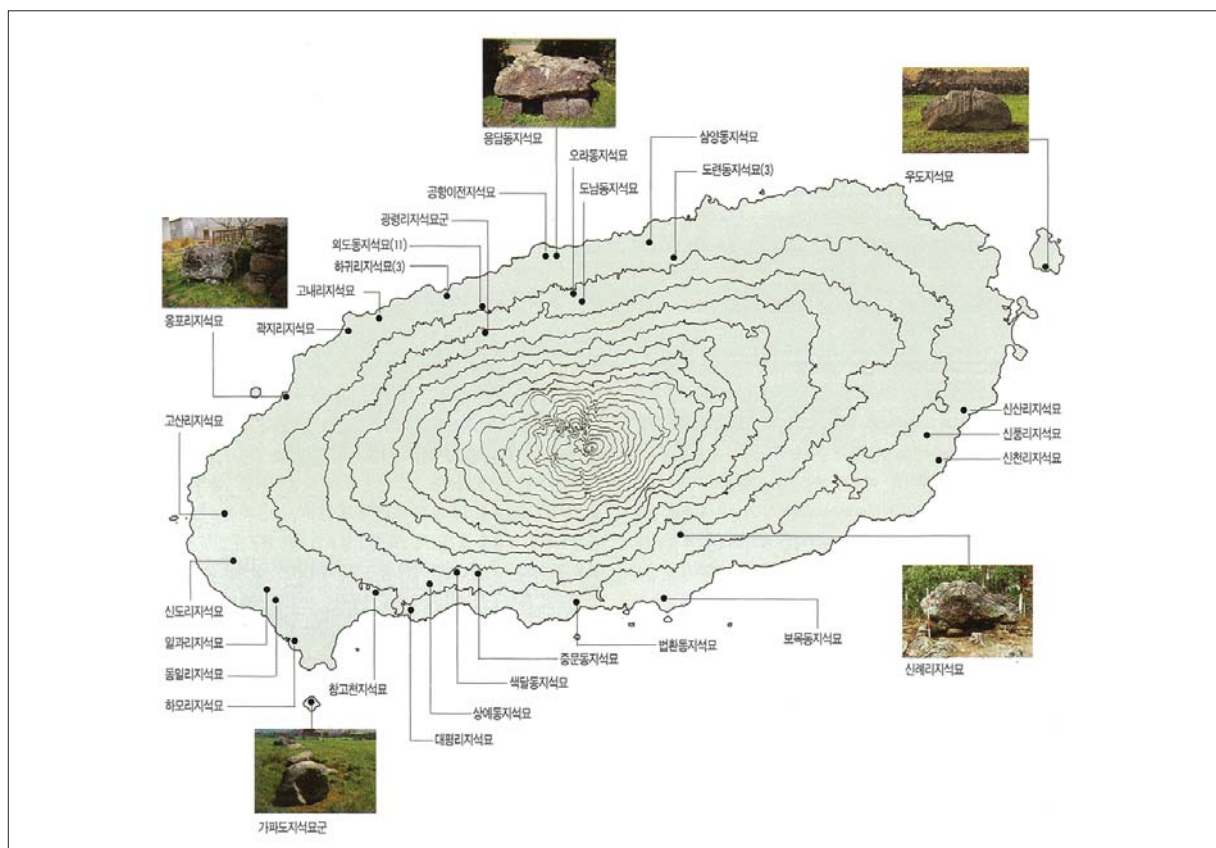
삽도 30. 광령리 지석묘(6형식)



삽도 31. 화순리 지석묘(6형식)



삽도 32. 용담동 지석묘(6형식)



삽도 33. 제주도 지석묘 분포도(국립제주박물관, 2000, 『濟州의 歷史와 文化』에서 전재)

146)李清圭, 2005, 앞의 책.

147)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제주 용담동 2696-2번지 연립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위원회 검토 자료집」.

또한 광령리 신발건 고인돌의 경우 장벽과 단벽에 4매의 판석을 활용하여 매장주체부인 석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상석을 얹은 형태로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된 예가 없어 주목된다. 이 지석묘 역시 판석조의 석재를 활용하여 매장주체부를 조성한 점으로 볼 때 6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석조의 지석묘는 용담동, 광령리, 화순리, 대평리 등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전술한 지역에 송국리문화의 영향이 늦은시기 까지 잔존하고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평리유적의 경우 동서쪽에 화순리와 예래동유적 등 대규모 송국리계취락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취락의 네트워크 상에 연동되는 취락이 존재하고 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¹⁴⁸⁾.

한편 제주지역의 지석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해안변을 따라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특히 용담동, 외도동, 일파리, 예래동 등 대규모 취락이 조성된 지역과 병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석묘가 송국리단계에 해당하는 중심 묘제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송국리형 취락구조가 제주지역에 유입된 이후 재지화되는 과정에서 지석묘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토광묘¹⁴⁹⁾

표29) 제주지역 토광묘 현황(괄호안은 잔존규모)

호수	평면형태	형식	장축방향	규모(cm)			목관유무	특징	출토유물
				장축	단축	깊이			
A-1호	말각장방형	1	N44°W	220	58	28	유	2호와 병렬적 축조	유경식석검
A-2호	말각장방형	1	N44°W	192	62	42	유	1호와 병렬적 축조, 총진토	
A-3호	말각장방형	1	N-S	120	64	35	?		유리구슬, 원형점토대토기 발
A-4호	말각장타원형	1	E-W	179	72	32	?		원형점토대토기 발
B-1호	말각장방형	1	N82°W	230	84	54	?		
B-2호	말각장타원형	1	N32°E	215	87	29	?		
B-3호	말각장방형	1	N63°W	253	98	68	유	대형석재 적석	
B-4호	장타원형	1	N35°E	243	93	29	?		
B-5호	장타원형	1	N24°W	268	131	36	?		
C-1호	장타원형	1	N-S	(150)	101	42	?		
D-1호	장타원형	1	N18°E	149	53	56	?		
D-2호	말각장방형	1	N72°E	200	69	17	유	총진토	
D-3호	말각장방형	2	N77°E	237	81	73	유	이단굴광, 총진토	삼양동식토기, 방추차
D-4호	말각장방형	2	N-S	146	84	37	유	이단굴광, 총진토, 요강내 소형 심발 부장	삼양동식토기 심발
E-1호	장방형	1	N18°E	228	76	37	유	대형 할적 적석, 양 장단벽 구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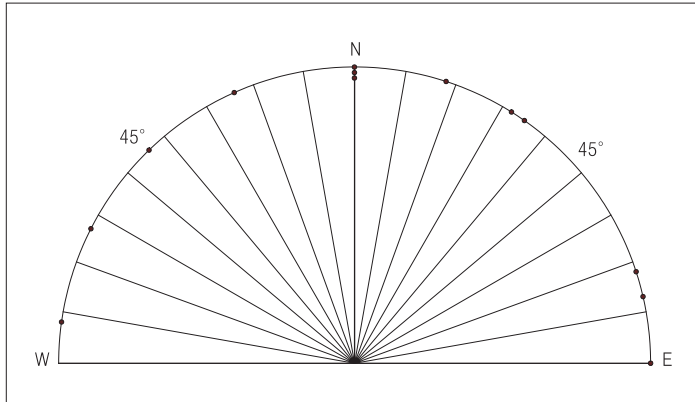
- 범례 -

- A: 제주 삼화지구 가 I 지역(국립제주박물관)
- B: 제주 삼화지구 나 지역(호남문화재연구원)
- C: 도련동 웅관묘(호남문화재연구원)
- D: 도련동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 E: 하귀리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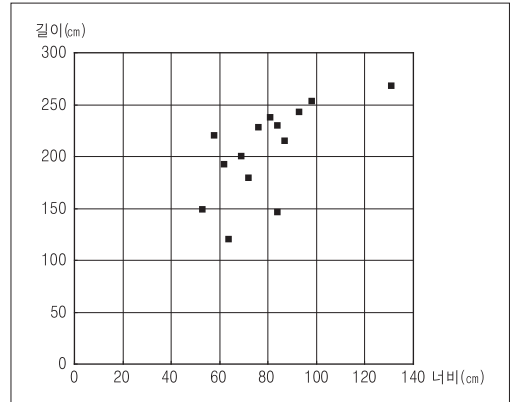
- 묘광분류 -

- 1형식 : 일단굴광
- 2형식 : 이단굴광

148) 대평리 지석묘가 위치한 일대에는 적갈색경질토기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송국리계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제주문화예술훈단, 2011, 『중보 서귀포시 문화유적 분포지도』).



삽도 34. 제주도 토광묘의 장축방향 분포도



삽도 35. 제주도 토광묘의 장단축비 분포도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송국리형 취락 단계의 토광묘는 14기가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13기가 삼양동 취락에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취락의 주요 묘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송국리단계의 토광묘는 취락의 중심부에서 벗어난 외곽에 주로 축조하고 있다. 더불어 지석묘와 옹관묘 역시 송국리단계에 선행하는 역삼동계 취락 내부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주거구역과 분리되어 축조된다.

먼저 삼양동취락에서 조사된 토광묘를 살펴보면 평면형태는 주로 말각장방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장축방향은 대체로 남북장축에 가깝게 축조되고 있다. 토광묘의 규모를 보면 3기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장축 224cm, 단축 79cm, 깊이 40cm 정도이다.

한편 묘광의 형태를 보면 일단굴광(1형식)과 이단굴광(2형식)으로 구분되는데 D-3호와 4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단굴광으로 축조하였다. 특이한 점은 하귀리 토광묘의 양쪽 장단벽 상면에 구를 설치한 점이다. 아마도 목관을 안치하고 고정하기 위해 조성했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⁴⁹⁾. A-1·2호는 장축방향이 일치하고 규모 역시 비슷하며 병렬적으로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혈연관계에 있는 묘제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2호 토광묘와 함께 목관이 설치된 토광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2호에서 유경식석검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송국리단계의 묘제임이 분명하다. 즉 전술한 2기의 토광묘는 적어도 삼양동 유적에서 송국리단계의 취락에 해당하는 동시기 토광묘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C-2·3호 토광묘의 경우에도 장축방향이 거의 일치하고 충진토가 확인되며 주변에 배치된 점을 고려한다면 역시 동일시기의 혈연적 관계에 해당하는 묘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A-3·4호 토광묘의 경우는 장축방향이 정반대로 축조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동일한 기형의 원형점토대토기 발이 출토된 점으로 볼 때 역시 동시기 매장풍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축방향이 역방향인 점은 추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D-4호 토광묘 출토 심발형토기는 삼양동 1249-7번지유적 3호주거지에서 유사한 형식의 토기가 출토된 바 있어 동시기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¹⁵¹⁾.

상술한 바와 같이 삼양동 일대에 축조된 토광묘는 모두 13기가 확인되었다. 축조방식과 규모면에서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장유물을 살펴보면 유경식석검과 함께 원형점토대토기 발이 출토되

149) 토광묘는 직장, 목관, 목곽토광묘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구축재질에 따라 석재나 목재냐에 따라 다양한 세부형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韓玉民, 2000, 「全南地方 土壙墓 研究」, 목포대학교 석사논문, 15~17쪽). 도련동 이단굴광묘와 하귀리 구설치 토광묘를 통해 목관의 사용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목관의 안치 여부가 분명치 않아 본고에서는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150) 湖南文化財研究院, 2010, 앞의 책, 322쪽.

151) 삼양동 1249-7번지유적의 3호주거지는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 해당하는데 삼양동식토기가 주체를 이루고 있다. AMS 분석결과 교정연대(cal BC, 2σ)는 760~390으로 산출되었다.

는 점으로 미루어 동시기 매장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삼양동 일대에서 확인되는 토광묘는 동유적의 송국리형취락 단계에 해당하는 묘제임을 알 수가 있다.

3) 옹관묘

표30) 제주지역 옹관묘 현황(괄호안은 잔존규모)

호수	평면형태	장축방향	형식	형태		묘광규모(cm)			옹관규모(cm)		특징
				매장	축조	장축	단축	깊이	길이	폭	
A-1호	말각장방형	N36°W	I A	합구식	橫置	96	57	48	92	40	
A-2호	타원형	N83°W	I A	〃	〃	(86)	66	14	(69)	32	
A-3호	말각장방형	N58°W	I B	〃	〃	148	72	26	(110)	27	
A-4호	타원형	N58°W	I A	〃	〃	167	81	26	(74)	25	
B-1호	말각장방형	N83°E	I A	〃	橫置	124	70	17	85	50	
B-2호	타원형	N89°E	I A	〃	〃	134	66	24	(98)	44	
B-3호	타원형	N86°W	I A	〃	〃	138	76	43	90	39	
B-4호	말각장방형	N15°E	I A	〃	〃	112	56	27	78	43	
B-5호	타원형	N-S	I B	〃	〃	98	64	27	80	43	
B-6호	타원형	N-S	I B	〃	〃	123	69	22	83	43	
B-7호	타원형	N-S	I B	〃	斜置	110	77	28	62	35	
B-8호	타원형	N14°E	I C	〃	橫置	104	57	35	73	36	
B-9호	원형		I B	단옹식	倒置	102	85	47	(39)	30	
C-1호	타원형	N76°E	I A	합구식	橫置	(83)	84	40	(68)	45	
D-1호	타원형	N70°E	I A	〃	〃	115	76	26	98	44	
E-1호	원형		II B	〃	〃	208	180	10	42	28	
F-1호		N-S	II A	〃	〃				70	33	
G-1호	말각장방형	N68°W	II A	〃	〃	130	110	24	83	21	
G-2호	원형		II A	단옹식	直置	158	158	36	(28)	28	

- 범례 -

- A: 제주 삼화지구 가 I 지역(국립제주박물관)
 B: 제주 삼화지구 나지역(호남문화재연구원)
 C: 도련동 옹관묘(호남문화재연구원)
 D: 도련동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E: 하귀리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F: 화순리유적(제주문화예술재단)
 G: 용담동유적(제주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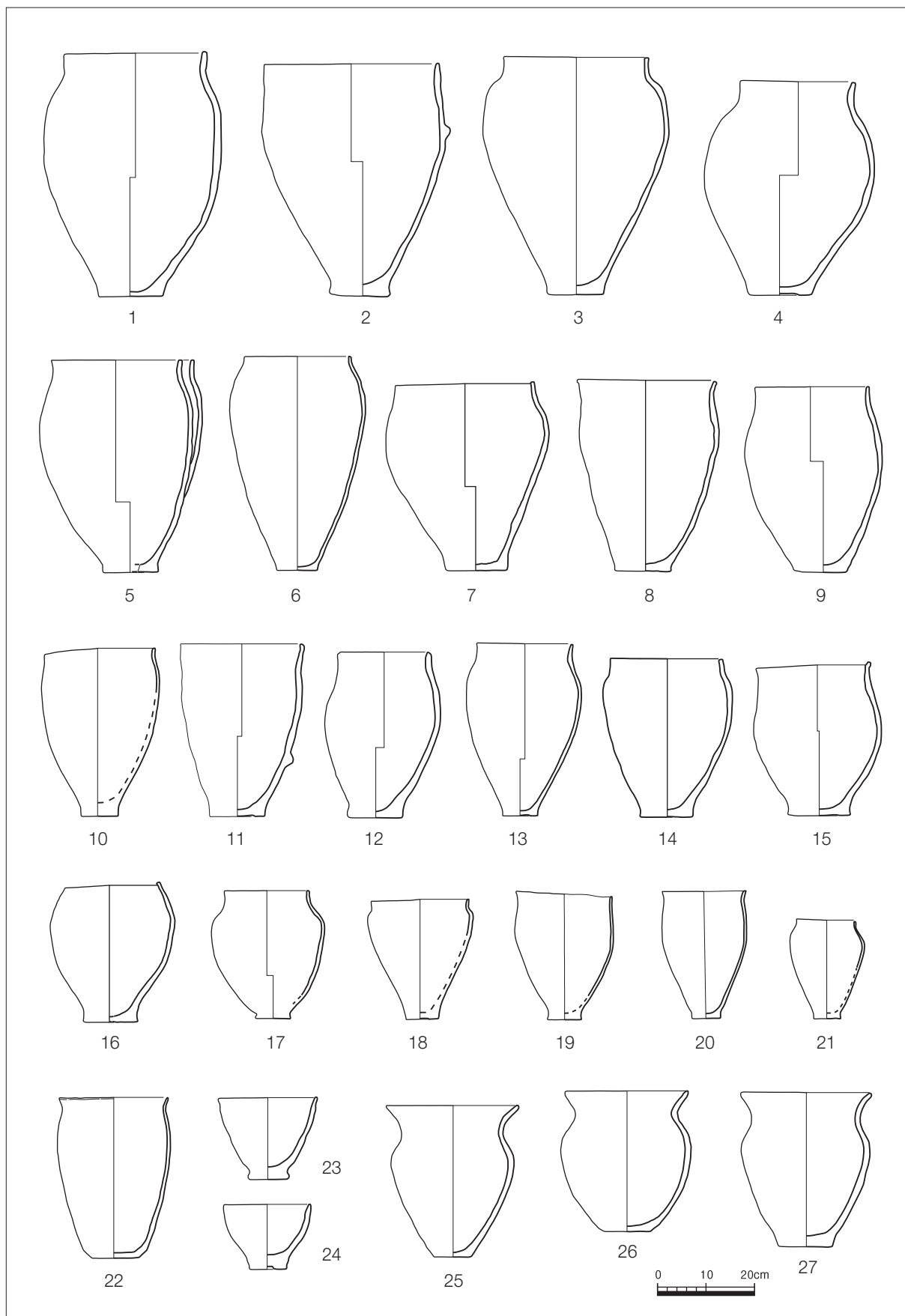
1) 수혈식(I)

- ① 위석보강(I A): 합구식옹관 주위로 보강석을 돌린 경우
 ② 적석보강(I B): 합구식옹관의 양단 저부 하단이나 일부에만 적석을 한 경우
 ③ 무시설(I C): 적석보강 없이 설치

2) 무수혈식(II)

- ① 위석보강(II A): 합구식옹관 주위로 보강석을 돌린 경우
 ② 무시설(II B): 적석보강 없이 설치

상기한 표30)에 따르면 삼양동단계에는 대체로 수혈을 굴광한 다음 적석한 후 옹관을 안치하여 축조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옹관을 안치하는 방법으로는 양단 저부의 하단부에 적석하여 옹관을 고정하거나 상면 전체적으로 적석하여 안치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옹관을 안치한 후 주변으로 적석을 돌려 고정하는 축조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축조방법을 알 수 있는 19기의 옹관묘 중에서 매장방법을 살펴보면 단옹식은 2기에 불과하고 합구식은 17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합구식옹관 매장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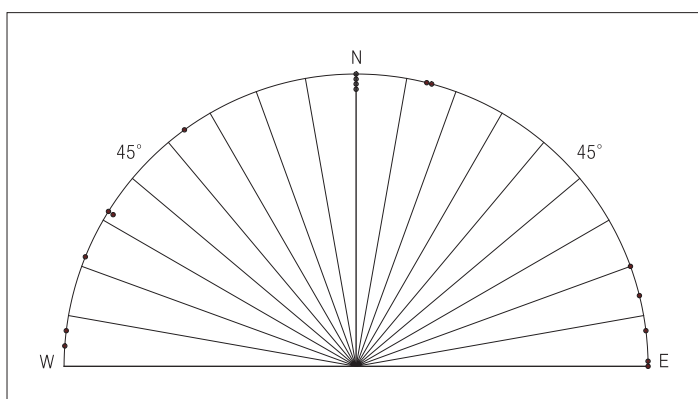
삽도 36. 제주지역 출토 옹관 (1~21:삼양동, 22:화순리, 23~24:하귀리, 25~27:용담동)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²⁾. 또한 축조방법을 보면 합구식인 경우 횡치가 일반적이며 단옹식은 직치와 도치에 의한 축조가 활용되고 있다¹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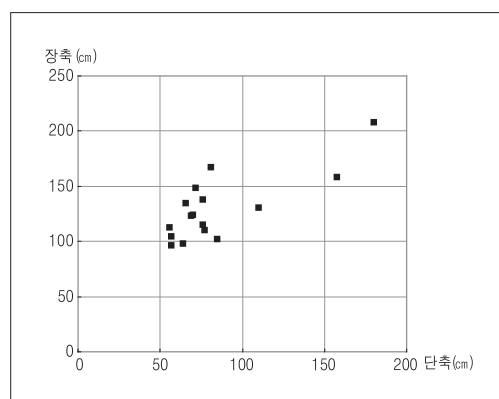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옹관묘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삼양동유적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삼양동유적에서 조사된 옹관묘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타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변천양상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옹관묘는 대체로 완만한 경사면을 따라 등간격을 두고 단독으로 조성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묘역을 조성한 경우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옹관묘와 옹관묘간 등간격을 유지하면서 축조한 점을 고려한다면 동시기 분묘공간으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삼화 나지역 I 구역의 경우 옹관묘가 조성된 지역으로는 다른 유구가 거의 배치되지 않는 점을 보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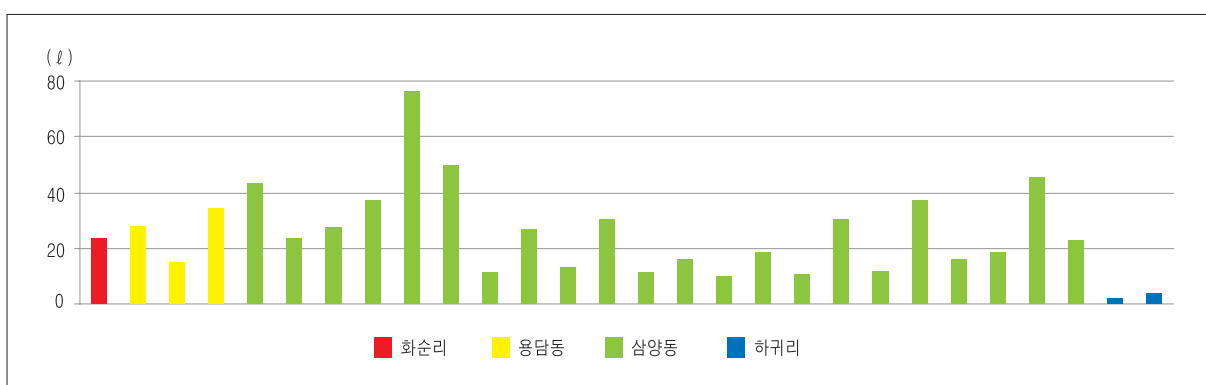
먼저 삼양동유적에서는 모두 15기의 옹관묘가 확인되었는데 모두 수혈식 묘광을 굴착한 후에 옹관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축조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옹관을 축조하기 위해서 묘광의 상면에 적석을 깔고 옹관을 안치하여 고정한 후에 마무리하는 방법과 합구식 옹관의 양단 저부 하단부를 적석 고정하여 안치하는 방법, 합구식 옹관의 주위를 적석하여 위석식으로 안치하는 방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B-



삽도 37. 제주도 옹관묘의 장축방향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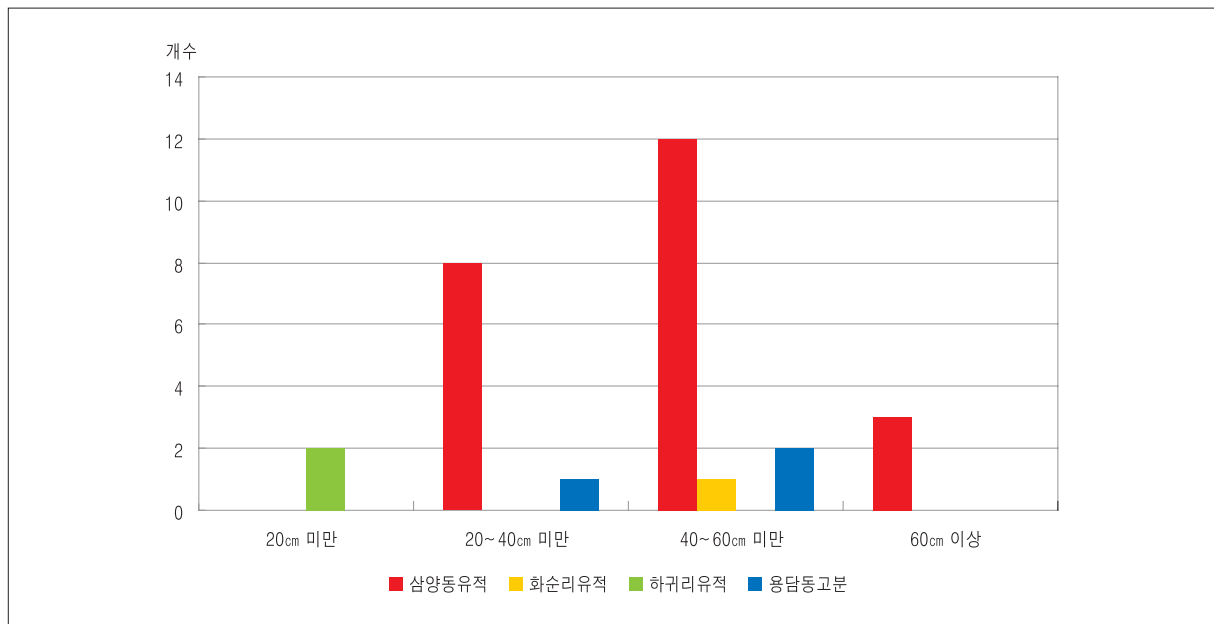
삽도 38. 제주도 옹관묘의 장단축비 분포도



삽도 39. 제주도 옹관의 체적분석표

152) 합구식옹관은 철기시대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천택, 2009, 「3~5세기 중부지방 옹관묘에 대한 고찰」, 53쪽,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3) 직치와 사치는 피장자를 신전장 할 수 없으나 횡치는 신전장이 가능한 묘제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횡치 옹관묘는 철기 문화의 도래와 관련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徐始男, 2003, 「嶺南地域 三韓・三國時代 幼兒墓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삽도 40. 제주도 옹관의 기고 분석표

8호와 같이 묘곽을 조성한 후 합구식 옹관을 막바로 안치하여 마무리한 경우도 확인된다. 반면 합구식 옹관의 축조방법을 보면 전술한 바와 같이 횡치가 일반적이며 단옹식은 옹관을 직치한 후 주위로 적석을 돌려 고정하는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합구식옹관을 횡치하기 위해 주옹과 부옹을 합구하는 경우에는 구연부를 파쇄하는 예가 확인된다¹⁵⁴⁾.

한편 묘곽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평면형태는 대체로 말각 장방형계의 수혈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묘곽의 규모는 장축 96~167cm, 단축 56~85cm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축은 대략 1~1.5m, 단축은 0.6~0.7m가 일반적인 규모에 해당한다. 옹관의 합구된 전체길이를 살펴보면 A-3호가 110cm 이상으로 가장 크고 반면 B-7호가 62cm로 가장 작은 편이다¹⁵⁵⁾.

옹관묘의 장축방향을 보면 먼저 삼화 나 I 지역은 동서장축인 반면 삼화 가 I 지역은 북서남동향으로 조성된 점으로 미루어 옹관묘의 축조시기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합구식 옹관묘 중에서 A-3호와 4호는 장축방향이 동일하고 규모 역시 비슷한 점을 고려한다면 혈연관계 및 동시기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더불어 B-5·6·7호 옹관묘 역시 장축방향과 축조방식을 보면 동시기 축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시기를 달리하면서 옹관묘가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삼양동유적 옹관묘는 특별한 묘역을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공간을 분묘구역으로 인식하고 축조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삼화지구와 금번 도련동유적에서 확인 되는 옹관묘를 참고할 때 송국리단계의 삼양동취락내에서 분묘 조성공간이 여러곳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묘공간은 주거중심 공간과는 별도로 분리된 외곽에 조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송국리단계의 취락은 주거와 생활공간, 분묘공간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4) 영남지방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옹관묘 역시 단옹식일 때는 할석고임의 경사면 굴착이 많고 합구식은 상광하협의 할석고임을 하거나 옹관의 합구삽입을 위해 구연부를 의도적으로 파쇄하는 예가 많다(李春先, 2010, 「영남지방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의 변천양상」, 107쪽,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5) B-7호는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옹관묘 중에서 유일하게 축조방식상에서 사치된 형태이다. 즉 주옹을 안치한 후 부옹의 저부 하단에 할석을 깔고 합구시킨 형태이다. 따라서 부옹이 주옹에 합구된 길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짧게 나타나고 있다(湖南文化財研究院, 2008a, 앞의 책, 59~60쪽).

반면 화순리와 용담동유적에서 확인된 옹관묘는 전술한 삼양동유적과 달리 적석묘역을 조성한 후 옹관을 안치하는 형태로 조성되어 대조적이다. 화순리유적의 경우에는 매장주체부가 조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묘역의 석렬 외곽에 잇대어 매장형태로 3기의 옹관이 안치된 형태이다¹⁵⁶⁾. 또한 용담동유적 역시 전반적으로 적석묘역을 조성한 후에 경계석렬을 두르고 그 외곽으로 6기의 옹관이 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⁵⁷⁾.

따라서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적석묘역을 조성하고 경계석렬을 배치한 후에 옹관묘를 안치하는 방식에서는 양 유적이 동일한 축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서 살펴본 삼양동유적의 옹관묘 축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삼양동유적의 옹관묘는 일정한 묘역공간내에 단독묘 형태의 분묘조성이 이루어진 반면 화순리와 용담동유적은 정해진 공간에 적석묘역을 구획하여 이와 연동된 부속공간에 옹관을 배치하는 복합묘 매장방식을 활용하는 차이가 있다¹⁵⁸⁾. 이와 같은 매장방식의 차이는 시간적 변화양상으로 간취되는데 단독묘의 옹관으로는 주로 삼양동식토기가 대용 옹관으로 사용되었다. 반면 복합묘의 옹관은 외도동식토기와 팍지리식토기가 사용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적 선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옹관묘는 단독묘→복합묘 방식으로 변화되며 그 변화의 획기는 결국 화순리단계인 기원 1~2세기경으로 파악된다.

한편 하귀리 II구역 68호 수혈유구 출토 대형옹(도면 775번), 87호 수혈유구 출토 대형옹(도면 894번), 88호 수혈유구 출토 대형옹(도면 895번)은 저부의 돌기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동체 최상위에서 급격하게 내경한 후 강하게 외반되는 기형으로 형태상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대형옹은 전남지역에서 확인되는 전용옹관과 형식상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 주목된다. 이영철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옹관을 1형식 옹관으로 구분하고 3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시기로 설정하고 있다¹⁵⁹⁾.

오동선은 I C형으로 분류한 후 4세기 전~중반경으로 편년하고 있다¹⁶⁰⁾. 따라서 하귀리유적 II구역 68호 출토 대형옹은 3세기 중엽~4세기 중엽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 결과 외도동식토기와 동반 출토되는 외래계토기를 살펴보면 편구원저단경호와 이중구연호¹⁶¹⁾ 등 호남지역에서 3~4세기대 성행했던 토기가 확인되는 점을 보면 이를 반증하고 있다¹⁶²⁾. 특히 68호 수혈유구의 경우 벽체에 적석을 한 석조우물에 해당한다. 우물의 내부에서는 외도동식토기가 다량 출토되어 역시 외도동단계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8호 수혈유구의 경우에도 벽체에 적석을 한 석조우물로 추정되는데 출토된 토기류는 역시 외도동식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 조사가 이루어진 외도동 일대에 대한 조사에서 석조우물이 다수 확인된 점을 고려한다면 제주지역에서 이러한 석조우물이 성행하는 단계는 외도동단계로 추정된다¹⁶³⁾.

156) 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앞의 책, 106~108쪽.

157) 濟州大學校博物館, 1989, 『龍潭洞 古墳』.

158) 박수현, 2010, 「제주도의 옹관묘」, 『한국의 옹관묘』, 130~131쪽.

159) 李映澈, 2001, 「榮山江流域 甕棺古墳社會의 構造 研究」, 31쪽,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낙중 역시 1형식의 옹관은 3세기 중엽 이후 등장하여 2형식이 등장하는 3세기 후엽 이후까지 계속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金洛中, 2009, 「榮山江流域 古墳 研究」, 99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0) 吳東璫, 2008, 「湖南地域 甕棺墓의 變遷」, 『湖南考古學報』30輯, 126쪽.

161) 최근 제주고고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외도동유적 발굴조사 결과 연질과 경질계의 이중구연호가 출토되었는데 필자가 직접 실견한 바 있다.

162) 徐賢珠, 2006, 앞의 책.

163) 최근 용담동 2696-2번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모두 4기의 석조우물이 확인되었다. 특히 3호 우물에서는 대형토기편이 정지된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필자가 실견한 결과 외도동식토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외도동과 하귀리, 용담동 등 제주지역에서 확인된 석조우물은 외도동단계에 성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고고학연구소, 2011, 앞의 자료.

표31) 제주지역 옹관묘 출토 옹관의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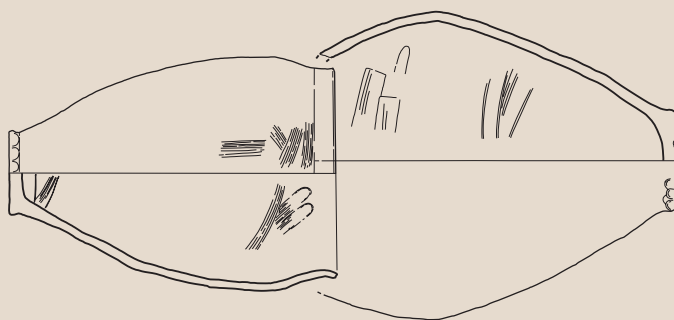
순번	유적	유물	기고(cm)	구경(cm)	동최대경(cm)	저경(cm)	체적(l)
1	화순리유적	1호옹관	45.4	31.1	32.2	13.2	23.3
2	도련동유적	1호옹관(대옹)	59.5	40.0	45.7	15.6	43.7
3	도련동유적	1호옹관(소옹)	45.0	30.0	38.5	12.4	23.4
4	용담동고분	1호옹관(대옹)	45.6	39.9	37.5	10.8	27.8
5	용담동고분	1호옹관(소옹)	34.2	30.3	31.6	12.0	15.1
6	용담동고분	6호옹관	48.8	40.7	40.6	16.6	34.3
7	삼화나 I 지역	1호옹관	51.2	29.7	37.3	13.2	37.1
8	삼화나 I 지역	2호옹관	75.6	36.9	48.1	13.9	76.1
9	삼화나 I 지역	3호옹관(대옹)	60.9	34.0	40.6	12.3	49.4
10	삼화나 I 지역	3호옹관(소옹)	39.3	24.2	29.1	11.2	11.1
11	삼화나 I 지역	4호옹관(대옹)	49.1	36.9	38.6	12.7	26.3
12	삼화나 I 지역	4호옹관(소옹)	36.8	25.6	25.7	11.6	12.9
13	삼화나 I 지역	5호옹관(대옹)	49.6	30.2	38.8	11.6	30.1
14	삼화나 I 지역	5호옹관(소옹)	33.8	24.0	27.7	11.2	11.4
15	삼화나 I 지역	6호옹관(대옹)	39.9	29.5	34.8	13.0	16.1
16	삼화나 I 지역	6호옹관(소옹)	29.2	20.0	26.7	11.6	9.7
17	삼화나 I 지역	7호옹관(대옹)	40.8	28.9	29.8	12.0	18.9
18	삼화나 I 지역	7호옹관(소옹)	32.1	24.5	27.4	13.3	10.5
19	삼화나 I 지역	8호옹관(대옹)	44.5	24.0	35.5	12.7	30.5
20	삼화나 I 지역	8호옹관(소옹)	35.4	18.7	24.6	11.6	11.4
21	삼화가 I 지역	1호옹관(대옹)	54.0	36.6	40.3	12.0	37.3
22	삼화가 I 지역	1호옹관(소옹)	38.3	31.4	33.9	10.4	16.3
23	삼화가 I 지역	2호옹관	46.0	34.0	31.6	12.5	18.8
24	삼화가 I 지역	3호옹관	60.8	40.2	40.3	13.3	45.5
25	삼화가 I 지역	4호옹관	48.3	29.0	35.7	13.0	23.0
26	도련동유적	1호옹관(대옹)	48.2		46.4	14.7	
27	도련동유적	1호옹관(소옹)	48.8	31.2	35.9	12.1	27.1
28	하귀리II구역	1호옹관(대옹)	19.1	23.4		9.8	3.5
29	하귀리II구역	1호옹관(소옹)	15.3	20.3		8.8	2.1

마지막으로 제주지역 출토 옹관의 체적을 살펴보면 표31)과 같다. 삼양동유적 출토 옹관은 대체로 9.7~76.1 l 로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중 주옹(대옹)은 16.1~76.1 l 이고 부옹(소옹)은 9.7~23.0 l 에 해당한다. 특히 부옹은 23.0 l 인 1점을 제외하면 16 l 이하에 모두 포함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옹관묘에 사용된 토기는 실생활 토기를 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주)



VI. 맺음말



VI. 맺음말

삼양동유적은 사적 41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유적의 성격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삼양동유적 주변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여 유적의 성격과 편년이 어느정도 밝혀지게 되었다. 즉 송국리문화 단계의 취락구조와 토기문화의 변천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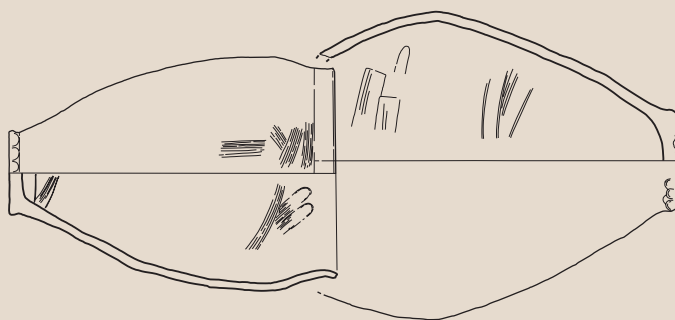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삼양동유적은 현재 송국리형취락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되어 왔다. 최근에 조사된 삼화지구내 역삼동단계 취락의 성격과 편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번 보고서는 기왕에 정리된 송국리형취락 단계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삼양동유적 일대에서 조사된 역삼동단계 취락의 구조와 성격을 살펴보았다. 또한 역삼동단계 토기의 성격을 파악하고 제주지역 청동기시대 전기의 토기변천을 함께 검토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먼저 삼양동유적에서 확인된 역삼동단계의 취락은 AMS 분석결과 기원전 800~400년에 집중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복합문양의 토기가 출토된 유구의 경우 보다 더 올라가는 상한연대가 산출된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토기의 변천양상과 편년 등이 남한지역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송국리단계의 취락은 역시 기원전 400년 이후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성과에 부합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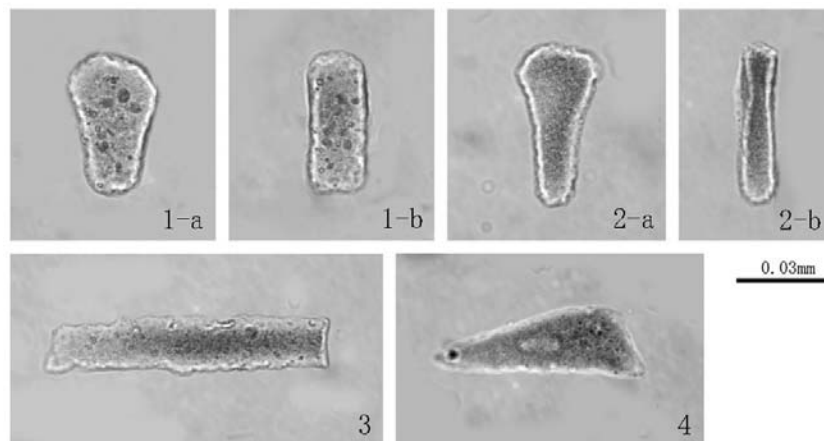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삼양동유적은 역삼동단계 취락과 송국리단계의 취락이 순차적으로 조성된 거점취락에 해당한다. 특히 기원전 400년을 정점으로 양 취락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청동기시대의 취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은 지리적 여건과 함께 풍부한 용천수 등 다양한 구비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취락과 토기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전되기를 기원한다.



부록 1. 출토시료의 과학분석



'09도시우회도로 발굴조사 출토 시료의 과학분석



2010. 11

목 차

1. 개 요	189
2. 유적의 위치와 환경	189
3. 분 석	191
3.1 연대측정	191
3.1.1 방법 및 결과	191
3.2 화분분석	191
3.2.1 방법	191
3.2.2 결과	191
3.3 식물규산체 분석	192
3.3.1 방법	192
3.3.2 결과	192

'09도시우회도로 발굴조사 출토시료의 과학 분석

1. 개 요

- 의 퇴 기 관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 유 적 명 :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 분 석 기 간 : 2009년 3월 ~ 2009년 11월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이 2009년 7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실시한 도시우회도로 확장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의 토양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의뢰해 음에 따라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을 통해 시대를 추정하였고 화분분석과 식물규산체 분석을 실시하여 주변 식생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였다.

2.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제주시 중심부의 동북부지역의 해안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2동 614-1번지(시점)·삼양1동 572-4번지(종점)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동경 33°30'56.59", 북위 126°35'23.90"·동경 33°31'11.76", 북위 126°35'48.86"에 해당하며 해안에서는 대략 1.16km 가량 떨어져 있다. 시료가 채취된 2구역 10지점 3호 토광묘는 해발 약 33m에 해당한다. 내부 퇴적토는 대략 9개의 층위로 구분된다. 1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사질성분이 함유된 층이다. 2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보다 색조가 다소 밝고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가 함유된 층이다. 3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가 함유된 층이다. 4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풍화암반알갱이,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5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와 풍화암반알갱이,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6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5층 보다 색조가 다소 어둡고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와 풍화암반알갱이,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7층은 명갈색사질점토층으로 1층과 거의 동일한 색조를 띠며 소량의 소토와 풍화암반알갱이가 함유된 층이다. 8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점성이 강하며 소량의 소토와 다량의 풍화암반알갱이, 황색점토가 함유된 층이다. 9층은 황색점토층으로 소량의 사질성분이 함유된 충진토이다. 묘광의 벽체는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목관의 추정규모는 길이 211cm, 너비 56cm, 깊이 18cm 이다. 출토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편과 방추차가 확인된다.



Fig.1 발굴조사지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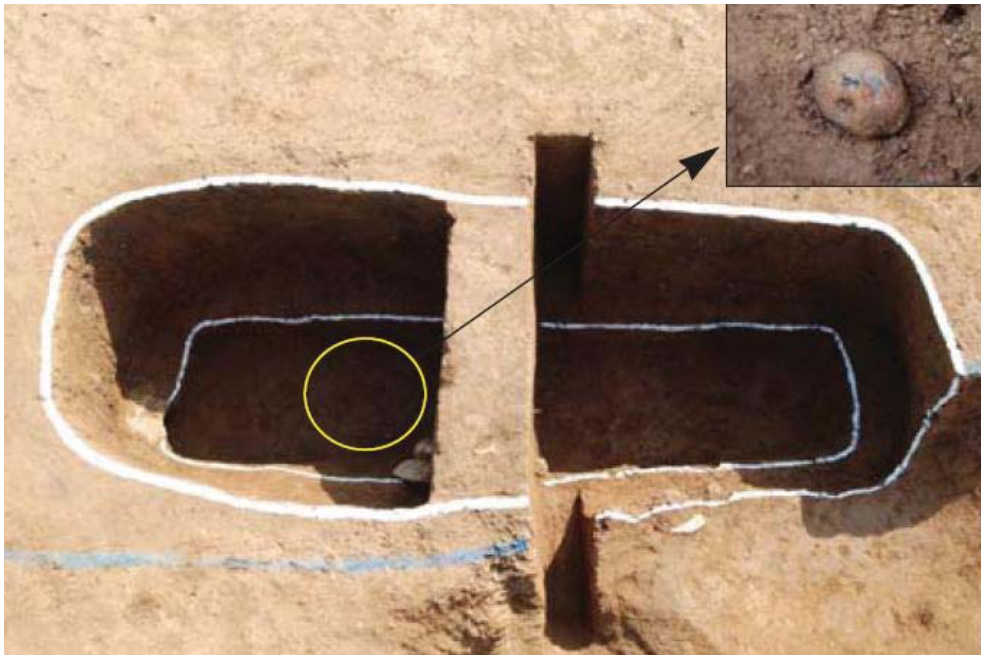


Fig.2 2구역 10지점 3호 토광묘

Table.1 분석시료 목록

연번	시료명	분석건수			시료채취일
		AMS	화분분석	식물규산체	
1	토양시료①	1	1	1	2009.11.05
2	토양시료②	1	1	1	2009.11.05
계		2	2	2	

3. 분석

3.1 연대측정

1940년대 후반에 확립된 탄소연대측정법은 C-14(탄소 동위원소 14)의 반감기를 이용한 방법이다. 탄소는 거의 모든 물질에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 C-14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사성 붕괴의 특징을 갖고 있어 남아 있는 C-14의 양으로 연대를 추정 할 수 있다. 1970년 이후 적용된 가속기 질량분석(AMS; Accelerated Mass Spectrometry)에 의한 탄소연대측정은 극소량의 시료만으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3.1.1 방법 및 결과

탄산염을 제거하기 위해 산처리를 한 후 염기처리를 통하여 유기물을 추출한다. 그 후 남은 유기물로부터 탄소를 얻기 위해 산화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환원과정을 거쳐 graphite화 한다.

결과는 세 번의 측정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과정과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를 보정하여 나온 것이다.

Table.2 연대측정 결과

연번	시료명	AMS 측정 결과	
		방사성탄소연대	연대 눈금 맞춤 결과(Calibrated Ages)
1	토양시료①	BP 3450±50	BC 1735
2	토양시료②	BP 4210±60	BC 2780

3.2 화분분석

화분분석은 토양 중에 남아 있는 수목이나 풀에서 화분을 조사하여 산림식생의 변천이나 기후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꽃가루는 식물기관의 일부로서 생식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계에 노출되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외막을 가지고 있어 오랜시간 양호한 상태로 보존된다.

3.2.1 방법

분석시료는 2구역 10지점 탐라성립기의 3호 토광묘에서 채취한 2점(토양시료①, ②)이다. 두 시료는 모두 목탄편이 포함된 갈색 점질토였으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습윤중량 약2g)를 원심관(遠沈管)에 넣고, 10% 수산화칼륨용액을 첨가하여 하루 동안 방치한다. 물 세척 후 46% 불화수소산용액을 첨가한 다음 1시간 방치한다. 물 세척을 한 후, 비중분리(比重分離 : 비중2.1로 조정된 취화아연용액(臭化亞鉛溶液)을 넣고 원심분리(遠心分離))를 행한 후, 부유물(浮遊物)을 회수하여 물 세척한다. 물 세척 후 빙초산(氷酢酸)처리, 아세트산처리(무수초산(無水酢酸)과 농황산(濃黃酸)을 9 : 1 비율로 혼산(混酸)하여 10분간 중탕한다. 물 세척 한 다음 침전물에 글리세린(Glycerin)을 떨어뜨려 보존용을 만든다. 이 침전물에서 적절한 프레파라트를 만들어 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3.2.2 결과

분석한 시료에서 화분포자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식생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다.

Fig. 3에 나타난 것처럼 화분입자와 동일한 크기의 유기질편은 다수 관찰되나 화분포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해되어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화분은 튼튼한 외막을 가지고 있어 도랑(溝)이나 연못(池), 바다와 같은 수역(水域)에 낙하한 화분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된다. 반면 밭이나 도로와 같은 산화적 환경에 낙하한 화분은 자외선이나 토양박테리아 등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소실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본 유적에서 채취한 시료는 대기에 노출된 산화적인 환경 아래에서 퇴적된 시료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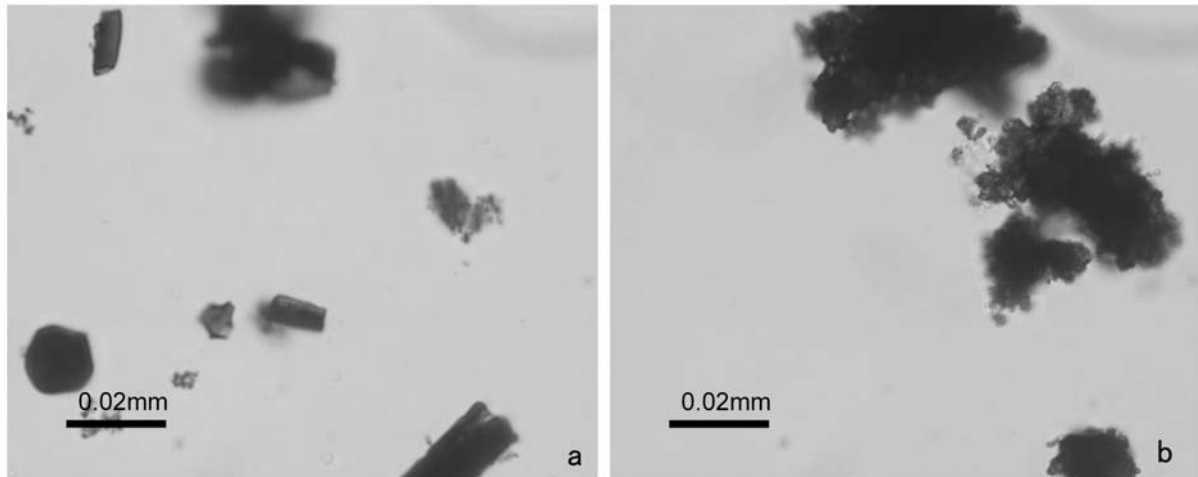


Fig.3 프레파라트 상황 a:토양시료① b:토양시료②

3.3 식물규산체 분석

3.3.1 방법

시료는 2구역 10지점 탐라성립기의 3호 토광묘에서 채취한 토양시료①, ② 이다. 상기의 2 시료에 대한 식물규산체분석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였다.

칭량한 시료를 건조 후 다시 칭량한다(절대건조중량 측정). 이와 별도로 시료 약 1g(칭량)을 툴 비이커(Tall Beaker)에 담아 약 0.02g의 글래스비드(Glass Beads, 직경 약 0.04mm)를 첨가한다. 여기에 30% 과산화수소수를 약 20 ~ 30cc첨가하여 탈유기물 처리를 실시한다. 처리 후 물을 첨가해 초음파 호모지나이저(Homogenizer)로 시료를 분산시킨 후 침강법(沈降法)으로 0.01mm 이하의 입자를 제거한다. 이 침전물에 글리세린(Glycerin)을 이용하여 적절한 프레파라트(Preparat)를 제작하여 검경(檢鏡)하였다.

3.3.2 결과

토양시료①, ②에 대해 식물규산체분석한 결과, 쇠풀族이 약간 검출되었다. 검출된 쇠풀族은 채취지점 주변의 빈터나 양지바른 곳에 생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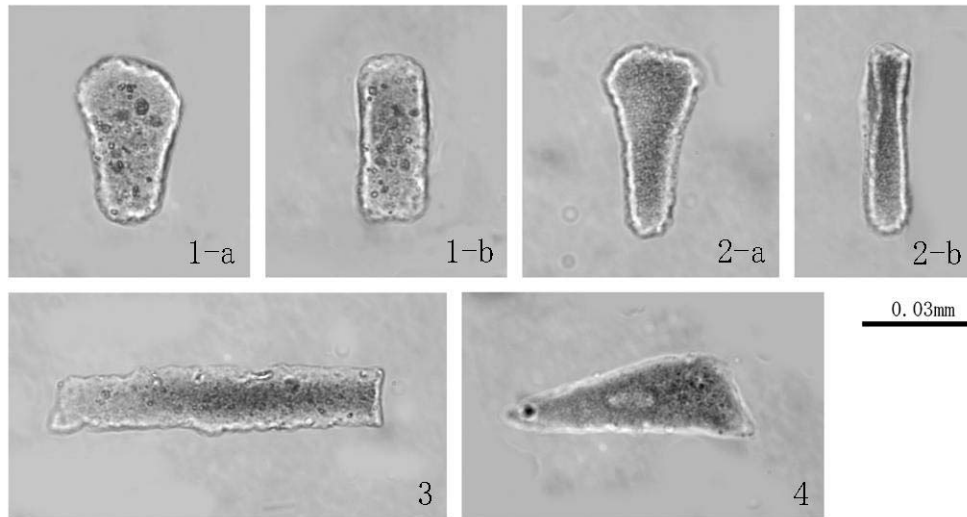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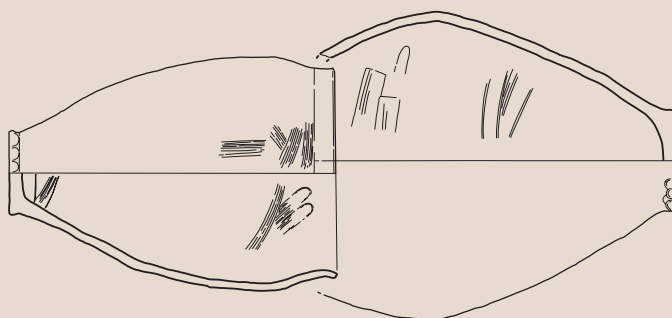
Fig. 식물규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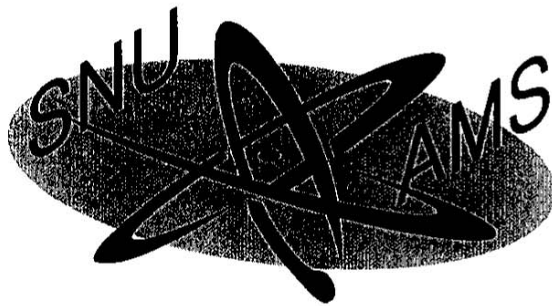
1,2 : 토양시료①,②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식물규산체(a:단면, b:측면)

3 : 토양시료①의 불명식물규산체(棒狀) 4 : 토양시료②의 불명식물규산체(Point型)



부록 2. AMS측정결과





AMS 측정에 대한 결과 (SNU10-358)

시료 접수일: 2010년 5월 27일

결과 보고일: 2010년 10월 11일

시료 제출자: ㈜씨엔티

결과:

시료 ID	시료 설명	시료량 (mg)	LAB 번호	$\delta^{13}\text{C}$ (‰)	pMC (%)	방사성탄소 연대 (BP)
'09도시우회도로발굴조사 1.토양시료①	soil	43	SNU10-358	-26.85		345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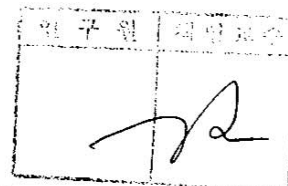
특기사항:

전처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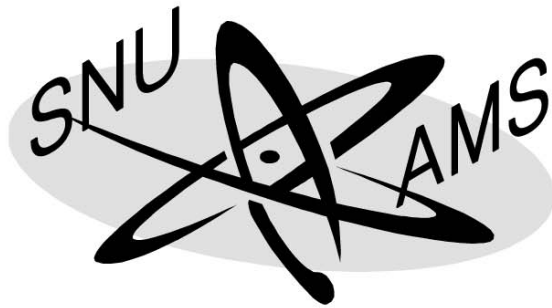
통상의 탄산염 제거를 위한 산처리를 한 후 염기처리를 통하여 humic acid를 추출함.
그 후 남은 유기물(humic acid)로부터 탄소를 얻기 위해 combustion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reduction 과정을 거쳐 graphite화 됨

* 위의 결과는 세 번의 측정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 과정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fractionation)를 기준치 $\delta^{13}\text{C} = -25$ ‰로 보정하여 나온 것입니다. 시료의 연대는 Libby의 ^{14}C 수명 8033 yr를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방사성 탄소연대 (radiocarbon age)의 단위인 BP(before present)로 나타내었습니다. 오차의 산출은 표준편차에 근거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본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논문의 사본 1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나 법적 관계의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제출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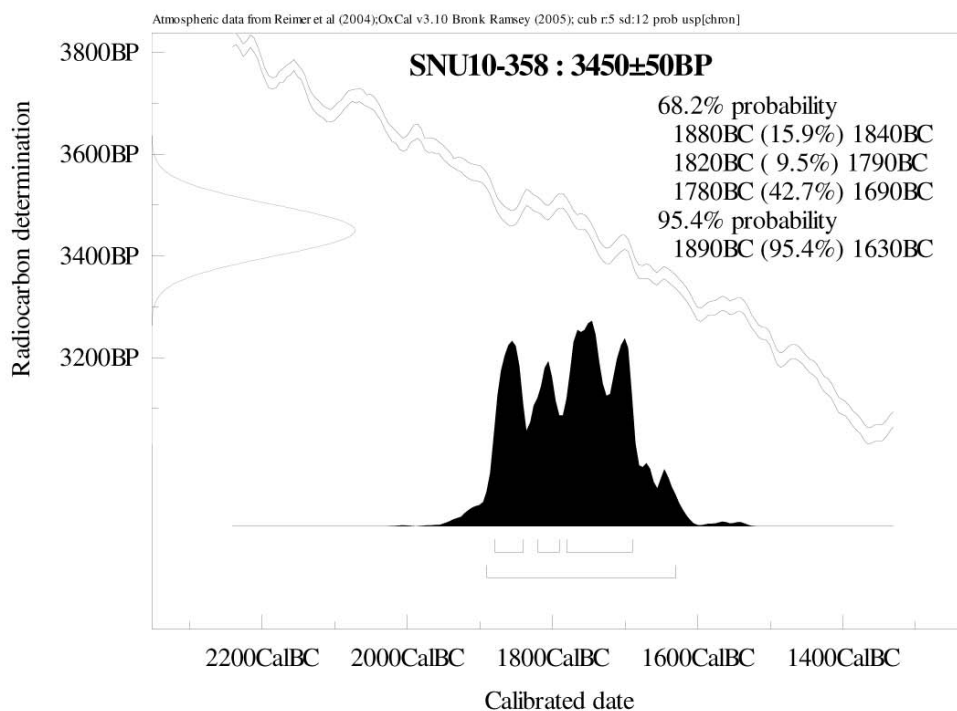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정전기속기연구센터(02 - 880 - 5782)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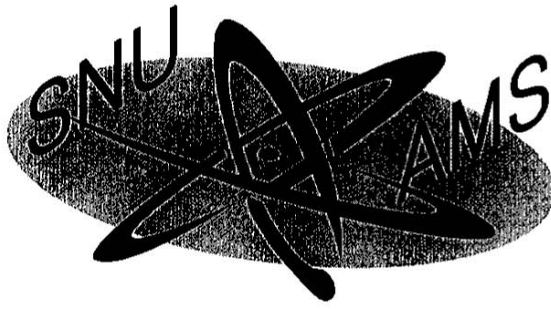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09도시우회도로발굴조사 1.토양시료①	3450±50	1735 BC



註) Calibration 결과는 IntCal04 ca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며 Bronk Ramsey C.,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iocarbon **43**(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MS 측정에 대한 결과 (SNU10-359)

시료 접수일: 2010년 5월 27일

결과 보고일: 2010년 10월 11일

시료 제출자: ㈜씨엔티

결과:

시료 ID	시료 설명	시료량 (mg)	LAB 번호	$\delta^{13}\text{C}$ (‰)	pMC (%)	방사성탄소 연대 (BP)
'09도시우회도로발굴조사 2.토양시료②	soil	42	SNU10-359	-21.54		4210±60

특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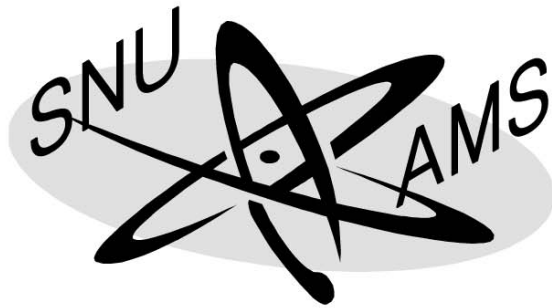
전처리 사항:

통상의 탄산염 제거를 위한 산처리를 한 후 염기처리를 통하여 humic acid를 추출함.
그 후 남은 유기물(humic acid)로부터 탄소를 얻기 위해 combustion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reduction 과정을 거쳐 graphite화 됨

* 위의 결과는 세 번의 측정 결과를 평균한 값으로 시료 준비 과정과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위원소 비의 변화(fractionation)를 기준치 $\delta^{13}\text{C} = -25$ ‰로 보정하여 나온 것입니다. 시료의 연대는 Libby의 ^{14}C 수명 8033 yr를 사용하여 도출되었으며 방사성 탄소연대 (radiocarbon age)의 단위인 BP(before present)로 나타내었습니다. 오차의 산출은 표준편차에 근거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본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경우 발표된 논문의 사본 1부를 우리 기관으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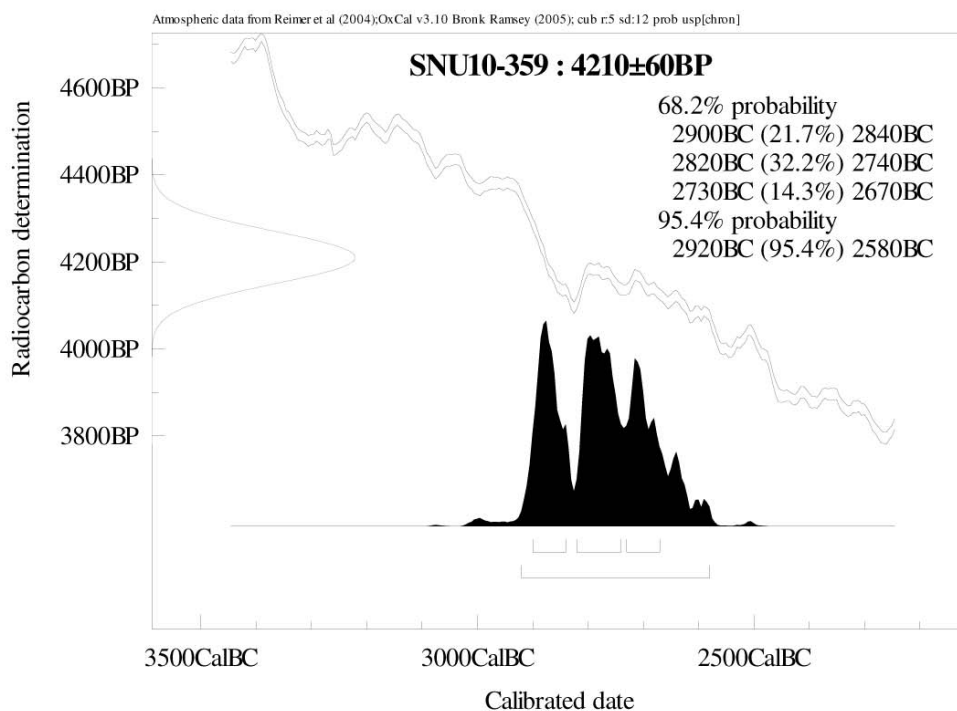
* 이 보고서의 내용 및 결과는 연구 목적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 관계나 법적 관계의 증빙자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제출될 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정전기속기연구센터(02 - 880 - 5782)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장



■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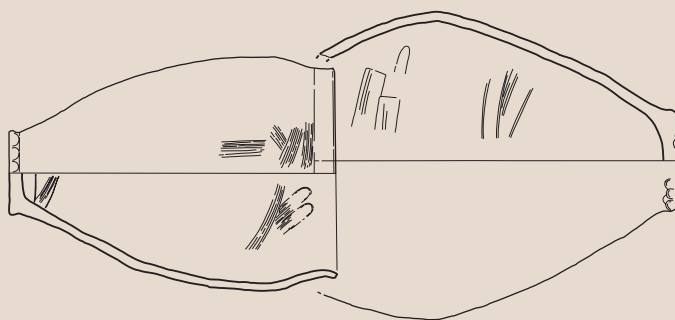
시료 ID	방사성탄소 연대 (BP)	연대 눈금 맞춤 결과 (Calibrated Ages)
'09도시우회도로발굴조사 2.토양시료②	4210±60	2780 BC



註) Calibration 결과는 IntCal04 calibration curve와 OxCal v3.10을 사용하여 구한 것이며 Bronk Ramsey C., Radiocarbon **37**(2) (1995) 425-430과 Bronk Ramsey C., Radiocarbon **43**(2A) (2001) 355-363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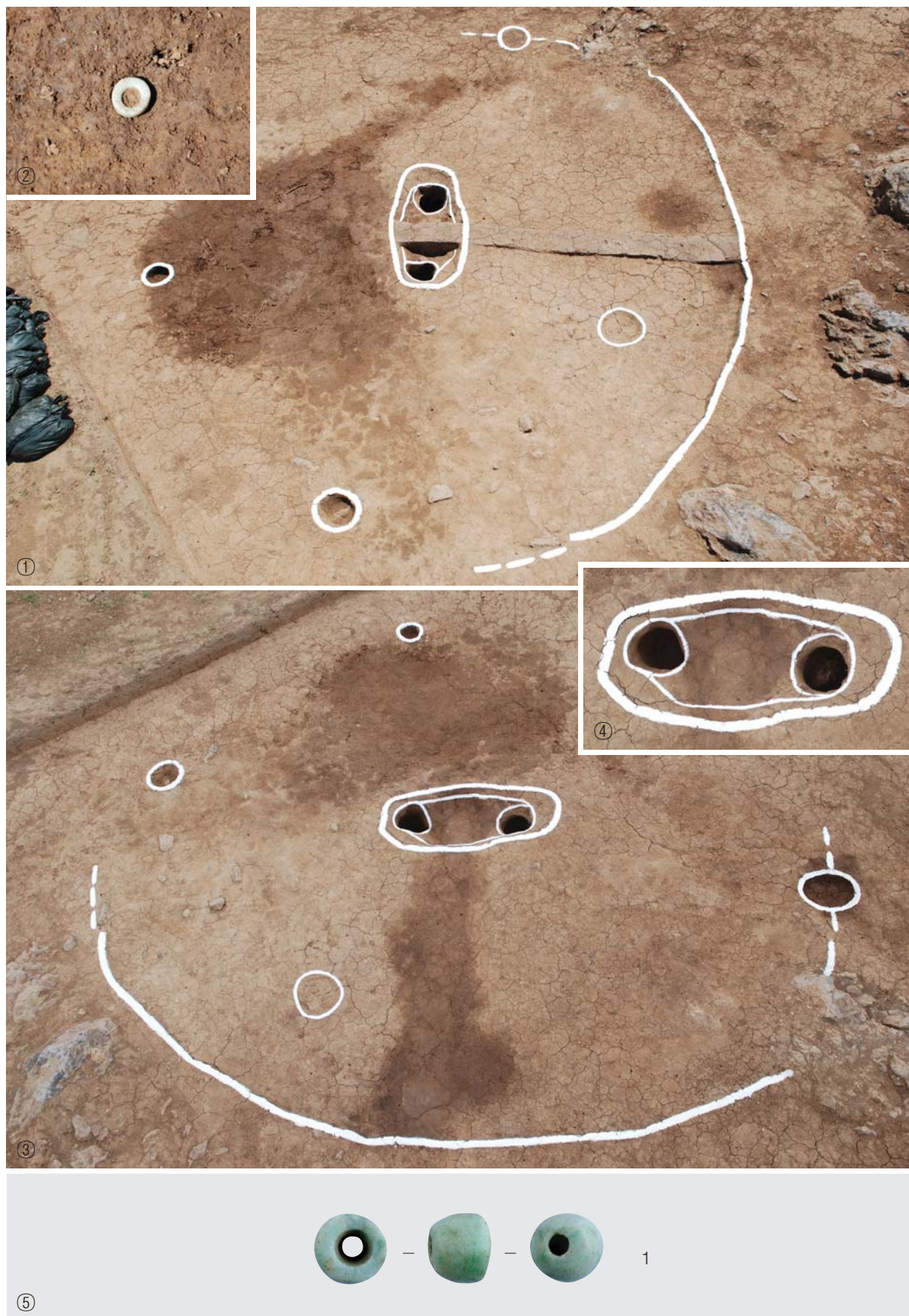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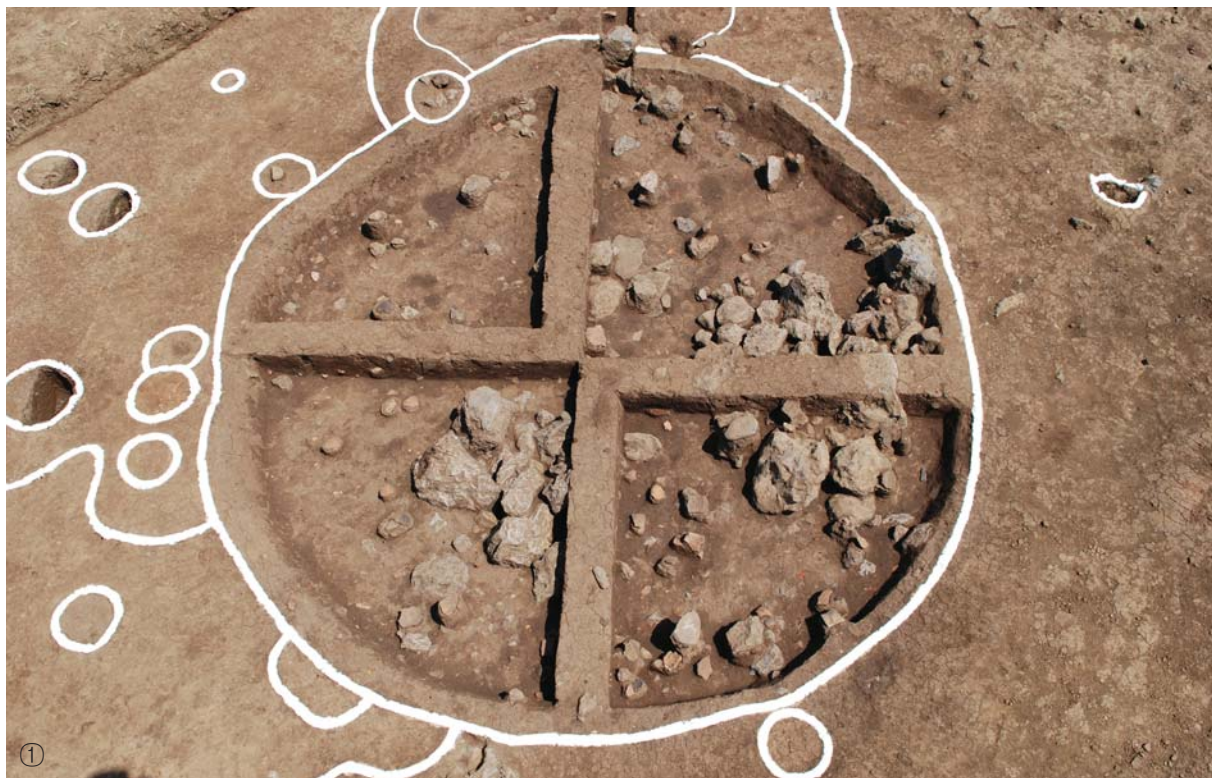
도판 1. ①~② 조사대상지 전경(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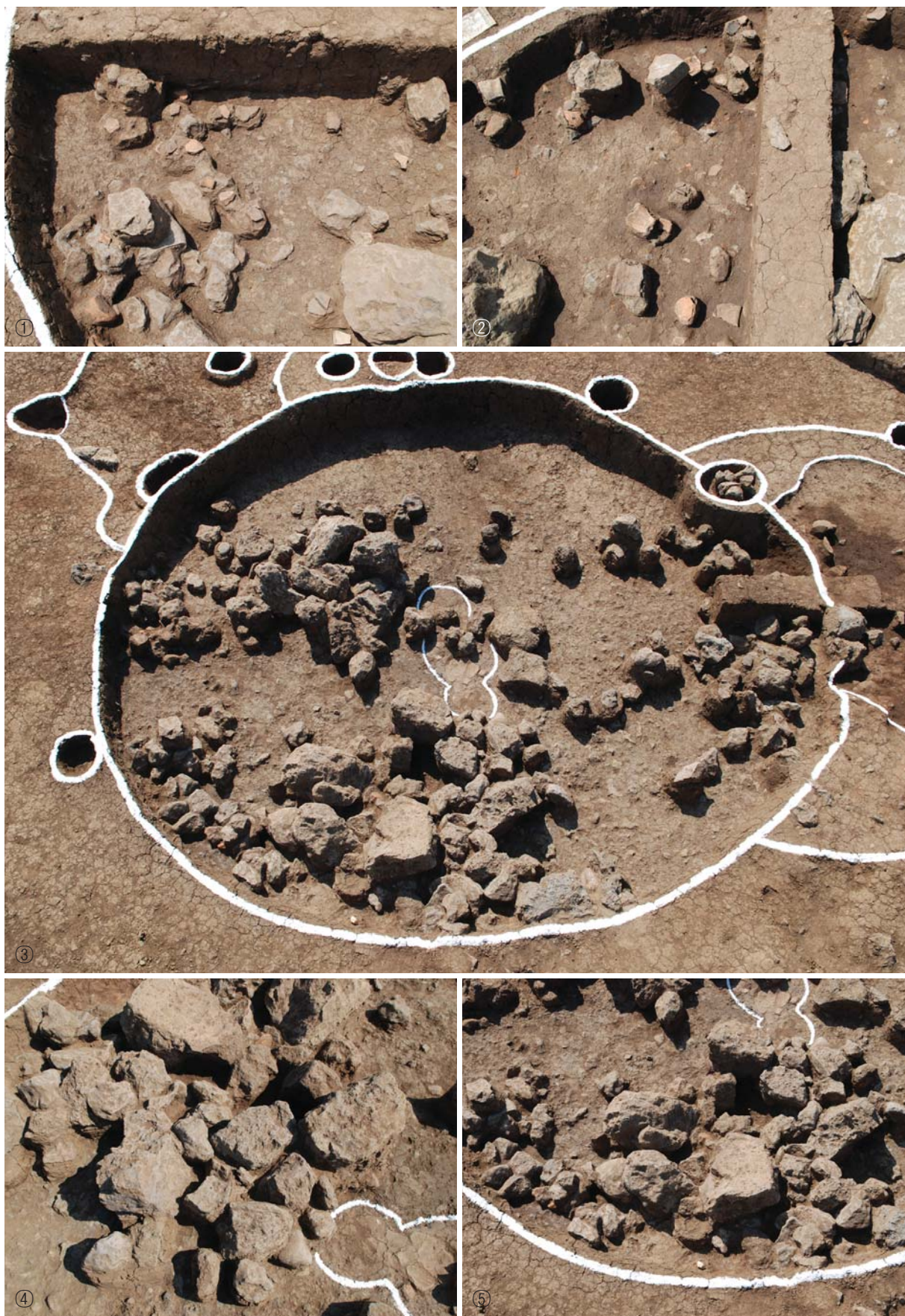
도판 2. ①~③ 조사 모습



도판 3. ① 1호 주거지 2차 조사후 전경(서에서) ② 유물 출토 모습 ③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④ 타원형구덩이 ⑤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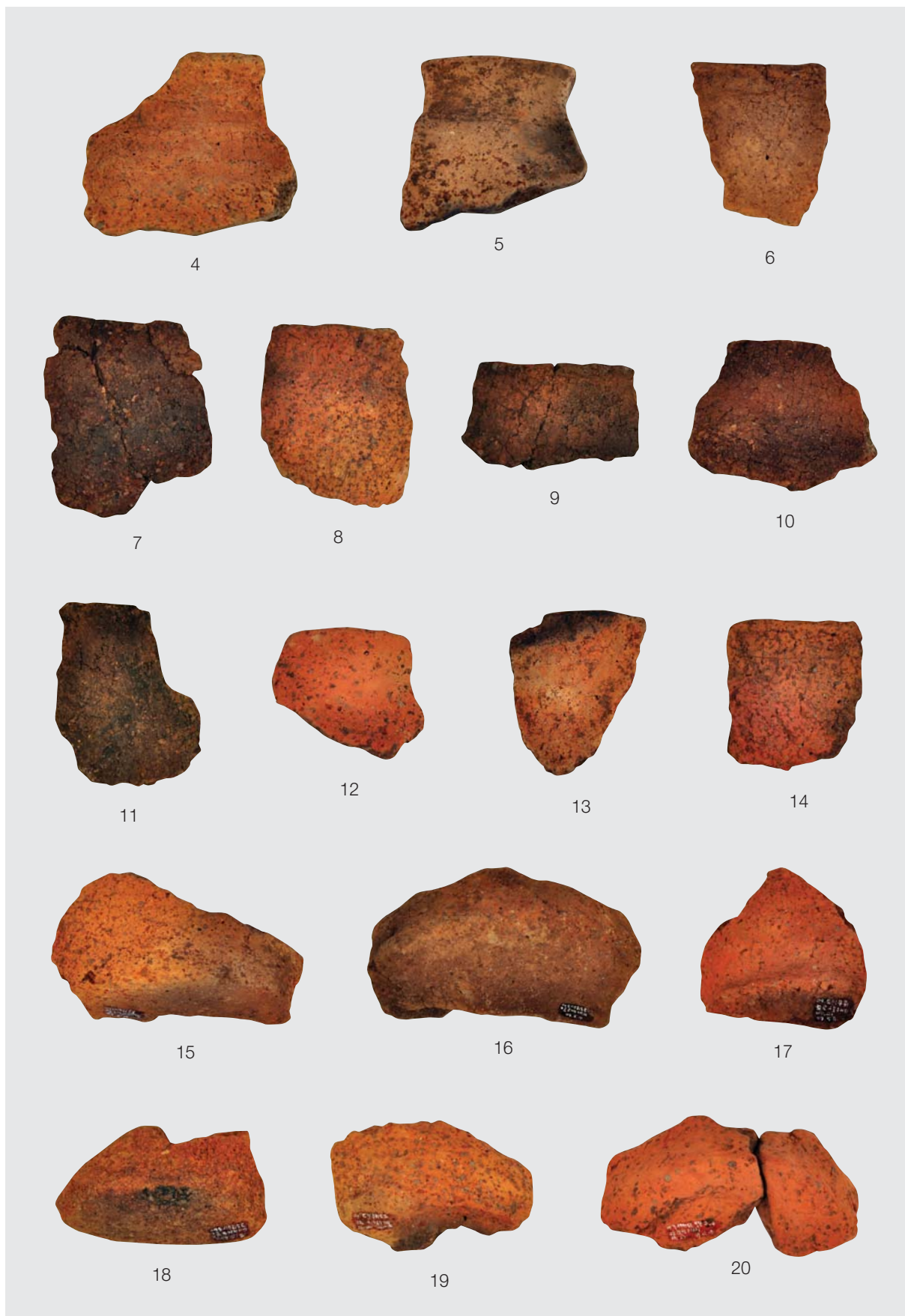
도판 4. ① 2호 주거지 1차 조사후 전경(남에서) ② 2차 조사후 전경(서에서) ③ 북벽 토층



도판 5. ①~② 2호 주거지 2차 세부 모습 ③ 3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④~⑤ 3차 세부 모습



도판 6. ①~⑧ 2호 주거지 유물 출토 모습 ⑨ 조사 완료후 전경(서에서) ⑩ 타원형구덩이 ⑪ 출토유물



도판 7. 2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도판 8. 2호 주거지 출토유물(2)



36



37



38



39



40

도판 9. 2호 주거지 출토유물(3)



41



42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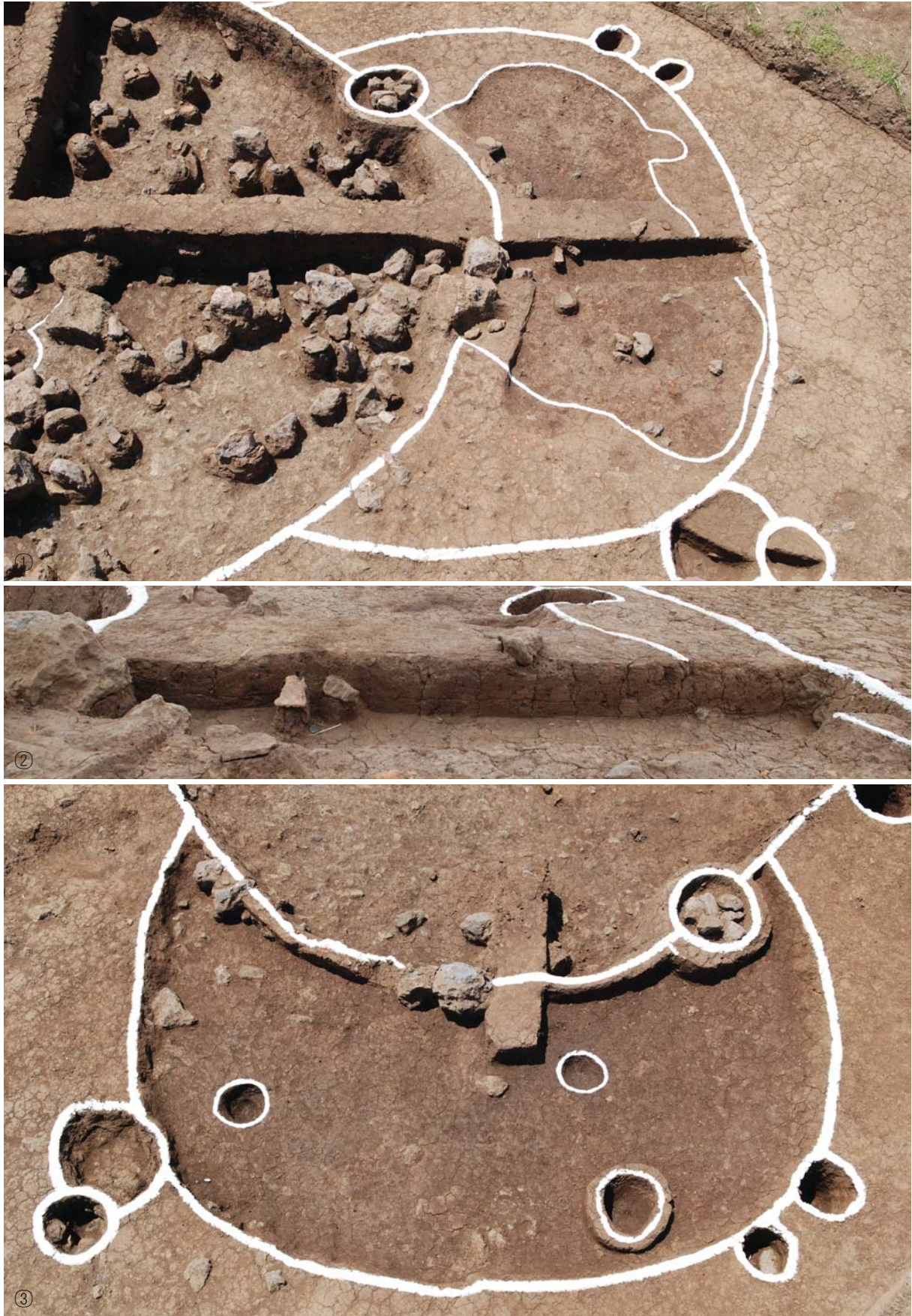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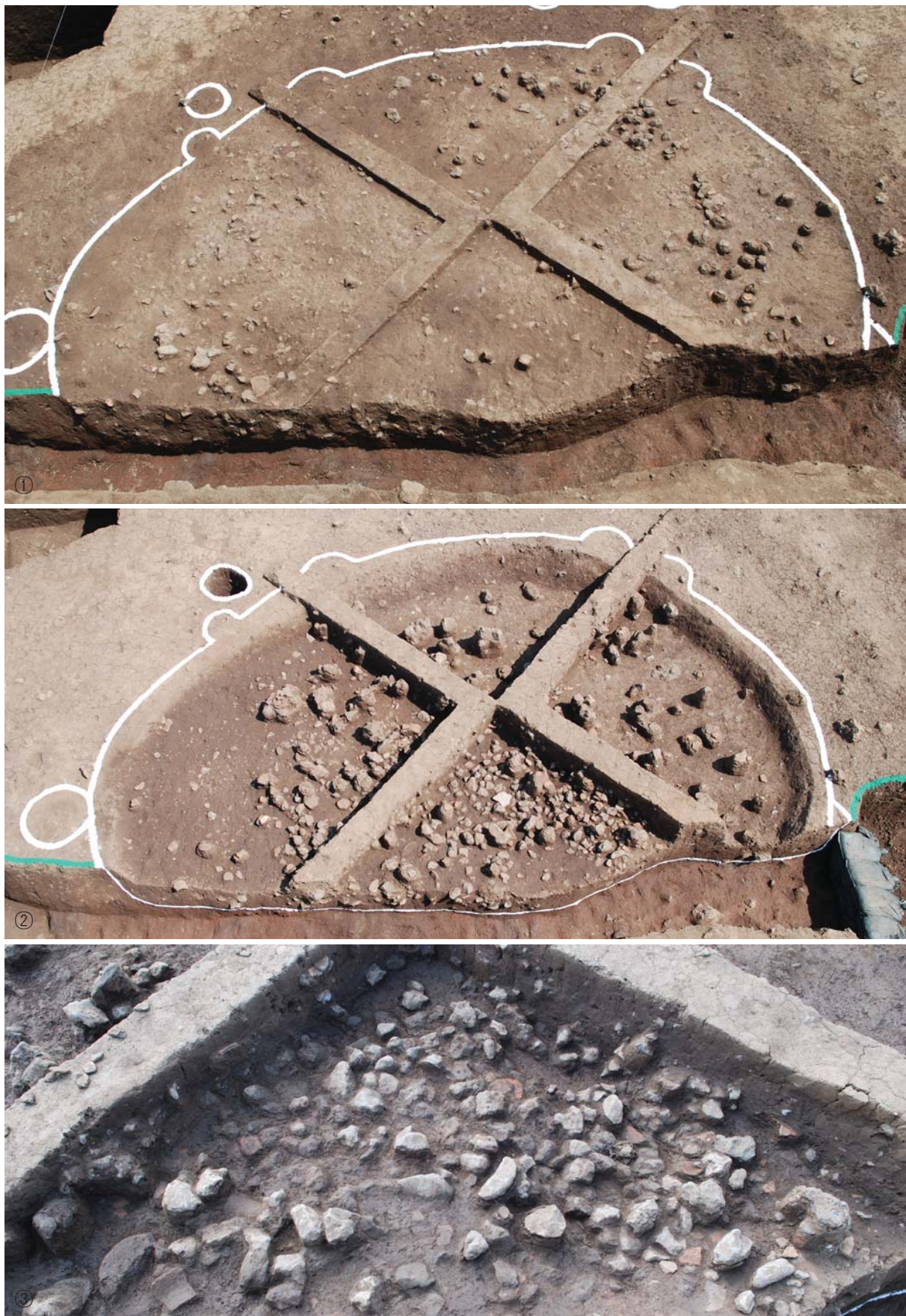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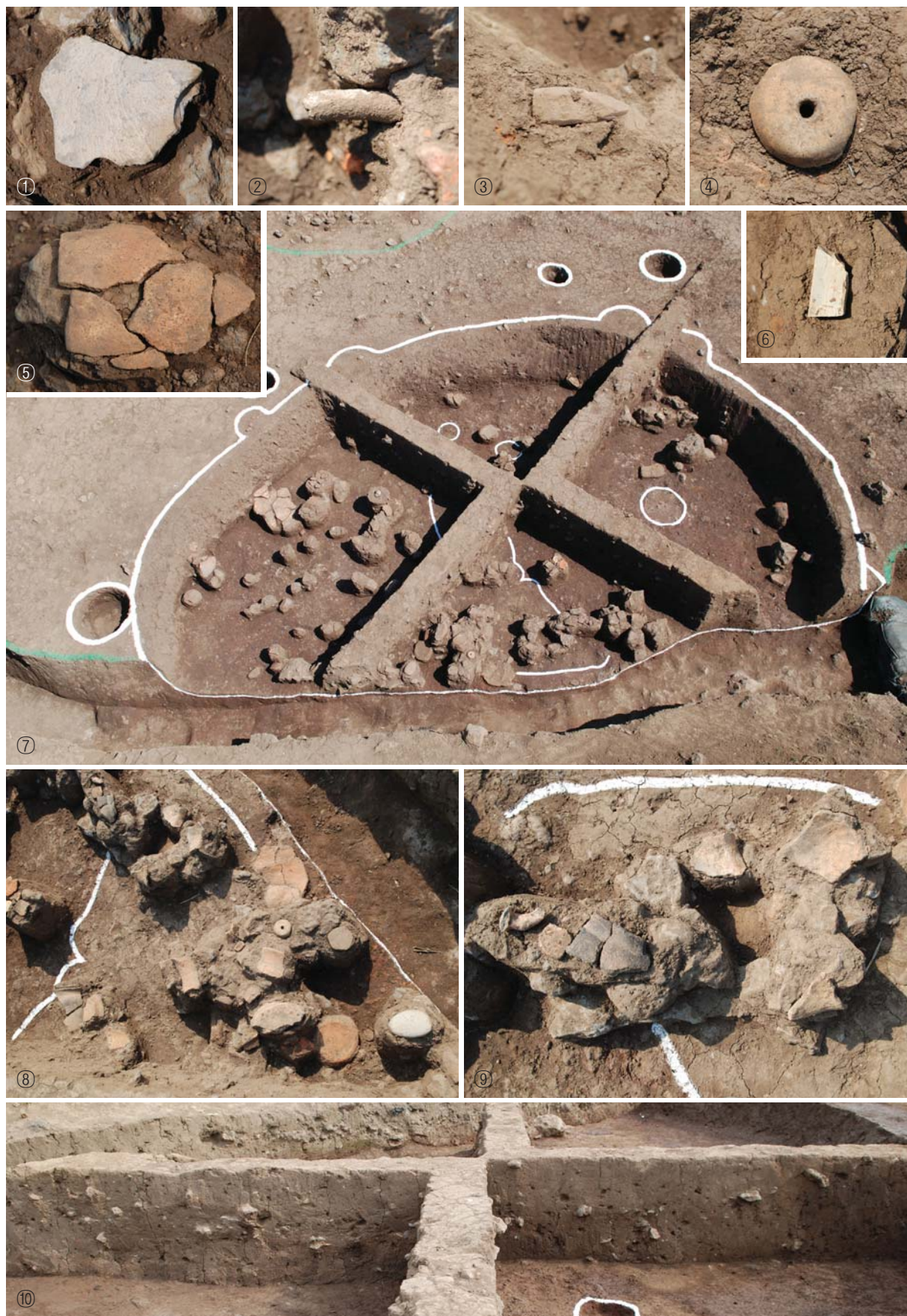
도판 10, 2호 주거지 출토유물(4)



도판 11. ① 3호 주거지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② 단면 토층 ③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도판 12. ① 4호 주거지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② 2차 조사후 전경 ③ 적석 세부



도판 13. ①~⑥ 4호 주거지 유물 출토 모습 ⑦ 3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⑧~⑨ 세부 모습 ⑩ 북벽 토층



도판 14. ① 4호 주거지 조사 완료후 전경(북동에서) ② 타원형구덩이 ③~④ 세부 모습 ⑤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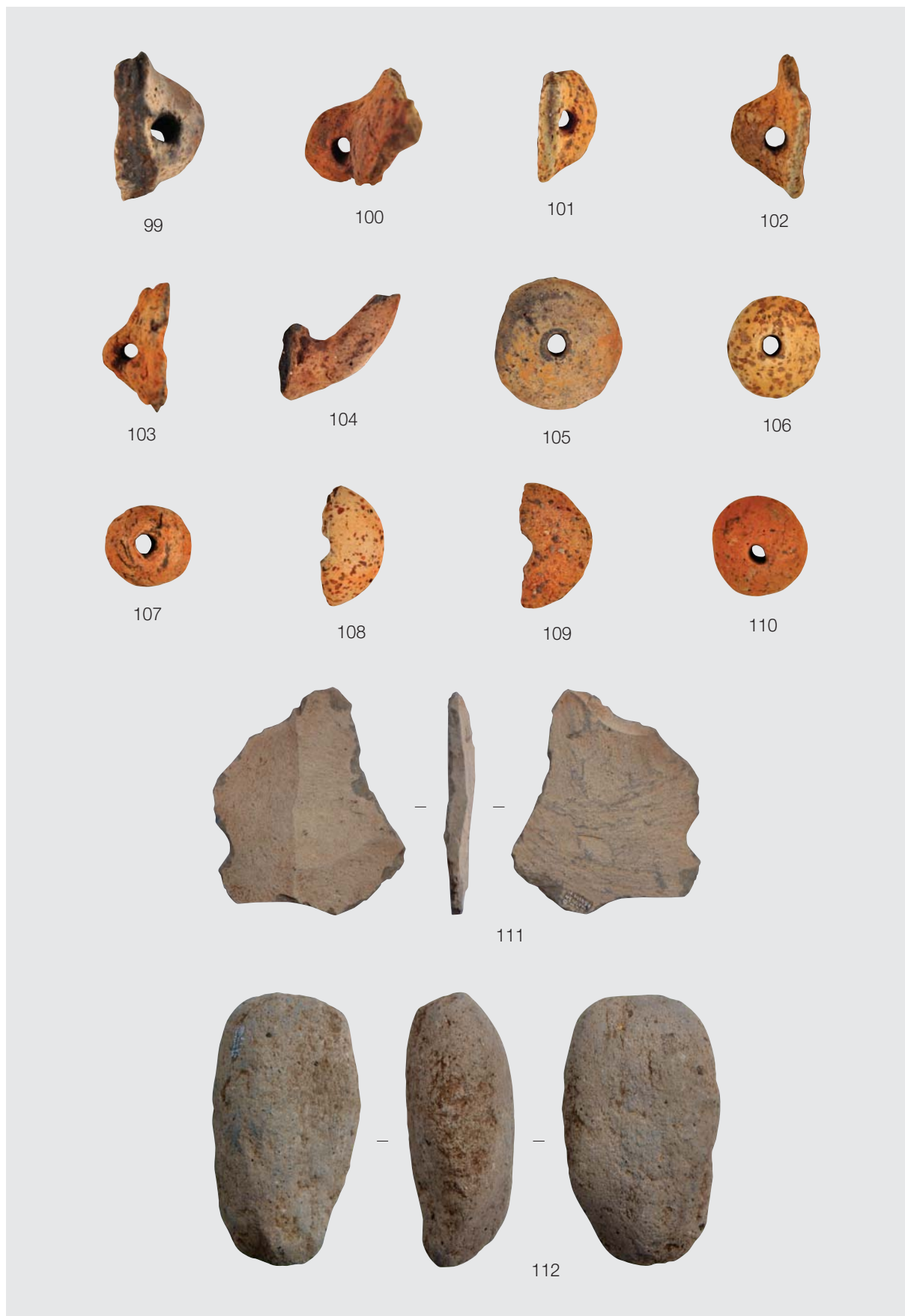
도판 15. 4호 주거지 출토유물(1)



도판 16. 4호 주거지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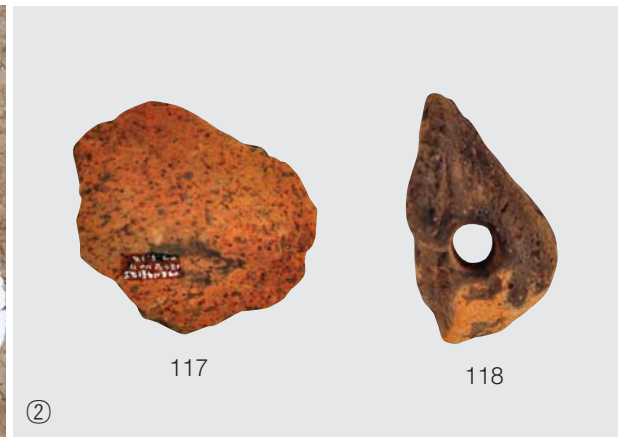
도판 17. 4호 주거지 출토유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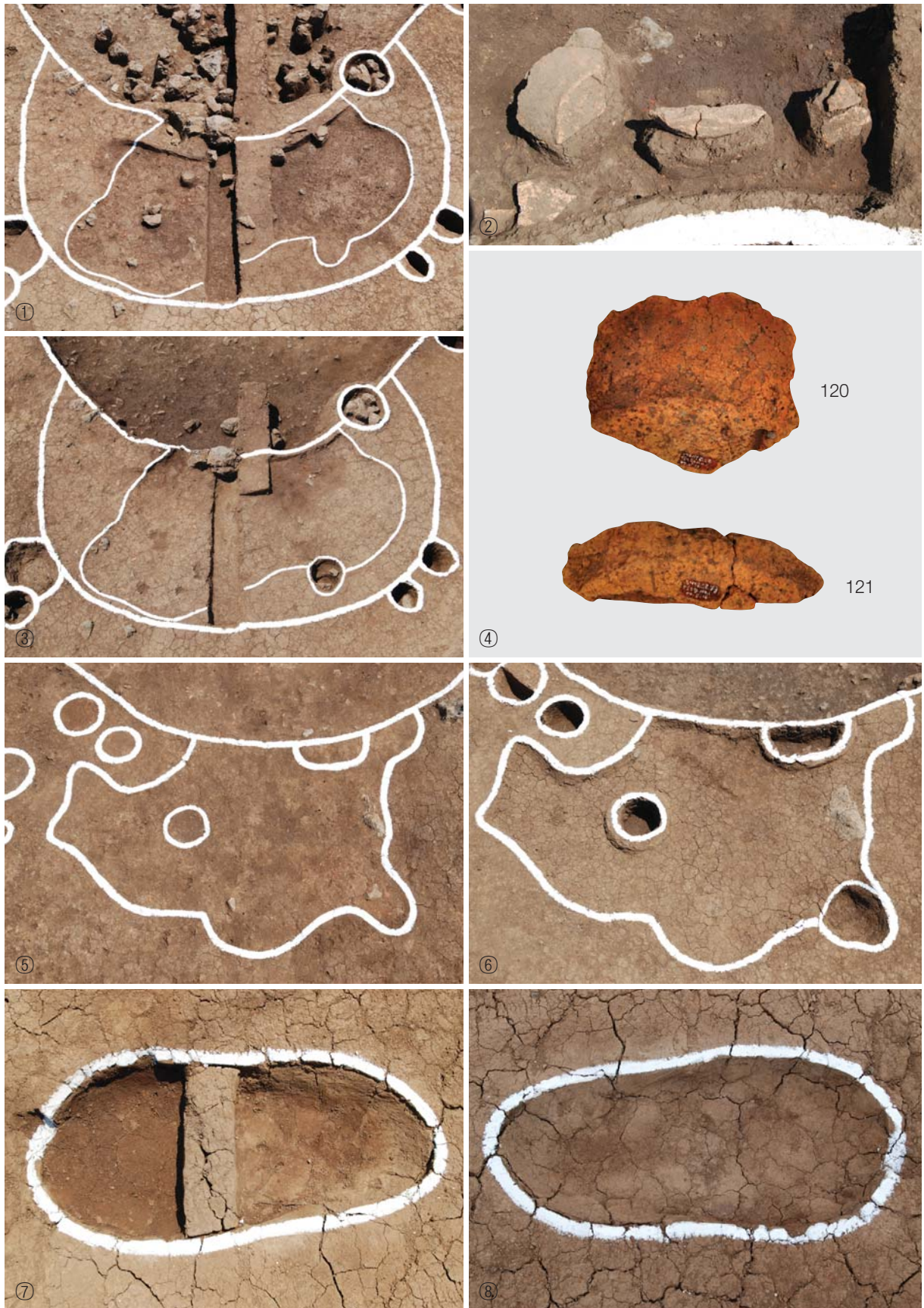
도판 18. 4호 주거지 출토유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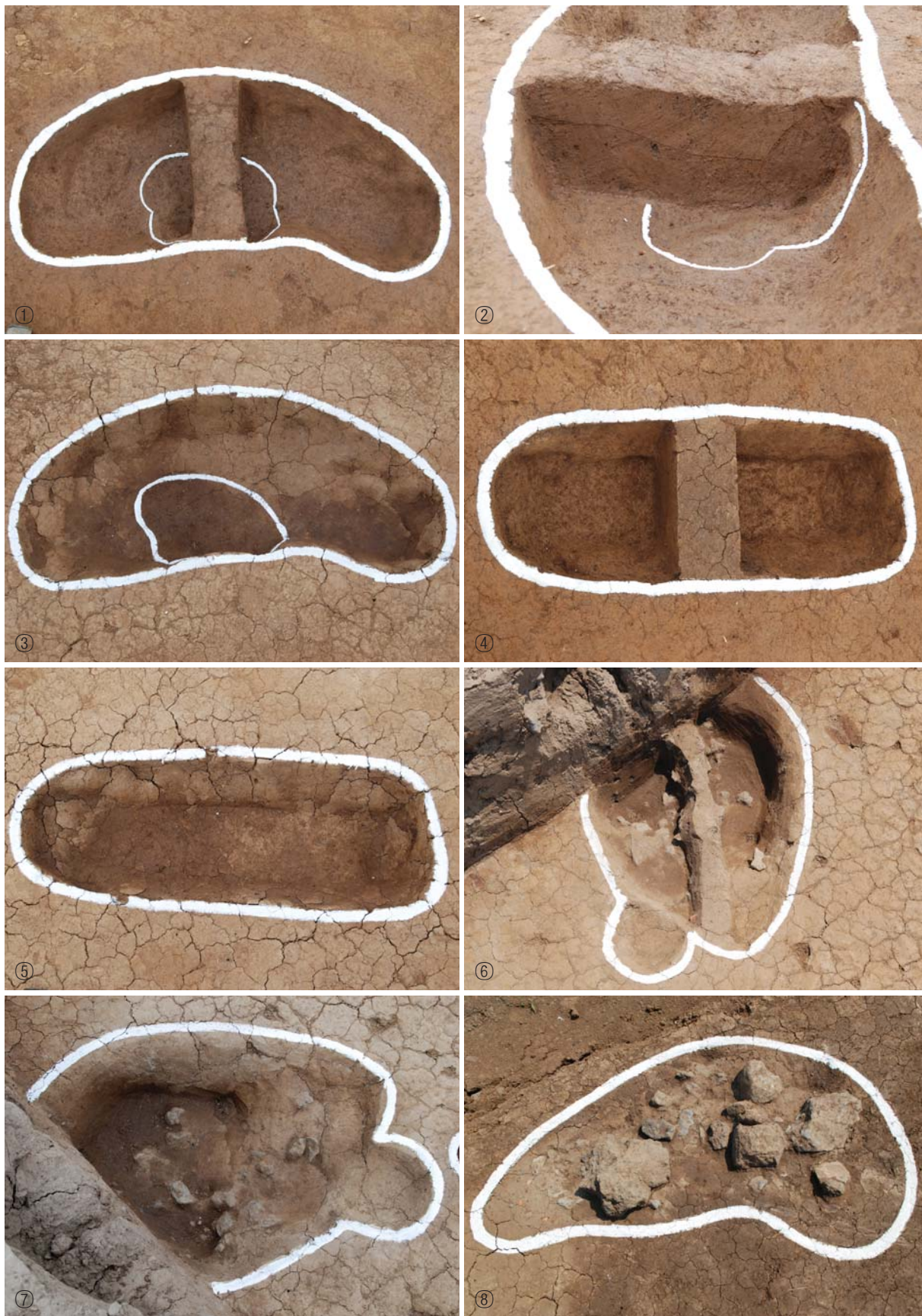
도판 19. ① 4호 주거지 출토유물 ② 굴립주건물지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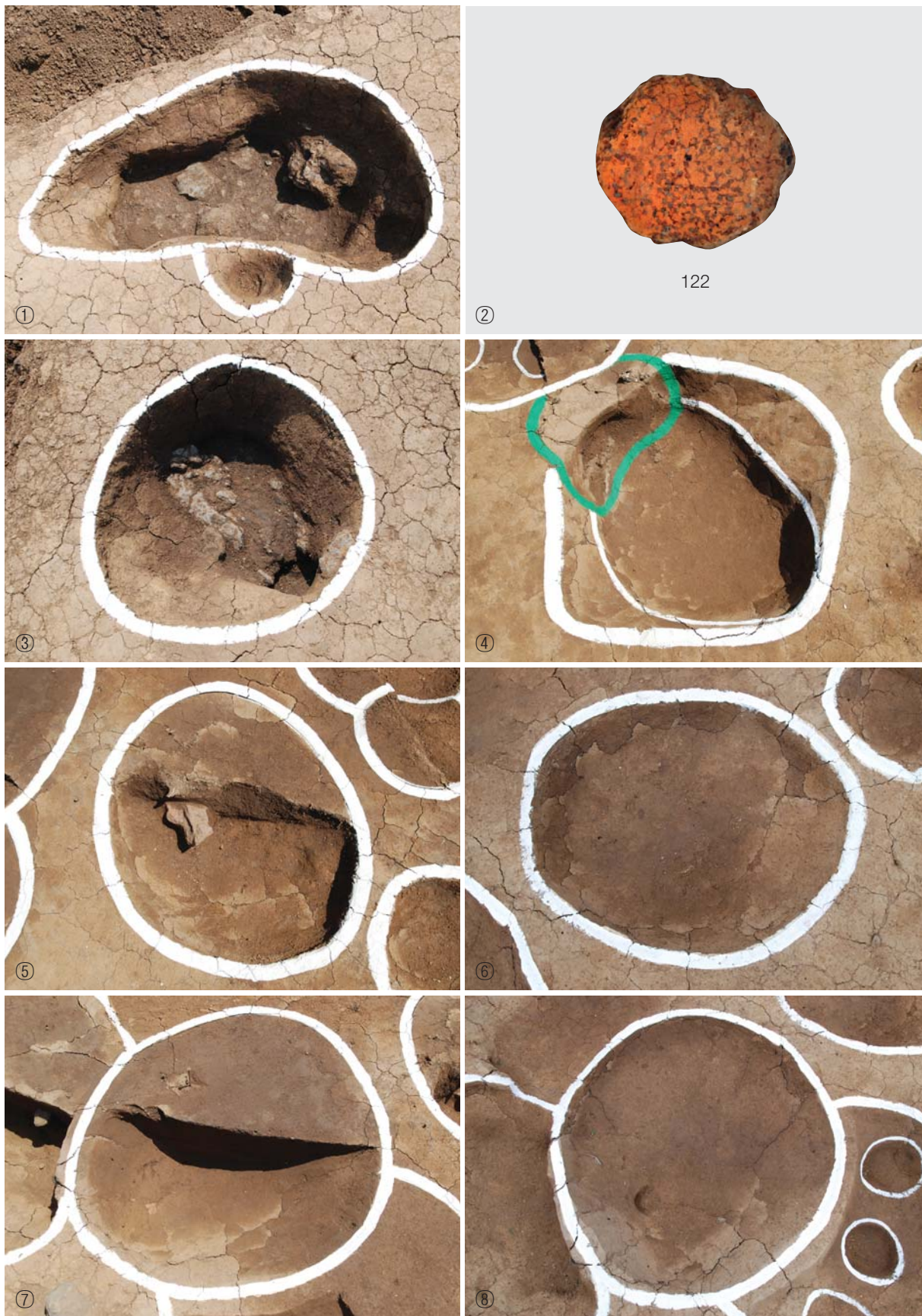
도판 20. ① 1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② 출토유물 ③ 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④ 3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⑤ 4호 수혈유구 2차 조사후 전경(서에서) ⑥ 세부 모습 ⑦ 유물 출토 모습 ⑧ 출토유물



도판 21. ① 5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② 유물 출토 모습 ③ 조사 완료후 전경 ④ 출토유물 ⑤ 6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남서에서) ⑥ 조사 완료후 전경 ⑦ 7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⑧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도판 22. ① 8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남서에서) ② 단면 토층 ③ 조사 완료후 전경 ④ 9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남에서) ⑤ 조사 완료후 전경 ⑥ 10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⑦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⑧ 11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북서에서)



도판 23. ① 11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② 출토유물 ③ 1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동에서) ④ 13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서에서) ⑤ 14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⑥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⑦ 15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⑧ 조사 완료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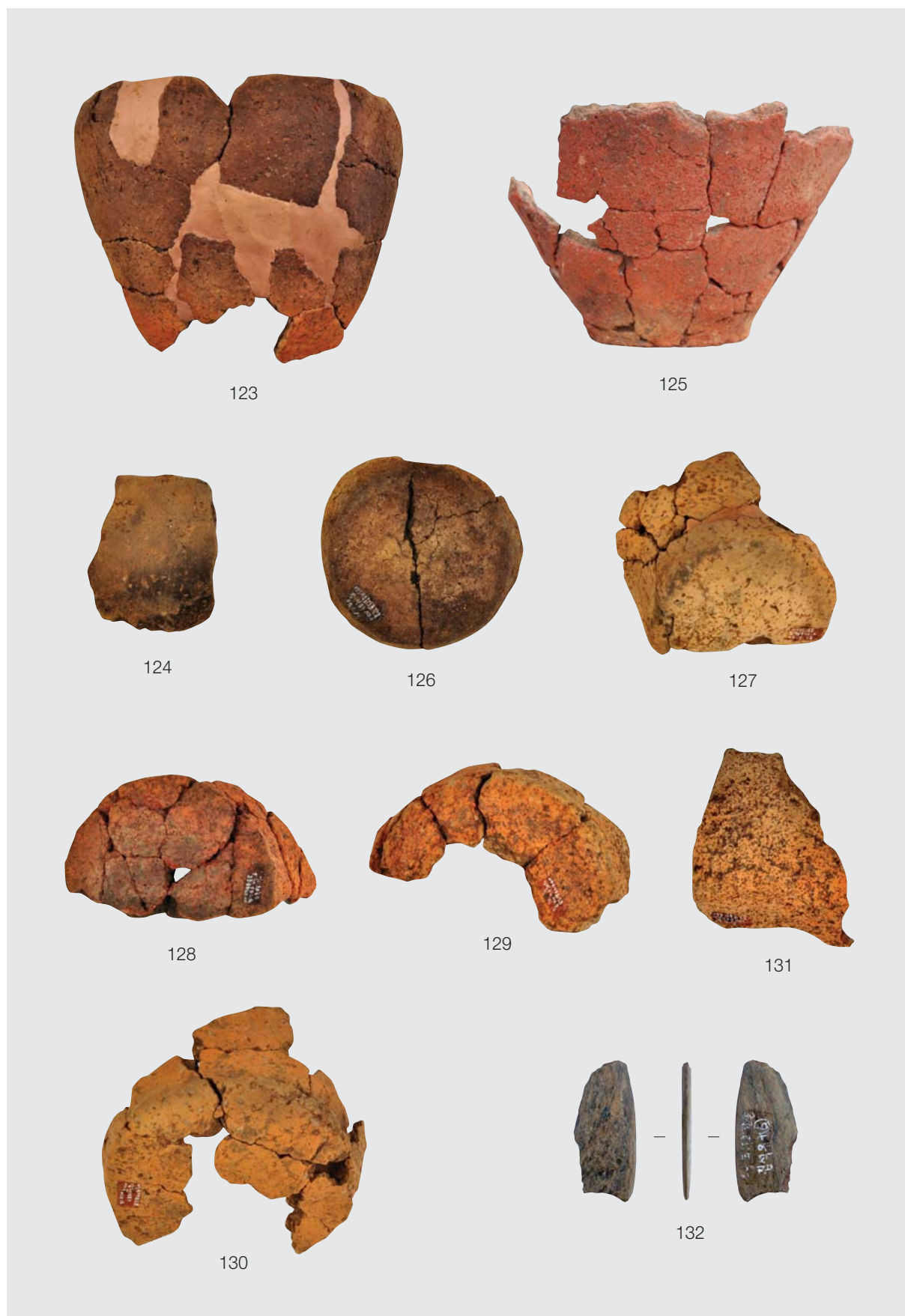
도판 24. ① 16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②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③ 17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④ 남벽 토층 ⑤ 조사 완료후 전경 ⑥ 18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⑦ 조사 완료후 전경 ⑧ 19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도판 25. ① 20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② 21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③ 조사 완료후 전경 ④ 2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⑤ 집석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⑥ 세부 모습



도판 26. ① 집석유구 2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② 남동벽 토층 ③~⑦ 유물 출토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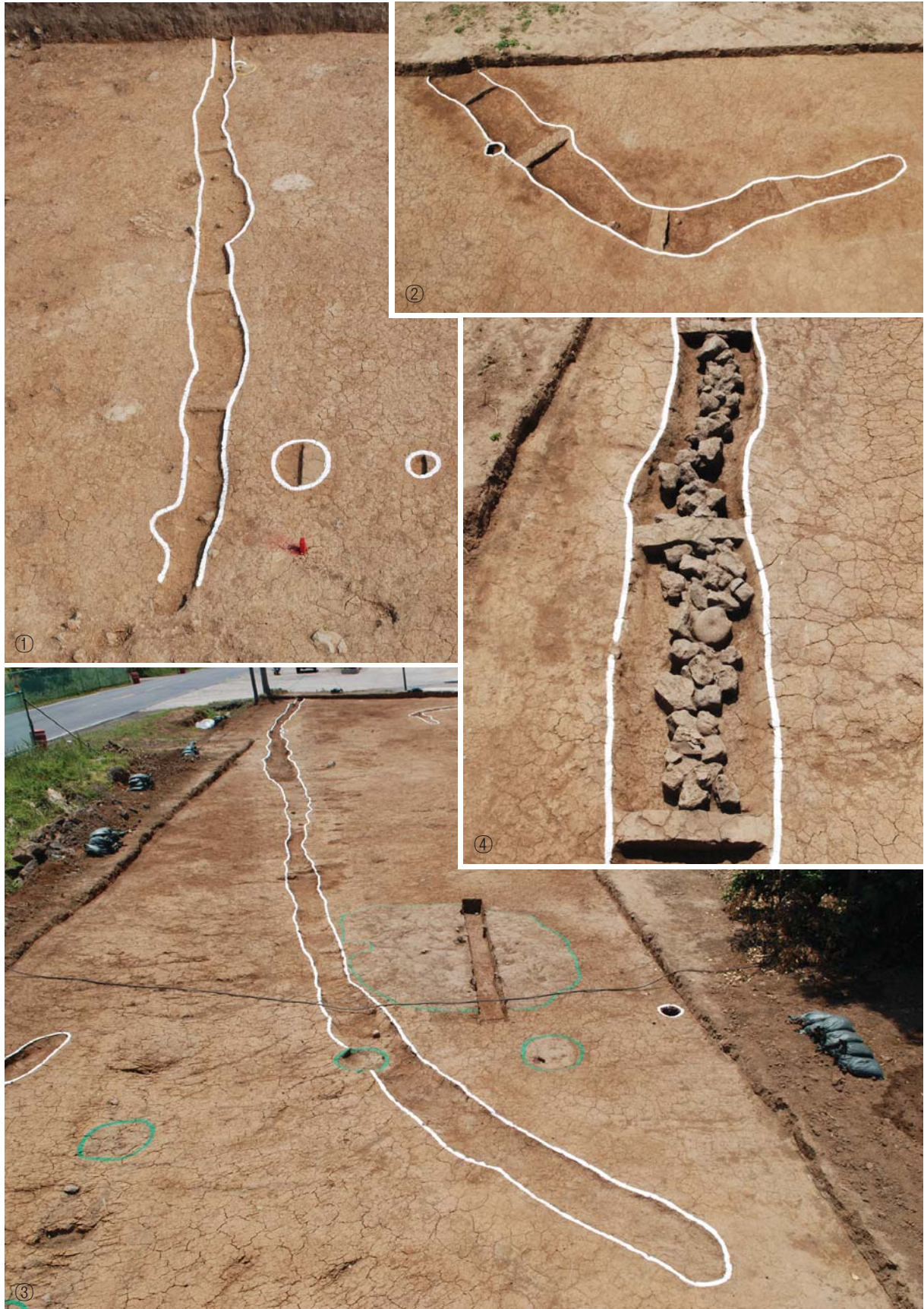
도판 27. 집석유구 출토유물(1)



도판 28. 집석유구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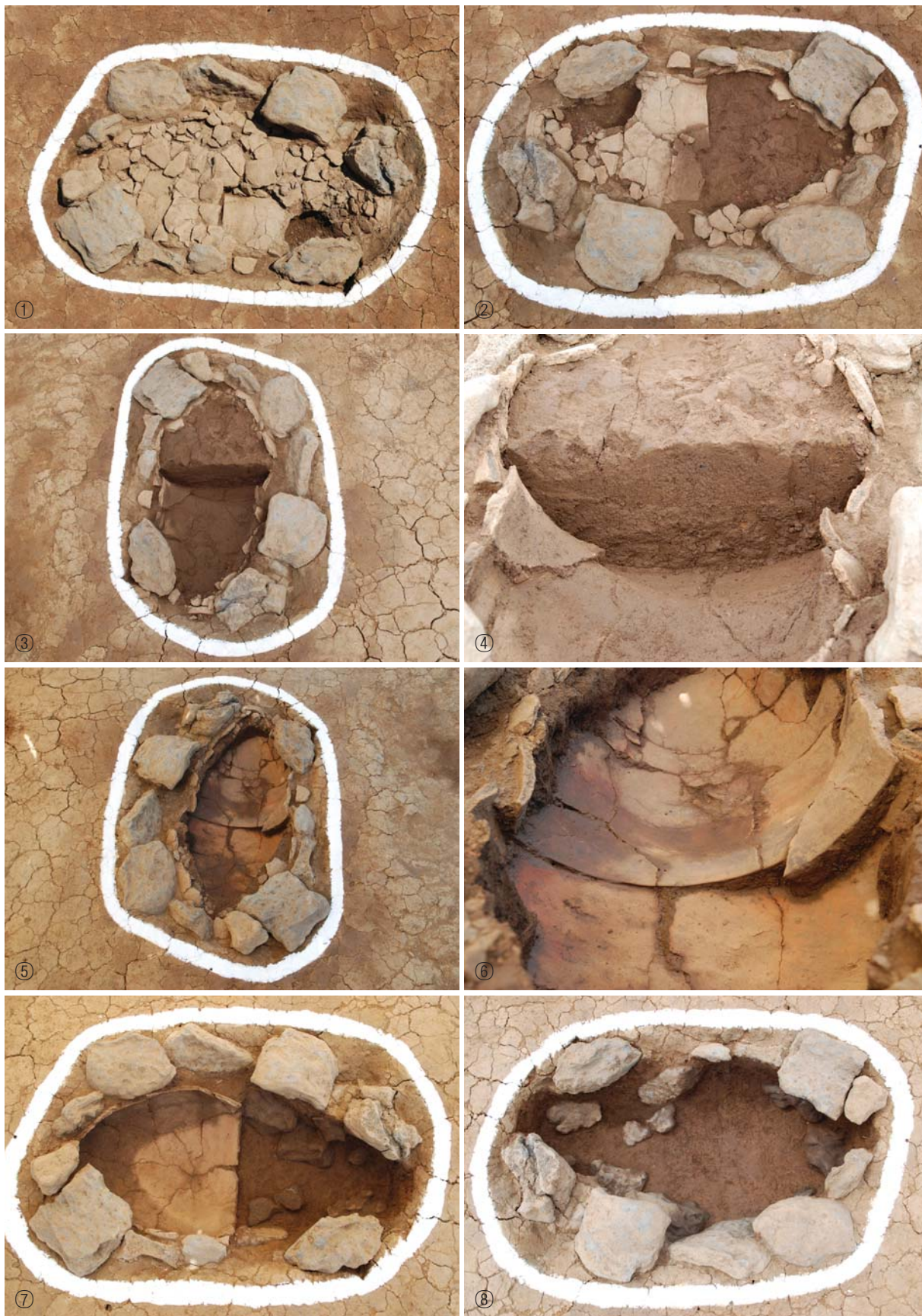
도판 29. ① 1호 소토유구 조사전 전경(북서에서) ② 1차 조사후 전경 ③ 동벽 토층 ④ 세부 모습 ⑤ 조사 완료후 전경(남동에서)
⑥ 2호 소토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⑦ 유물 출토 모습 ⑧ 조사 완료후 전경(북동에서) ⑨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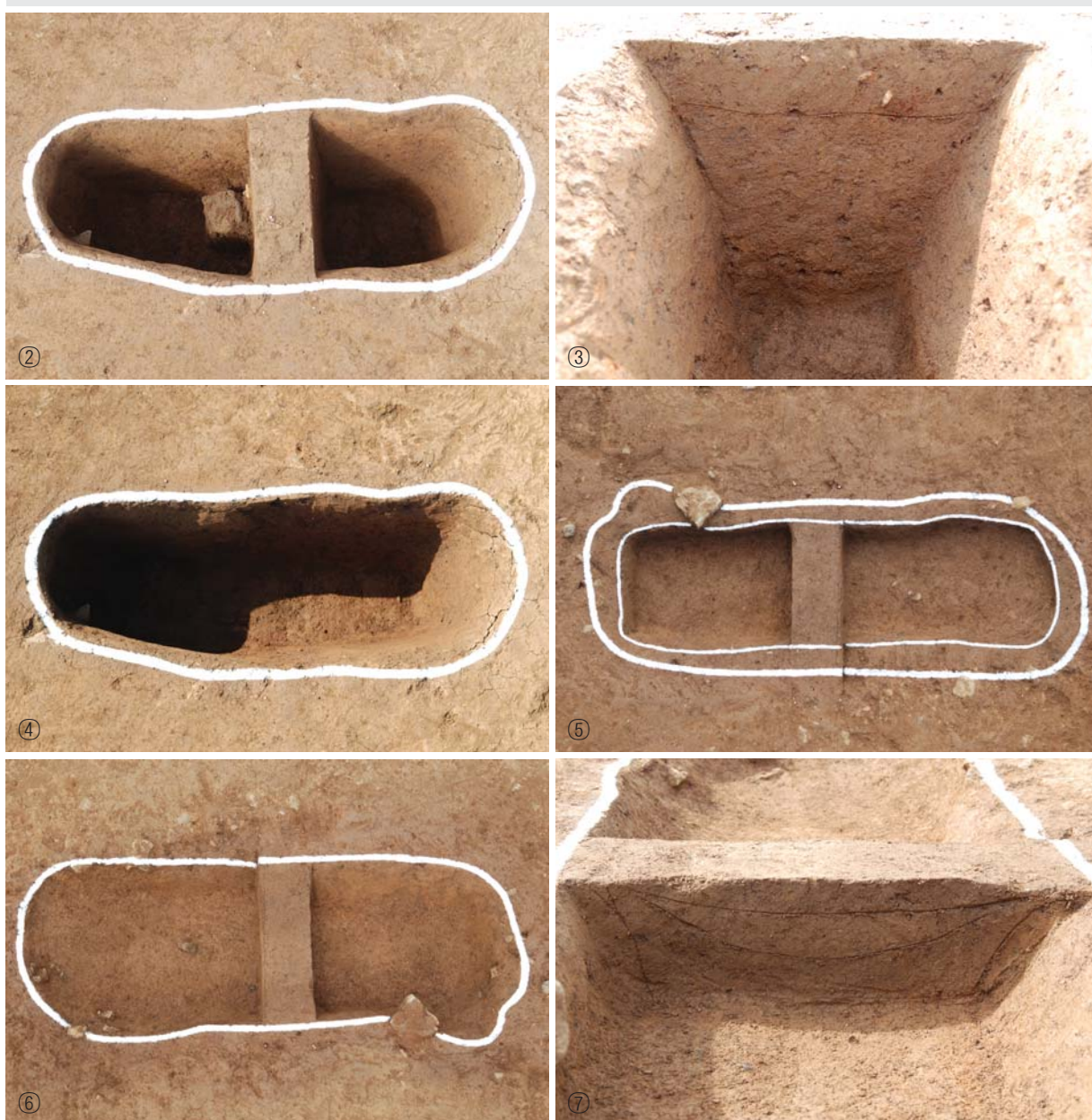
도판 30. ① 1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② 2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③ 3호 구상유구 2차 조사 후 전경(북동에서) ④ 세부 모습



도판 31. ① 3호 구상유구 세부 모습 ② 유물 출토 모습 ③ 출토유물 ④ 4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⑤ 5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도판 32. ① 1호 옹관묘 전경(북서에서) ② 1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③ 2차 조사후 전경(남서에서) ④ 단면 토층 ⑤ 3차 조사후 전경(북동에서) ⑥ 세부 모습 ⑦ 4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⑧ 5차 조사후 전경(남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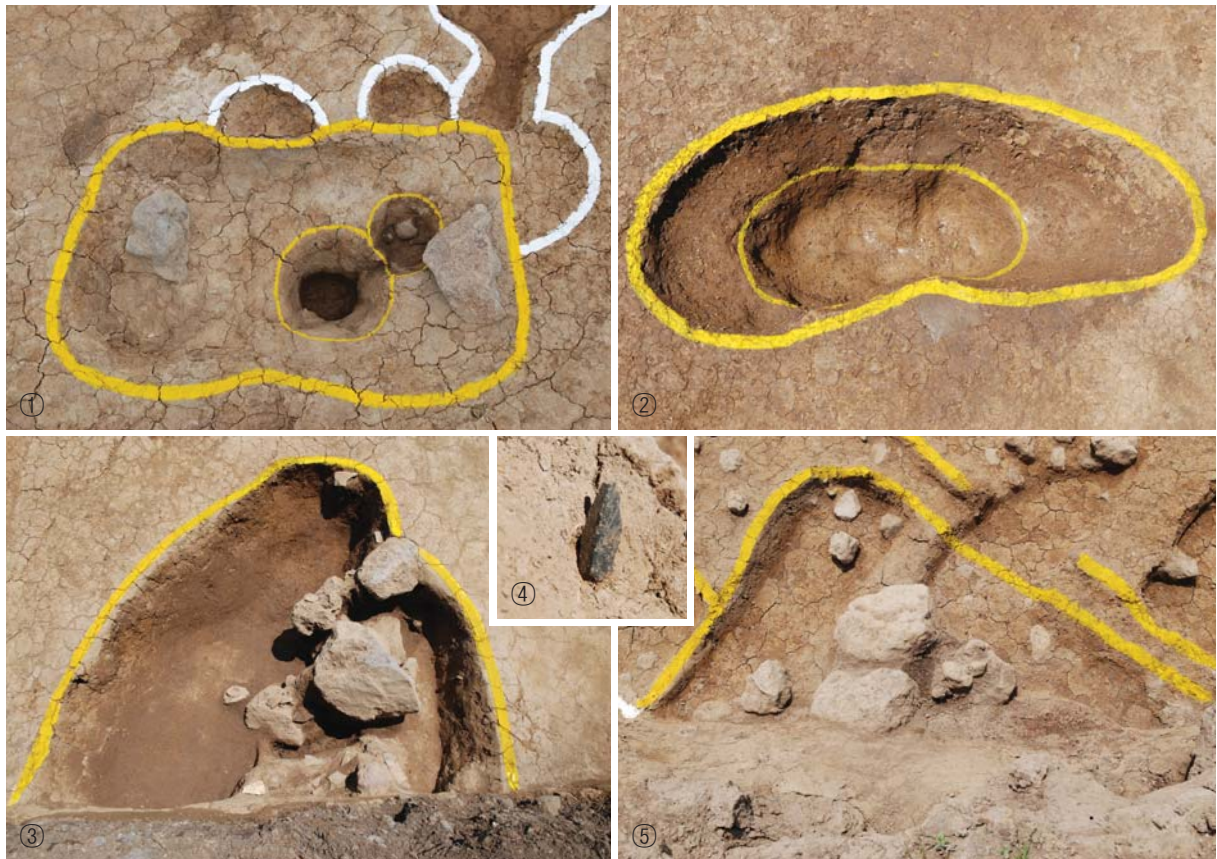
도판 33. ① 옹관묘 출토유물 ② 1호 토광묘 2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③ 남벽 토층 ④ 조사 완료후 전경 ⑤ 2호 토광묘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⑥ 2차 조사후 전경(남에서) ⑦ 서벽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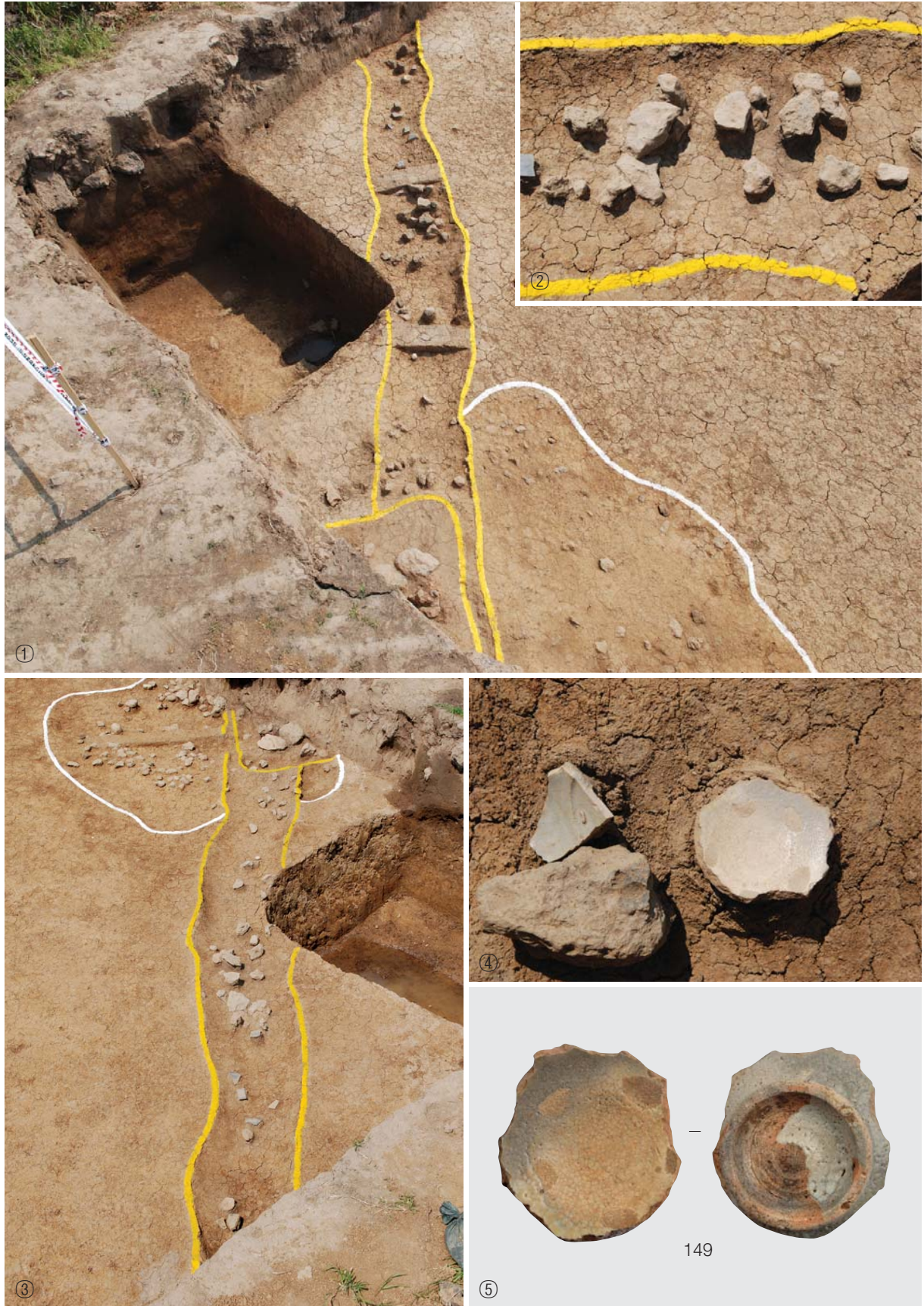
도판 34. ① 3호 토광묘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② 동벽 토층 ③ 유물 출토 모습 ④ 조사 완료후 전경(남에서) ⑤ 출토유물
⑥ 4호 토광묘 2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⑦ 2차 조사후 전경 ⑧ 동벽 토층



도판 35. ① 4호 토광묘 조사 완료후 전경(북에서) ② 출토유물 ③ 주혈군 조사 완료후 전경(남서에서) ④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도판 36. ① 조선시대 1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동에서) ② 2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남동에서) ③ 3호 수혈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서에서) ④ 유물 출토 모습 ⑤ 4호 수혈유구 조사 완료후 전경(남동에서) ⑥ 3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도판 37. ① 조선시대 1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② 세부 모습 ③ 2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④ 유물 출토 모습 ⑤ 출토유물



도판 38. ① 조선시대 2호 · 3호 구상유구 1차 조사후 전경(동에서) ② 2차 조사후 전경(북에서)



150



151



152



153



154

도판 39. 지표수습유물

發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확장사업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濟州 道連洞遺蹟(614-1番地)				發刊日	2011年 11月 日
發刊機關	名稱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住所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오라2동 700-7번지)				
	TEL	(064) 712-8362~3		FAX	(064) 712-8361	
執筆・編輯者	김경주, 현승룡, 강창룡					
調査緣由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확장사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發掘調査者	고재원, 김경주, 현승룡, 임맹주, 이정하					
所在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2동 614-1번지 일대					
調査面積	15,360㎡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 要 遺 物		特 記 事 項	
주거지	탐라성립기	4동	직립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적갈색경질토기, 마제석축, 유구석부, 연석, 고석, 요석, 지석, 방추차, 옥			
굴립주건물지	〃	1동				
수혈유구	〃	22기				
집석유구	〃	1기				
구상유구	〃	5기				
소토유구	〃	2기				
옹관묘	〃	1기				
토광묘	〃	4기				
기타유구	〃	1기				
수혈유구	조선시대	4기	백자, 도기편			
구상유구	〃	3기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 확장사업 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濟州 道連洞遺蹟

- 614-1番地 -

발행일 2011년 11월 일

편집 · 발행처 (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690-162 제주시 정실2길 3(오라2동 700-7번지)
TEL.(064) 712-8362~3 FAX.(064) 712-8361

인쇄 일신옵셋인쇄사
제주시 이도2동 1927번지
TEL.(064) 758-1500 FAX.(064) 756-8841

이 책에 실린 모든 자료는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